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장혜경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2008. 12

연구책임자 : 장 혜 경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영 란 (본원 전문연구위원)

서 문 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 용 희 (본원 위촉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Ⅰ)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18-01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Ⅰ)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8-02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8-03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한국조세연구원
08-18-04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8-18-05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김용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조세 연구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hil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변숙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덕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세미만의 영아, 장애아 등 특수 아동, 장시간 근로 및 근무시간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야간시간대 아동의 보호 등 가족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아동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중심의 보육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최근 일부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베이비시터 파견, 또는 아이돌보미 파견사업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가정보육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정내 보육은 영리민간업체에 의해 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보육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없어 이들 영리민간업체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가정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영리업체와 비영리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가정보육에 대한 제도화 및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부 영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민간영리업체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력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정책의 주요 방향이 시설중심의 공보육체제구축이라는 것과 시설보육의 보완재로서의 가정보육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가정보육의 제도화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가에 의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내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에 근거하여 시설보육의 보완으로서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실태 조사에서는 아동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하루시간대별 아동돌봄 형태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족내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방안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 연구 내용

- 첫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로, 가정내 양육의 의미와 가정 중심 보육제공자에 관하여 살핀 후 아동돌봄도우미의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아동보육서비스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족내 아동돌봄 형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가정보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료베이비시터 및 업체 관련 선행연구와 가정보육지원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검토하였다.
- 둘째,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과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가정보육제도와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외국의 정책동향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셋째, 아동돌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돌봄형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하루시간대별로 돌봄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아동연령 및 가구소득별, 부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라 조사하였고, 각 돌봄형태를 선택하게 된 사유,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유료가정보육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역시 포함되었다.
- 넷째,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가족내 아동돌봄 서비스 다양화 및 아동돌봄서비스 인력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라.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 아동 돌봄이용 실태조사 실시

- 서울과 경기지역의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 자문회의 및 보고회의

- 자문회의와 연구 보고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연구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논의

가. 가정 내 양육과 아동돌봄도우미

- 가정 내 양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을 포함하는 가정 중심 보육(Home-Based Child Care)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공식보육으로는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을 들 수 있다.
- 가정 중심 보육의 보육제공자 유형과 제공체계를 살펴보면,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한데, 서문희 외(2004)에서는 가정 중심 보육 서비스제공자로 이웃탁아모, 파출부, 베이비시터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국제내니협회는 가정내 보육관련 직업에 대해 크게 베이비시터(Babysitter), 내니(Nanny), Nursery Nurse, 오페르(Au Pair), 가정교사(Governess), 부모 도우미(Parent/Mother's Helper)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편, 가정 중심 보육의 제공체계는 크게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 있는데 비영리유형은 친인척에 의한 보육과 공공보육 서비스로 구분되고 영리유형은 민간영리사업자가 베이비시터인력과 희망부모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형태를 갖는다.
- 본 연구는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과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 보육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을 ‘아동돌봄도우미’로 정의하고 있다.

나. 선행연구 검토

- 아동돌봄실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조사로 서문희 외(2005)의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보고”를 들 수 있다. 서문희 외(2005)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전국 6,405명 조사대상자 중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30.8%, 친인척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14.7%, 유료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지경(2005)은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자녀수, 거주 지역, 가구원수,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제시하였다. 한편,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형태를 부모의 취업형태에 따라 살펴본 연구들(김혜란, 2005 외)은 일반적인 경우 가정내 주양육자가 되는 어머니의 취업상황, 즉 출·퇴근 시간이나 직종 등에 따라 자녀 보육 실태와 만족도, 육구 등에 차이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가정내 보육지원서비스 및 제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옥(2004)은 0-1세아의 가정내 보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 사업 방안 제시하였다. 정민자 외(2006)는 아이돌보미 사업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윤옥(2007)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해온 가정파견보육서비스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보육도우미 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유료가정보육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연구(서문희 외, 2007; 서문희·이상헌, 2002)를 들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베이비시터 이용자는 고학력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많고 이용아동의 연령은 3세미만의 영아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베이비시터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법적인 위치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내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에서 유료가정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가구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가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이비시터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유료가정보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 및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3. 한국의 가족내 아동돌봄지원정책 동향

가. 아동돌봄지원정책 흐름

- 우리나라에서 아동돌봄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들어 결혼 후에도 취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되면서부터로, 고용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이 요구되었고, 여성들의 고용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육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이어졌다.
-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과 현황은 모성보호 및 휴가, 보육지원제도, 현금 급여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모성보호 및 휴가제도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출산휴가제도가 변경된 산전후휴가제도, 그리고 이 외에도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 등이 역시 포함된다.
 - 보육지원제도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기능보강,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 운영비 및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되며,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은 영아기본보조금,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두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취약보육지원 등이 있고 모두 시설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현금 지원 제도는 농어민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입양자녀 양육수당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상과 지원수준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가족내 아동돌봄 도우미 이슈

- 개별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함께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하여 가정내 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반면 영리부분은 관리·규제할 근거가 없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영리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가정내 돌봄인력을 근로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민간비영리인 YMCA 아가야사업, 민간영리업체에서 제공되는 베이비시터 등이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0세~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지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탄력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간제의 보충적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제한적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보육대상은 생후 36개월 미만인 영유아이며 5세까지 연장보육이 가능하다. 보육시간과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때 교사와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나오게 된다.
 - YMCA의 ‘아가야’ 사업은 비영리 단체가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하거나 이용자와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업 내용으로 베이비시터 파견 이외에 놀이 안내 시터, 보육시설 파견 도우미 시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영리 부문에서의 파견 서비스인 베이비시터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6년,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던 시기이었다. 그 후 보육시설의 확충과 국가 경제위기 등으로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이 주춤하였으나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벤처사업으로 다시 설립이 증가되어 2007년에는 약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제공 인력인 베이비시터에 대하여 질 관리 측면에서 미흡함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4. 외국의 가정보육 제도 관련 정책동향

-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을 영아 보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만큼 양육수당(APE), 가정내보육수당(AGED), 등록보육모고용지원제도(AFEAMA) 등 다양한 비용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비용지원체계는 2003년 PAJE로 통합되게 된다. 한편, 기존의 등록가정보육모고용지원제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보육하는 가정보육모의 이용이 활발하다. 가정보육모고용지원제도는 인증을 받은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에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도적으로 보육모의 질을 관리하고 음성적인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가정보육(home daycare)은 사적 보육 영역에서 발달해 왔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허가 제도를 도입, 지도·감독 및 지원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정보육제공자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경우 민간 관련 업체가 연령, 흡연, 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신원조회를 위해 별도의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육 참조 및 자원기관(CCR&R)에서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정부의 비용지원에 있어서는, 보육 공급자와의 계약방식에 의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육이용권(voucher) 등을 이용한 보육료 지원 방식의 경우 주정부에 따라서 친인척 보육 및 시터에 의한 비공식보육도 부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영국의 가정보육모는 자영아동보육자인 ‘가정보육모(childminder)’와 ‘내니’(또는 ‘베이비시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가정보육모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자영업자로서 보육비용은 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6년 아동보호법(Childcare Act)을 통해 보상을 받고 하루에 두 시간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내니 등은 자발적 등록대상으로, 에이전시를 통할지라도 관련 서류들과 자격조건을 확인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일본의 가정보육제도는 인가보육소의 저연령아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주로 대도시 및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데, 정부 지원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혀 지원이 없는 곳에서부터 일반 보육소 이용 지원액과 유사한 정도의 지원금이 보조되는 곳도 있다. 한편, 일본은 일본 전국 베이비시터 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에서 교육과 시험을 통해 베이비시터의 자격을 인증하는 등 민간 스스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베이비시터 이용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리 베이비시터 이용을 지원하여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 호주의 가정보육은 등록된 보육모의 집에서 아동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보육이다.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 융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호주에서 가정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수입에 기초하고 있다.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2000년 이후로 Child Care Benefit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되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이처럼 외국의 가정보육에 대한 제도를 보면 비록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에서의 자격관리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가 인정되고 보완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베이비시터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나 전국베이비시터협회를 통해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현재 가족내 아동돌봄서비스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즉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 및 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개별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고, 영리업체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전체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방식은 프랑스나 영국처럼 정부가 할 수도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캘리

포니아 사례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5. 가족 내 아동 돌봄 실태 조사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하였으며 전체 표본 수는 1,000가구이다. 취학전 아동의 돌봄 형태를 조사하고자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조사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으로, 서울은 강북서부, 강북동부, 강남서부, 강남동부의 4대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표본할당 수는 388명이며 인천경기는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기위성지역으로 나누었으며 표본 수는 612명이다.
- 조사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로 하였으나 어머니가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동의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원에 의한 개별면접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조사도구는 설문지였다.
- 조사 내용은 우선 조사응답자와 아동, 배우자 관련 일반적 사항이 포함되었고, 본격적인 조사 내용은 크게 돌봄형태와 유료가정돌봄에서 베이비시터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돌봄형태는 크게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의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아동연령별, 응답자 소득 및 가구소득별, 취업상태별로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 돌봄형태별로 선택이유와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돌봄이용 비용, 그리고 유료베이비시터 관련 사항들 역시 조사에 포함되었다.

나. 조사결과

1) 일반적 사항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동과의 관계 및 연령, 학력, 그리고 경제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조사응답자 전체 1,000명 가운데 995명이 아동의 어머니이다. 나머지 5명은 아동의 아버지이며 모두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족이다. 응답자의 연

령은 평균 33.9세이며 학력은 대졸과 고졸이 각각 55.9%, 42.7%였다.

- 응답자 중 취업자는 40.4%, 가사양육을 하고 있는 비율은 59.6%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아동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아동수는 평균 1.66명이며 2명(50.5%), 1명인(41.8%)인 경우가 많았다.
- 응답자의 배우자는 평균 연령이 36.4세였고 학력수준은 대졸이 68.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98.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180만원-350만원 미만(45.9%), 350만원-500만원 미만(41.0%)이 많았다.

2) 아동 돌봄 형태 분석

- 아동 돌봄 형태에 대한 설문에는 하루중 아동을 돌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복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직접돌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8.4%, 시설돌봄이 전체의 57.4%,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15.0%, 친인척돌봄은 8.1%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과 가구의 소득에 따라 조사된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연령별 돌봄형태를 살펴 보면 직접돌봄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우 높았고 시설돌봄은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해당 비율이 높아졌다.
 - 소득에 따른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소득의 경우, 시설돌봄은 100-150만원미만 일 때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다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미만 소득자를 제외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월평균소득과 돌봄형태는 응답자의 소득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살펴 보면, 오전 시간 대에는 직접돌봄이 가장 많았고 낮 시간대에 시설돌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근시간대를 기점으로 하여 직접돌봄이 줄어들고 있어, 경제활동이 돌봄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퇴근 시간 이전인 2~3시를 기점으로 직접돌봄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시설돌봄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을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 아동의 연령과 하루 시간대별 돌봄 형태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직접돌봄의 비율이 줄어들고, 시설돌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세이하 아동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유료가정돌봄이 시설돌봄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개별 돌봄이 선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세 아동의 경우 1세 이하 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시설돌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돌봄시설 운영시간의 제한과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시설에 장시간 두는데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1세이하 아동의 경우처럼 아침 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직접돌봄 또는 유료가정돌봄 등의 개별 돌봄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 3세이상 아동과 4-5세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형태가 1세 이하 아동과 2세 아동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3시 또는 4시 이후에 직접돌봄보다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 아동들의 시설 돌봄 이용 비율이 오후 3시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조사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시설돌봄 또는 유료가정돌봄 이용 비율이 높고 비취업자는 직접돌봄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비취업자는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취업자에 비해 직접돌봄 이용 비율이 대체로 더 높다. 그러나 비취업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높은데,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것은 교육이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친인척돌봄은 취업자의 경우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취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오후 5시 이후 시간에 친인척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돌봄시설 이용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도 오후 7시 이후에는 시설돌봄보다 이용율이 더 높게 나타나 시설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형태를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비취업자는

하루시간대 대부분 직접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시설돌봄으로 나타났다.

- 2세 아동의 경우 1세 이하 아동과 유사한 돌봄형태를 보였다.
- 3세 아동은 1세 이하, 2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비취업자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전 10시-오후 3시에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직접돌봄보다 약간 상회했다. 이는 3세 아동의 경우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아동을 시설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세 이하, 2세 아동의 경우와 달리 취업자의 경우 3세 아동은 오후 6시에서 7시에 시설돌봄이 직접돌봄보다는 적지만 유료가정돌봄과 친인척돌봄보다는 높았다. 이것은 직접돌봄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에서 돌봐주는 것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4-5세 아동의 경우,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낮 시간대 시설돌봄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유료가정돌봄은 비취업자의 경우 매우 낮았고 취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 아동에 비해 이용비율이 낮다. 다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6%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돌봄시설이용이 끝난 후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4가지 돌봄형태 각각에 대하여 선택한 이유 역시 조사되었다.

- 직접돌봄의 경우 많았던 응답은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비용이 부담돼서” 등이었다.
- 시설돌봄을 택한 이유로 많았던 응답은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음이 나타났다.
- 유료가정돌봄을 선택한 사유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였는데, 직접돌봄의 경우처럼 유료가정돌봄도 아동의 연령이 어릴 때 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 역시 많아 직접 돌봄을 하는 이유와 유사했다.
- 한편, 사례수가 적었으나 시설에 보내고 있음에도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그 이유에 관해서도 조사되었다. 결과, “돌봄시설 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서”, “전일제 유료가정돌봄비용이 부담돼서”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설돌봄의 경우 운영시간 문제,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비용과 교육적 효과 부분에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친인척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돌봄담당자는 누구인지, 시설돌봄의 경우 시설유형은 무엇인지 등이 역시 조사되었다. 친인척돌봄의 경우 사례 수가 적었는데, 이 중 대다수가 아동의 조부모였다. 시설돌봄 이용자의 경우 시설 유형은 어린이집(57.9%), 유치원(30.0%)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주변의 소개를 통해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자와 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소개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즉, 실제로 가정에서는 유료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업체를 통하기보다는 개인적 경로를 통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월평균 비용은 친인척돌봄의 경우 23만8천원, 시설돌봄은 월평균 이용비용은 2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아이돌보미와 유료베이비시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결과 아이돌보미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16만7천원, 베이비시터는 66만9천원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지출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실태

- 유료가정돌봄 중 아이돌보미가 아닌 유료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 베이비시터 관련 특성을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여부, 그리고 베이비시터의 업무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베이비시터의 평균연령은 47.3세이며 40대가 50.0%로 가장 많고 학력은 고졸(63.1%)이 가장 많았다. 베이비시터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 없다고 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한 응답도 39.0%로 나타났다.
 - 베이비시터의 업무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아이와 놀아주기’, ‘먹이기’ 등이 많았고,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와 ‘가

사'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시터가 해주기를 바라는 업무로 '가사'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여 베이비시터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와 베이비시터의 업무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 베이비시터와 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등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베이비시터 업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입회비용,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내용,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이용 비용, 베이비시터관련 불만접수처리, 안전사고시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 조사대상자 전체에 대해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인성, 육아경험, 전문성과 베이비시터 경력 등이 베이비시터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시터에 관하여 학력, 건강진단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증명서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동을 돌보는데 학력보다는 자격증이나 교육이 더 신뢰할만하며 정신병력, 건강, 신원보증 등을 중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4) 아동돌봄 실태조사의 시사점

- 본 연구는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루 시간대별로 돌봄 형태 및 유료가정보육(베이비시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돌봄 형태를 시간대 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이 돌봄형태와 밀접히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돌봄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을 고려한 가정내 돌봄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의 취업여부와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따라 아동돌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이용의 경우 돌봄과 교육모두가 충족되기를 희망한다는 점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료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내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 가족내 아동 돌봄 지원 방안

가. 기본 방향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흐름과 현황,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이슈가 제기되는 배경, 그리고 외국의 가정 보육제도에 대해 살피고, 우리나라의 가족내 아동돌봄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아동돌봄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 가정내 아동돌봄지원은 아동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원칙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족내 아동돌봄에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 보육정책은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가정내 아동돌봄은 시설돌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돌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택권 보장의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둘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다. 그러므로 인력의 양성, 자격 부여,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셋째,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공공 부문에서의 가정내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확대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대 뿐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질 관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 넷째,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과 같이 소득에 기준한 지원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방안

-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돌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돌봄서비스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서비스 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돌봄 이외에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 둘째, 공적영역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장시간 근로나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중산층 보다도 가정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더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셋째, 비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유료가정보육은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은 비용부담 때문에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료가정돌봄 서비스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다양화되어 이용료 또한 소득수준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넷째, 유료베이비시터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주말, 공휴일 등에 서비스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시간대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유료가정돌봄시장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규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다섯째,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돌봄에 있어서는 시설 이용 시간외 가정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당 총지원액수를 정한 뒤 시설과 유료가정보육서비스를 총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아동돌봄 인력 관리 및 비용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아동돌봄인력에 대해 자격 등을 인증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돌봄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주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해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인

력 파견 후 부모와 이들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 비용지원을 살펴보면, 비영리 부분에서의 돌봄 비용지원은 시간제, 종일제, 월 단위 등 다양하게 설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다. 그러나 영리 업체의 비용은 자율 상태에 맡겨진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소득수준을 구별하여 차등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9
1.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도우미	11
가. 가정내 양육	11
나. 아동돌봄도우미의 개념	13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15
가.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15
나.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다. 가정내 보육지원서비스 및 제도 관련	22
라. 유료가정보육 이용 실태	24
3. 연구의 틀	25
III. 가족내 아동돌봄지원 정책동향	27
1.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과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	29
가.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	29
나.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	44
2. 외국의 가정보육 제도 관련 정책동향	63
가. 프랑스의 가정보육	63
나. 미국의 가정보육	68

다. 영국의 가정보육	70
라. 일본의 가정보육	72
마. 호주의 가정보육	74
3. 요약 및 시사점	77

IV. 한국의 가족내 아동 돌봄 실태 조사결과 81

1. 조사개요	83
가. 표본설계	83
나. 조사 방법	84
다. 조사도구 및 내용	84
2. 일반적 사항	86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6
1) 아동과의 관계, 연령 및 학력	86
2) 경제활동	87
나. 응답자의 아동 관련 사항	89
다. 응답자의 배우자 관련 사항 및 가구소득	90
3. 아동 돌봄 형태 분석	92
가. 아동 연령 및 소득별 돌봄 형태	92
1) 아동연령별 돌봄형태	92
2) 소득별 돌봄형태	94
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96
1) 아동연령과 시간대별 돌봄형태	98
2) 취업상태와 아동연령별 돌봄형태	101
다. 돌봄형태별 선택 사유	109
라.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113
마.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	115
4.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실태	118
가. 베이비시터 관련 특성	118

1)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여부	118
2) 베이비시터의 업무내용	120
나. 베이비시터와 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기준	121
5. 요약 및 소결	126
 V. 결론: 가족내 아동 돌봄 지원 방안	131
1. 기본 방향	133
2.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방안	136
가. 아동돌봄서비스 다양화	136
나. 아동돌봄 인력 관리 및 비용지원 방안	138
 ■ 참고문헌	141
 ■ 부 록	145
<부록 1> 설문지	147
<부록 2> 조사결과표	157
 ■ Abstract	177

표 목 차

<표 II-1> 보육 유형 구분 및 보육제공자	14
<표 II-2> 돌봄 이용 실태(전국)	15
<표 III-1> 모성보호 및 휴가제도	34
<표 III-2> 설치 주체별 보육시설 지원	38
<표 III-3> 프로그램별 보육시설 지원	39
<표 III-4> 보육료 지원(현금 및 수당)	41
<표 III-5>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	48
<표 III-6>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49
<표 III-7>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중복 응답)	49
<표 III-8> 아이돌보미 이용 사유	50
<표 III-9>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현황(중복 응답)	50
<표 III-10> 아이돌보미 이용아동 연령 현황	50
<표 III-11>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이용 부모에 대한 지원	54
<표 III-1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55
<표 III-13>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	67
<표 III-14> 가정보육 돌봄제공자 관련 외국의 정책 동향	76
<표 IV-1> 지역별 표본 할당	83
<표 IV-2>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	85
<표 IV-3> 응답자의 아동과의 관계 및 배우자 여부	86
<표 IV-4> 응답자의 연령 및 학력	86
<표 IV-5>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및 월평균 수입	87
<표 IV-6> 응답자의 고용형태	88
<표 IV-7> 응답자의 주당근로시간	88
<표 IV-8> 출근시간대별 퇴근시간 분포	89
<표 IV-9> 아동수	90
<표 IV-10> 아동출생순위별 성별 및 연령 분포	90

<표 IV-11>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경제활동관련 사항	91
<표 IV-12> 가구 월평균소득	92
<표 IV-13> 돌봄형태	93
<표 IV-14> 응답자 월평균소득과 돌봄형태	94
<표 IV-15> 월평균가구소득과 돌봄형태	95
<표 IV-16> 월평균가구소득 및 취업여부별 돌봄형태 해당여부	96
<표 IV-17>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97
<표 IV-18> 직접돌봄을 하는 이유	110
<표 IV-19> 시설에 보내는 이유	111
<표 IV-20>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유	112
<표 IV-21>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	113
<표 IV-22> 돌봄형태별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115
<표 IV-23> 돌봄형태별 이용비용	117
<표 IV-24> 월평균가구소득별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용 평균	118
<표 IV-25>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여부	119
<표 IV-26> 베이비시터의 현재 업무내용 및 희망업무	121
<표 IV-27>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122
<표 IV-28> 이용하는 베이비시터업체에 대한 만족도	123
<표 IV-29>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	124
<표 IV-30> 베이비시터 고용 시 사전면접필요정도	124
<표 IV-31> 베이비시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정도	125
<표 IV-32> 베이비시터 지원자 증명서 필요 정도	126
<표 V-1> 아동돌봄형태별 제도화 방향	134

그 림 목 차

<그림 II-1> 전체 및 비용 지불 아동의 개인돌봄지원 이용률	16
<그림 II-2> 연구의 틀	26
<그림 IV-1>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97
<그림 IV-2> 1세이하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99
<그림 IV-3> 2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0
<그림 IV-4> 3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1
<그림 IV-5> 4-5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1
<그림 IV-6> 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2
<그림 IV-7> 비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3
<그림 IV-8> 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4
<그림 IV-9> 비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4
<그림 IV-10> 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5
<그림 IV-11> 비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6
<그림 IV-12> 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7
<그림 IV-13> 비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7
<그림 IV-14> 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8
<그림 IV-15> 비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08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은 가족의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보육정책예산이 대폭 늘어났으며 보육시설 또한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왔다. 보육예산 및 시설 등 보육인프라에 대한 투자이외에도 서비스 다양화와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및 시간 연장형, 휴일보육, 24시간보육 등 특수한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육정책은 시설 중심의 정책이었다.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보육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특수한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도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2세 미만의 영아, 장애아 등 특수 아동, 장시간 근로 및 근무시간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야간시간대 아동의 보호 등 가족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아동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중심의 보육 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0-2세 영아의 경우 연령적 특성상 시설보다는 가정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 거주지근처에 있는 시설을 선호하여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보육선택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아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¹⁾.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보육은 전통적 의미에서 가정보육모의 가정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이라기보다 가정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시설 보육화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보육서비스 제공자나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가 없었다(서문희, 2007:11). 현재 가정내 보육은 필요로 하는 가족이 개별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업체를 통하거나,

1) 현재 0-2세 아동의 보육현황을 보면 전체 1,331,110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8)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는 426,899명(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 2008)으로 32.1%이다.

4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이웃 및 주변의 소개로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주로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내 보육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무관심의 배경에는 가정보육이 비용이 비싸고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집단이어서 정책적으로 보육비용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있다. 이에 따라 가정보육은 영리민간업체에 의해 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²⁾. 그 외에 일부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고 있으며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작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이 있다.

가정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간영리업체와 비영리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제 가정보육에 대한 제도화 및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부 영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민간영리업체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력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정책의 주요 방향이 시설중심의 공보육체제구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개별적이고 다양화된 아동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보육의 보완재로 가정보육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가정보육의 제도화는 재정지원에서부터 국가에 의한 규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수준에서 가능하며 제도화가 반드시 국가에 의한 재정적 지원만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³⁾.

2) 가정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영리업체는 대부분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알선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인력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

3) 이는 현재 가정보육서비스의 주요 이용집단이 중산층 이상이므로 가정보육서비스의 제도화가 중산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가정보육의 제도화가 가정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보육이 국가와 사회, 가족의 공동책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주요한 정책으로 보육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리민간업체의 가정보육서비스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질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서비스 및 인력에 대한 국가의 규제 차원에서 제도화방안을 논의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내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⁴⁾에 근거하여 시설보육의 보완으로서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별가족의 아동돌봄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 연령과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가족내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방안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⁵⁾.

2. 연구 내용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이다. 이를 위해 가정내 양육의 의미와 가정 중심 보육제공자 유형 및 제공체계를 알아보고 본 연구를 위해 아동돌봄도우미의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다음 아동보육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고자 전국단위의 조사결과를 재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가족내 아동돌봄 형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유료베이비시터 및 업체관련 선행연구와 가정보육지원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정보육 관련 현황을 알아보았다.

둘째, 한국과 외국의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 정책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가정보육은 시설이 아닌 아동의 집 또는 가정보육모(또는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1명 또는 2~3명의 아동을 돌보는 보육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보육과 가족내 아동돌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족내 아동돌봄은 본 연구에서 가족의 아동 돌봄 및 양육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아동보다는 가족에 초점을 두고자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가정보육이므로 가족내 아동돌봄과 혼용하고 있으며 주로 정책관련 설명이나 배경설명을 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 5)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인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세부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었다. 세부과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1: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과제2: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한국조세연구원)”, 과제3: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제4: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체계 국제심포지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다. 4개의 세부과제는 가족내 아동 돌봄을 제도화함으로써 자녀 양육 지원을 체계화 하고자 기획된 세부영역과제들이다.

6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구체적으로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과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정책동향은 가정보육제도와 베이비시터 관련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고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아동돌봄이용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는 아동돌봄형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 돌봄형태는 하루시간대별로 직접돌봄, 시설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동연령 및 가구소득별,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조사하였다. 그리고 돌봄형태별로 선택하게 된 사유,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돌봄형태별 이용비용을 알아보았다. 유료가정보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료가정보육이용자를 대상으로 베이비시터 관련 특성, 베이비시터와 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밖에 조사응답자와 응답자 자녀 및 배우자 관련 일반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족내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가족내 아동돌봄 서비스 다양화 및 아동돌봄서비스 인력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방법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용어 정의, 해외 정책 동향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가족내 아동돌봄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이다. 조사응답자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어머니로 하였으나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자인 사례는 995가구,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한 사례는 5가구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향 설정 자문회의, 실태조사관련 자문회의, 연구중간보고회 및 연구최종결과보고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연구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가족내 아동돌봄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음에도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없었던 점이다. 그러나 하루시간대별로 아동돌봄 형태를 아동연령과 취업여부 등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패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하겠다.

둘째, 아동양육지원의 제도화라는 큰 연구주제를 위한 시리즈연구 중 한 부분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내 아동돌봄지원에 국한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해내었기 때문에 아동돌봄 제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사회정책으로서 공보육에 대한 기본원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용하는 계층이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므로 국가 정책 지원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늘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족내 아동 돌봄 지원 제도화의 의미를 공공영역의 직접서비스 공급 및 재정지원이 아니라 민간영리업체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관리감독을 포함하는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유료가정돌봄 서비스관련 내용은 민간에 대해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밝힌 협동연구의 큰 틀에서 살펴보면 가족내 아동돌봄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아동돌봄은 보육이나 양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보육이 더 보편적인 용어라고 할수 있다. 돌봄의 형태를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직접돌봄을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친인척보육, 시설보육, 유료가정보육임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전체 협동연구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한국과 외국의 정책 관련 내용과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는 원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8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존중하여 보육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내용에서 유료가정돌봄의 돌봄장소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점이다. 가정내 보육은 돌봄이 제공되는 장소가 아동의 집인 경우와 돌봄담당자의 집인 경우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친인척 돌봄인 경우에 돌봄장소를 질문하였으나, 유료가정돌봄의 경우에는 돌봄제공장소에 대한 설문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향후 가정내 보육의 제도화를 논의할 때 1:1 개별 보육과 더불어 프랑스의 등록가정보육사제도와 유사한 5인 이하의 아동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가정보육모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유료가정돌봄에 대해 돌봄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한계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 설문조사에서 아이돌보미관련 문항에서 분석결과로 제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아이돌보미 이용주기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이 있었으나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조사결과 아이돌보미 이용자가 30사례로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각 항목별 분석결과는 부표로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도우미	11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15
3. 연구의 틀	25

I. 가정내 양육과 아동돌봄도우미

가. 가정내 양육

1) 가정내 양육의 의미

가정 중심 보육(Home-Based Child Care)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과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In-Home Car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은 아동의 가정에서 친인척 및 그 외 사람들에 의해 실시되는 보육을 말한다.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소규모로 실시되는 가정보육을 공식보육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은 대부분 비공식 부분의 보육으로 재택보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서문희외, 2007:17).

이와 달리 공식보육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및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있으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국립유치원이 있다. 이중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인원규정은 상시영유아 5인이상 20인 이하로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가정보육과 유사한 시설이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은 인증 또는 허가를 받은 공식보육 시설이며 가정보육은 5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비공식 보육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내 보육과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단 가정보육시설은 공식보육에 속하는 시설이므로 연구대상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2) 가정 중심 보육의 보육제공자 유형 및 제공체계⁶⁾

가) 보육제공자 유형

현재 한국에서 가정내 보육제공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서문희 외(2005)에서는 가정 중심 보육을 개인양육지원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로는 이웃탁아모, 파출부, 베이비시터, 개별방문지도⁷⁾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탁아모는 이웃사람이나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단기적으로 교육하여 파견하며, 아동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와 탁아모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베이비시터는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 가입비를 내고 소개받는 사람으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며 시간제로 비용을 지불한다. 파출부는 주로 가사를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을 병행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조선족이나 외국인 인력이 가정에 입주하여 아동을 돌보는 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들 역시 보육제공자의 범주에 속한다.

외국의 경우 국제내니협회에서 가정내 보육관련 직업에 대해 크게 베이비시터(Babysitter), 내니(Nanny), Nursery Nurse, 오페르(Au Pair), 가정교사(Governess), 부모도우미(Parent/Mother's Helper) 등으로 나누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Nanny Association, 2007). 베이비시터는 아동의 가정에 비정기적으로 종일제 및 시간제로 고용되어 아동에 대한 감독 후견보호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비정기적 고용이므로 아동의 가정에 입주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기대되지 않는다. 내니는 가정에 고용되어서 동거하거나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자로, 주요 업무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사에 국한되며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정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내니는 이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

6) 서문희 외, 2007:20-23에서 요약 발췌함.

7) 개별방문지도는 개인이 아동의 집을 방문하거나 집으로 아동을 불러 과외지도를 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의 성격이 강한 경우이다. 개별방문지도는 서문희 외(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 보육 및 교육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는 아동돌봄서비스가 주요 연구대상이므로 제외하고자 한다.

들로 대체로 일주일에 40-60시간을 일한다. Nursery Nurse는 영국에서 가정에 고용되어 동거하거나 출퇴근하는 집단으로, 자격기준은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주요업무는 아동돌보기 및 아동돌보기와 관련된 가사일에 국한된다. 이외에 오퍼어는 외국인으로 일정기간 머물면서 아이돌보기나 가사일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숙식을 해결하는 자이다. 가정교사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교육수준 이상의 사람들로 가정에 종일제 및 시간제로 고용되어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부모도우미는 최소 1인 이상의 부모가 주로 집에 있는 가정에 종일제로 고용되어 함께 살거나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이돌보기 및 가사일을 종일제로 하는 자이다.

나) 제공체계

가정 중심 보육의 제공체계는 크게 영리와 비영리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 유형은 친인척에 의한 보육과 공공보육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영리유형은 대부분 민간시장에 의한 것으로 민간영리사업자가 베이비시터 인력과 희망부모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형태이다. 베이비시터 인력과 이용자에 대해 각각 입회비와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베이비시터에 대한 소정의 교육 및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보면 비공식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구하는 방법이나 경로가 비영리 유형의 경우 주변의 소개나 친인척 등으로 매우 비공식적이다. 민간영리베이비시터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판단하여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다.

나. 아동돌봄도우미의 개념

가정중심 보육에서 보육제공자는 급여를 기준으로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되며, 아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인척과 그 외 사람으로 나뉘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제공자를 아동돌봄도우미⁸⁾라고 하고 있는데 비공식 보육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용어는 가족의 아동돌봄

14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에 대한 지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 주로 베이비시터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부지원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고용하는 모든 비공식 보육제공자가 아동돌봄도우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비공식보육에서 주로 통칭되고 있는 보육제공자인 베이비시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의 가정에서 그 가정의 아동만을 보육하는 방문탁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러나 영리위주의 방문탁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베이비시터는 내니와 구별된다. 베이비시터가 대부분 학생 등이 비정기적으로 다른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를 나타낸다면 내니는 입주 또는 출퇴근의 방법으로 탁아를 일정하게 주된 일로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는 위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다(서문희 외, 2007:17).

아래 표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근거하여 보육 유형을 공식보육과 비공식보육으로 구분해보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속한 시설 및 보육 형태와 제공자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제시해 본 것이다.

〈표 II-1〉 보육 유형 구분 및 보육제공자

	유형	제공자		유형	제공자	
					유급	무급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 시설	보육교사		가정보육	친인척 아동돌봄도우미*	친인척 그 외
공식 보육	유치원	유아교육교사	비공식 보육	가정내 보육		

* 비공식보육의 보육제공자는 다양한 용어가 있으나 본 연구의 제목을 고려하여 아동돌봄도우미로 제시하였음.

- 8) 도우미라는 용어는 의미상 노동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며 현재 가정내 보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가족의 아동 돌봄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아동돌봄도우미개념을 사용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가.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실태

아동돌봄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로는 서문희 외(2005)의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보고」가 대표적이다. 아래 <표 II-2>는 서문희 외(2005)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국 6,405명 조사대상자 가운데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30.8%, 친인척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14.7%, 유료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표 II-2〉 돌봄 이용 실태(전국)

(단위: 사례수(%))

구분	한다	안한다	전체
시설보육	1,972(30.8)	4,433(69.1)	6,405(100.0)
친인척보육	942(14.7)	5,463(85.2)	6,405(100.0)
유료가정보육	69(1.1)	6,336(98.8)	6,405(100.0)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보고」 데이터재분석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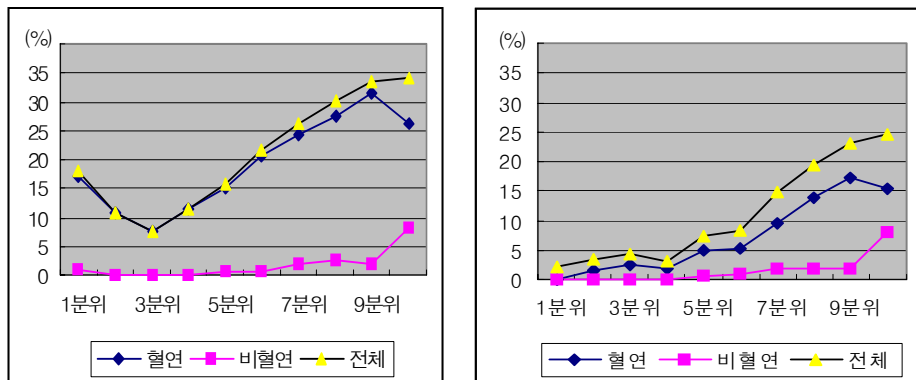
서문희 외(2005)에 의하면 영유아가 비공식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단독 이용 아동은 312명, 기관과 병행이용아동은 356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단독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혈연 관계에 의한 돌봄이 19.3%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혈연 관계에 의한 돌봄은 2.6%로 낮았다.

혈연관계에 의한 돌봄은 동거조부모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거 친인척(42.7%), 비동거 친인척(8.9%), 비동거 조부모(2.3%) 순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균 주당 5.1일, 1일 8.7시간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시 돌봄장소는 돌봄제공자의 집이 314명(68.8%), 아동의 집이 127명(31.2%)로 돌봄제공자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비혈연관계에 의한 돌봄은 탁아모가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비시터는 17.6%, 파출부는 7.8% 순이었다. 평균 돌봄일수는 5.4일, 주당 평균시간은 40.3시간이며 돌보는 장소는 아동의 집이 44.8%, 돌봄제공자의 집이

55.2%로 돌봄제공자의 집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탁아모는 탁아모의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고(72.1%), 베이비시터는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으며(88.9%), 파출부는 모두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88.2%가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비용은 전체 평균 44만 5천원이었다. 영아의 경우 평균 55만 5천원선이며 유아는 27만원이었다. 탁아모 비용은 50~59만원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19.5%)로 나타났고 베이비시터는 60~69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62.5%)로 나타났다(미취학, 취학 모두를 합한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다는 비율을 보면, 비혈연은 전체 이용률과 별 차이가 없으나, 혈연은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조부모 등 혈연관계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II-1> 참조).



〈전체 아동〉 〈비용 지불 아동〉
 〈그림 II-1〉 전체 및 비용 지불 아동의 개인돌봄지원 이용률

비공식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는 아이 기관 부적응(78.5%)이 가장 많으며 유아의 경우는 비용부담(62.3%)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다. 보육제공자별 만족도를 보면 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제공자의 양육은 시간, 비용, 양육방식, 양육환경 측면에서 집단의 85% 이상이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혈연인 관계의 보육제공자의 양육지원 비용 및 양육방식에 대하여는 35% 정도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아이가 기관에 적응 가능할 경우 비혈연 관계 보육제공자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기관에 아이가 적응가능하다면 비용부담이 적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혈연관계에 있는 보육제공자의 양육지원 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부담(3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양육방식의 차이(25.5%)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요구사항으로는 비용지원(45.5%), 인력 양성·교육(36.4%), 관련 정보 제공(3.0%) 순으로 나타나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다.

나.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형태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나정 외, 2003; 통계청, 2002; 서문희 외, 2002; 서문희, 2001; 김승권, 조애저, 2000; 서문희 외, 2000; Piecy, Collins & Kreader, 1999; OECD, 1999; NICHD, 1997; Casper, 1995; Akinson, 1994; Hofferth & Kisker, 1991; Butler, Brigham & Schultheiss, 1991, 김지경, 2005, 재인용)에 의하면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구의 형태와 지역, 소득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용의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김지경(2005)은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5차년도(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이용률에 대해 연구했다. 여기서 조사된 사교육 및 보육시설에는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내 보충, 방과후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일반 유치원 및 기타 유형이 포함되고 있다. 이 조사는 무엇보다도 가구단위로 산출하기 어려웠던 교육 및 보육시설에 따른 가계의 총지출 비용을 자녀별 지출금액의

총합을 통하여 실제적인 가계의 지출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김지경, 2005).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수(초등학교 3학년 이하), 거주 지역, 가구원수,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녀수가 적은 가구가 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가구 소득이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이용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어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 및 보육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친인척을 비롯한 조력자가 있거나 시설이용에 따르는 지출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여건이 되는 가구 등은 시설보육을 차선으로 선택한다(김지경, 2005). 그러나 김지경(2005)에 의하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의 경우 미국의 선행연구(Piecy, et al., 1999; Casper, 1995, 김지경, 2005, 재인용)와 같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설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경향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상치되는 연구결과로 보이는데 대체로 학력과 소득은 비례관계에 있는 변수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시설 이용률에 가구소득이 부의 관계를 미치고 있다면 학력수준과 시설이용을 선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학력수준이 높을 경우 시설선호율이 높은 것은 시설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는 차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어머니가 미취업한 가구에 비해 취업한 경우 시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설을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지경, 2005).

한편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보육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의 보육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 가계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지 않은 비율의 영유아들이 교육 및 보육기관으로서 학원의 이용은 보육시설의 이용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유아가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대체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는 선행연구결과(서문희, 2001)와는 대조적이다. 즉 영유아들의 학원 이용은 보육기관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 이용과 학원이용에 있어 연령에 따라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영향요인이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아동들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대체재로서 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이 아닌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 있다. 즉, 이들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 법정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등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원의 이용이 접근의 용이성 때문이라면 관련 기관의 설립요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김지경, 2004).

2) 부모의 취업형태와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형태

자녀 보육에 있어서 부모 취업 형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취업 상황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가정내 자녀의 주양육자가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상황, 즉 출·퇴근 시간이나 직종 등에 따라 자녀 보육 실태와 만족도, 욕구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취업 상황과 보육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기 보다는 어머니의 취업을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지만 어머니의 취업상황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도 있다. 박은미(2003)는 취업모의 근무형태와 가족유형에 따른 자녀 보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근무형태를 전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현황을 조사하였다.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 현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보육형태로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43.8%에 그친 반면 반일제 취업모의 경우에는 88.9%를 차지했다. 이것은 전일제 취업모

가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경혜(1998)는 가족구조, 자녀수, 어머니의 소득·연령·학력 등 보다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함께 어머니의 직업과 보육 유형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자녀 연령이 만 3~6세의 경우에는 취업모 직업이 간호사인 경우 가족에 의한 보육이 많았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은 낮았다. 이것은 간호사는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특히 야간 근무가 있어 보육시설 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가 만3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리양육자 고용에 있어서 교사와 사무직/공무원이 간호사보다 높게 나온 결과는 사무직/공무원이나 교사, 시간제 형태 취업모가 간호사 보다 자유롭게(일정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 시간을 예측하여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모의 '직종'이 아닌 '근무 시간'과 보육형태와의 관계를 연구한 박은미(2003)의 연구와 분석의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결과 역시 다른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김경혜(1998)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간호사는 3교대를 한다는 면에서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교대, 야간 근무를 하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실태와 함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있다. 권경옥(2005)은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중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시설보육만을 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19.8%에 그쳤는데, 조사대상자들의 자녀 연령이 4세 이상인 경우가 절반정도라 시설보육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3교대 근무로 인해 시설보육과 개인보육을 병행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희망보육시간에 대한 응답에도 반영되어 74.3%가 24시간 운영 또는 근무계획에 따른 운영시간을 원했고,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의사 관련 항목에서도 운영시간이 길수록 이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교대·비교대 근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민혜윤(2003)의 연구에서 전체 보육 유형은 시설 보육이 55.3%로 나타났으나 근무형태별(교대/비교대)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대 근무자의 보육시설 이용은 44.3%로 교

대근무자의 근무 시간에 적합한 보육시설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백혜리(2004)는 앞의 연구들과 달리 병원이 아닌 부천의 공장지역 취업모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자의 29.9% 만이 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직장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를 응답한 것이 두 번째로 많았다.⁹⁾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에서 근무 시간으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희망 등·하원 시간으로 오전 1시와 오후(밤) 12시로 응답¹⁰⁾한 취업모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응답자의 다수(70.6%)가 3교대를 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취업 형태와 자녀 보육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보육 만족도를 통해서도 언급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직업을 소득, 즉 경제적 특성으로 해석하는데, 박장하(2007)는 직업에 따라 만족도의 5개 영역(시설, 환경, 교사, 안전, 학습내용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밝혀,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에 유사한 직업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직업의 종류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직의 경우 비숙련직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도 높고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비용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혜란(2005) 역시 비슷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사무직/기술직 종사자들이 판매·서비스직/영업직·생산직/노무직 종사자들보다 만족도 높았고, 경영 관리직/전문직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판매·서비스직/영업직·생산직/노무직보다는 높았으나 사무직/기술직 종사자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월수입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월수입이 많을수록 직장보육시설에 만족하는 정도도 높아지나 고소득자(월평균 250만원 이상)들의 만족 정도는 다소 낮아져 저소득자(150만원 미만)들보다는 높지만, 중간 소득자(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들보다는 낮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되고 있다.

9) ‘경제적 부담 때문에’(17.4%), ‘직장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16.8%), ‘믿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14.2%), ‘가까운 보육시설이 없음’(13.5%), ‘너무 어려서’(5.8%) 순이다.

10) 희망 등원 시간으로는 오전 9시(33.0%), 오전 8시(22.2%), 오전 1시(19.9%), 오전 7시(8.1%), 오전 5시(5.9%), 오전 10시(5.9%)...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 하원 시간은 오후 6시(20.8%), 오후(밤) 12시(19.9%), 오후 7시(17.2%), 오후 3시(11.3%), 오후 5시(8.1%), 오후 4시(5.0%), 오후 10시(5.0%)... 순으로 나타났다.

곽인숙·홍성희(2000)는 노동공급 및 수요 측면과 가족복지적 측면 등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직장보육시설의 요구도(보육수당 지급과 직장보육시설 이용 중에서 선택)를 연구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조사대상자로 여성 뿐 아니라 취업 남성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자녀보육을 위한 요구실태 조사 결과, ‘직장보육시설’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4.7%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67.5%로, 이중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자녀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선호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판매직’이 ‘전문직/고위임원직’이나 ‘기술공/사무직’ 보다 직장보육시설 희망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서비스/판매직일 경우 비용보다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직업과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과의 관계 역시 분석되었는데, ‘기술공/사무직’ 보다 ‘서비스/판매직’인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서비스직 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를 더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자녀 보육의 형태나 만족도, 욕구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가정내 보육지원서비스 및 제도 관련

가정내 보육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이옥 외(2004), 정민자 외(2006), 임윤옥(2007) 등이 있다. 이옥 외(2004)은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 실시를 위한 연구(여성부)”에서 0-1세아의 가정내 보육 활성화 방안으로서 보육교사제도의 도입에 앞서 필요성과 문제점을 조사 하고 외국의 가정내 영아보육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 사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영아 전담의 가정보육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내 돌봄에 대한 보육지원서비스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0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영아 보육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보육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및 보육교사 훈련지원, 가정보육 관리 감독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은 지역사회 보육 서비스 공급체계의 대안 중 하나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음 정민자 외(2006)는 가정내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정책 과제 및 해결을 위한 연구로 아이돌보미 사업 도입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자녀양육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아이돌보미 제도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실행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가족내 주 양육자인 여성의 아동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제도로써 아이돌보미와 육아광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마다 센터를 설치할 것,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파견의 신뢰성, 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해온 가정파견보육서비스 사업의 보육도우미와 무료 보육도우미 이용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임윤옥(2007)은 보육도우미 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보육도우미의 경우 업무에 비해 보수가 불충분하며 애로사항으로 식사문제, 고용인이 가사일을 병행할 것을 기대하는 문제, 양육방식에 대한 갈등 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도우미 이용 후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의 식습관이나 건강, 성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장애아동 치료 및 초등생 성적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도우미는 긍정적인 반면 이용자 부모는 부정적이어서 응답차이를 보였다(부모는 부정적이거나 도우미는 긍정적).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미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가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행복감 증대, 자녀와의 친밀감 증대, 소득 증대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라. 유료가정보육 이용 실태

베이비시터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서문희 · 이상현, 2002)”, “한국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서문희 외, 2007)” 등이 있다.

두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써 고학력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많았다. 이용가구의 경제적인 수준 또한 높은 편이며 이용아동의 연령은 3세 미만의 영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가구의 경우 베이비시터 이용을 장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취미활동이나 외출 등의 사회활동 때문이라는 응답과 일하는 동안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해보면 취업모는 근무시간 중의 대리양육이 가장 큰 이용이유이며 비취업모는 사회여가활동이 주된 이유였다.

베이비시터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법적인 위치가 불분명하며 가정 사업주가 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당조항이 없는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베이비시터의 실태를 보면 여성이 많으며 40대가 다수이고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터 파견업체는 사업자 등록 및 직업소개업 등록비율이 매우 낮으며 중산층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매우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베이비시터 교육 및 관리 측면을 보면 채용기준에 있어 연령과 경력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학력이나 결혼상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베이비시터 회사의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하여 약 20%만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지를 쓰도록 하나 잘 안 지킨다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일지 작성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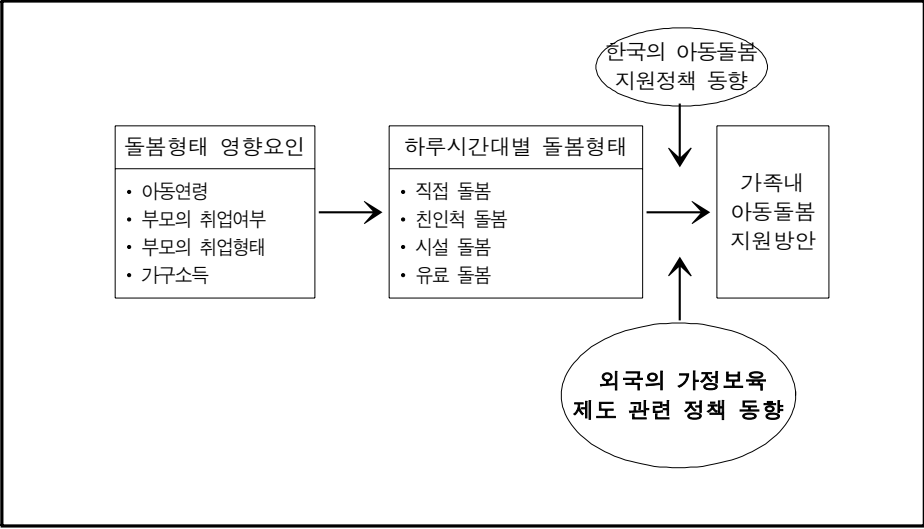
이상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내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에서 유료가정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 특히 가구의 소득수준,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취업여부임이 드러났다. 또 부모의 취업상황에서 특히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의 경우 시설보육 이용률이 반일제보다 낮다는 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 유료가정보육 이용률이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취업여부와 더불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아동 돌봄 형태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베이비시터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의 유료가정보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 및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내 아동 돌봄지원 제도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연구의 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연구의 수행을 위해 가정내 양육과 가정중심 보육제공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아동돌봄도우미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기 조사된 아동보육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전국조사결과를 통해 가정내 보육욕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가정내 보육지원서비스 및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외국의 정책들은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방향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자녀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부모의 취업형태와 근로시간 등이 아동돌봄의 선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줌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상정한 하루시간대별 아동돌봄 형태를 분석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아래 <그림 II-2>는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틀을 구성한 것이다.



〈그림 Ⅱ-2〉 연구의 틀

III

가족내 아동돌봄지원 정책동향

- | | |
|--|----|
| 1.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과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 | 29 |
| 2. 외국의 가정보육 제도 관련 정책동향 | 63 |
| 3. 요약 및 시사점 | 77 |

1. 한국의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과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

가.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에서 아동돌봄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입법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1980년대 들어서 여성의 인권의식 향상, 교육기회 향상, 출산율의 감소, 가구원 수의 감소,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인한 가사부담의 경감 등의 요인으로 결혼 후에도 취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서 고용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을 요구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여성들의 고용에 가장 장애가 되는 육아에 대한 법적 지원책, 자녀 양육, 가사 등 가정과 직장의 이중적 부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점차 여성노동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다.¹¹⁾

이에 정부는 성 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촉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1991년)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개발부문을 신설하여 남녀고용평등의 법제화와 탁아소의 확충 등을 그 실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법·제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여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면, 영유아보육법은 대상의 확대, 보육의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 질적 수준 제고 등 보육의 보편성 확보를 지향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아동돌봄지원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모성보호 및 휴가, 보육, 현금 급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1)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친 정부의 고도경제성장이 증가된 여성 취업과 이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당시 여성노동자는 미혼의 저연령, 저학력, 미숙련자로 저임금, 장시간 근로, 기타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부과되는 직종과 직급에 편중되어 있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기회와 대우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통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이들 여성노동자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1) 모성보호 및 휴가제도

모성보호 및 휴가제도는 크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산전후휴가제도,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등이 있다.

가)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12월에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신설된 것으로, 여성이 육아로 인해 취업을 중단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래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하여 발전되었다. 1989년 1차 개정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급,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1995년 제2차 개정에서는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이 근로여성에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하여 육아에 대한 남녀공동의 참여와 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문 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1세 미만을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바를 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이는 예외 조항으로 정한 사업장 이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은 휴직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한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의하여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휴직기간은 각 1년으로 재임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기간이

1년인데, 여교사의 경우는 임용권자가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육아휴직기간이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요건도 기존의 '신청 당시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자녀 양육 시'로 완화되었다. 자녀가 만 3세를 지나서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가능하며, 분할사용 제한도 기존의 2회 분할에서 분할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보장으로 급여는 2001년 20만원부터 실시되어 2003년 30만원, 2004년 3월부터 40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 3월부터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급여 지급 조건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¹²⁾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장려방안으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월 20~30만원 추가 지원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2)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이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서면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벌칙 조항을 두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저하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 근로 한도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 산전후휴가제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로 시작된 출산 휴가제도는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산전후 휴가제도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 정책적 변화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가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국가경쟁력에서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 등으로 아동의 양육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증가되어 직장가정 양립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여성근로자에게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주는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로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휴가 일수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¹³⁾

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는 90일간의 산전후휴가 급여로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90일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액을

13) 분만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관계로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를 연장하여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기업은 2007년 현재 최초 3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그리고 이후 6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라) 기타

그밖에 휴가제도로 유사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있다.

유사산휴가제도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자연유산 등,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급여는 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기간 전체(최대 90일)에 대하여,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급여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무급으로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성 근로자의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표 Ⅲ-1>은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1〉 모성보호 및 휴가제도

정책명	목적	기간	지원 내용 및 수준
육아휴직		·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 월 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 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함 · 맞벌이 부부일 때 교대로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 할 수 있음. 이 경우 부부 1인에게만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남녀고용 19조의 2)	· 육아기간동안 전일제 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도입	·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 미만인 경우 최대 1년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 단축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 초과 못함
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	· 90일 - 출산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대상 기업(건설업 300인, 제조업 500인,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상한 135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기업 경우 90일 중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 지원
유사산 휴가	·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 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주 이상~21주 이내(유산·사산일부터 30일) · 22주 이상~27주 이내(유산·사산일부터 60일) · 28주 이상(유산·사산일부터 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 휴가 부여 ·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기간 전체(최대 90일)에 대하여,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08, 신설)	·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의 무급(근로자가 3일 이하로 청구가능)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 사용

자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 보육 지원 제도

가) 제도적 변화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적으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직장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기본으로 직장보육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보육제도의 변화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탁아사업은 1961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제도화되어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82년에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9월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탁아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탁아시설의 법적 근거를 부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추진되어 1991년 1월에 제정되었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로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법령의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1990년대는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1990년대에 영유아보육법은 만 5세아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했을 뿐 그 근본적인 취지나 방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 설치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에는 보

육시설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시설 설치의 진입을 개방하였다. 몇 년간에 걸쳐 시행된 이러한 법개정 조치들은 급격하게 증가된 보육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1995~1997년 3년 동안 보육확충3개년계획을 추진하여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아동수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 낮고 재정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설의 난립을 가져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수준의 제고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4년 1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과정, 교사자격제도, 평가인증 등 그 동안 논의된 개선 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¹⁴⁾

이상의 법제도에 따라 현재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아 보육, 유아 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보육 등 대상에 따라 구별되고,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 운영 시간과 시각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그 외에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일반 보육시설과는 달리 특정한 대상만을 보육하는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차별화되고 있다.

14) 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인가제로 환원하면서 설치기준이 강화될 전망이고 보육시설 운영측면에서 취약보육 강화, 건강·영양의 강화 등 기존제도의 강화 이외에도, 보육과정 제정, 생활기록부 작성 의무화,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제도가 포함되었다. 보육교사 자격제도가 실시되고, 종사자 자격기준 및 자격 획득 조건이 달라지며, 시·군·구에서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보수교육이 강화되고,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시설장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나) 보육 비용 지원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 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기능보강, 시설별 인건비 지원,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치비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 반면에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1) 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 운영비 및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¹⁵⁾.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운영비로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노동부 지원이 없는 직장보육시설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24시간,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휴일보육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는 모든 시설 유형이 대상이 된다. 아래 <표 Ⅲ-2>와 <표 Ⅲ-3>은 설치주체별, 프로그램별 보육시설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15) 이외 보육시설 지원 강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보육교사가 출산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결원하게 될 때 영유아보육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체교사를 확보, 이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450명분이 지원될 예정이며, 농어촌 지역에서 가중되고 있는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약 60,500명의 보육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급여는 유사직종인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월평균 급여와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표 Ⅲ-2〉 설치 주체별 보육시설 지원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 법인(비영리 법인 중 사회 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 · 법인 외 각종 단체, 법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20인 이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인건비 30% (영아반교사 2개 반 이상, 24개월 미만은 1개 반 80%) - 추가지원: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영아반 1개반 이상 인건비 80% 지원
		20인 미만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보육교사 인건비 30%(영아반교사 80%)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대체교사 인건비
직장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비(무상, 용자), 운영비(무상), 보육시설 취득시 부동산관련세제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특별소비세 면제, 보육시설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 인건비 월 80만원 지원 	
민간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장애아반 지원 기준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 - 교재교구비: 개소당 연 500~1,200천원 - 농어촌 소재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가정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 		
부모협동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표 Ⅲ-3〉 프로그램별 보육시설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영아 전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보육아동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 반 보다 적게 되도록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18명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편성시 인건비 30% 취사부 인건비 100% 농어촌 시설은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교사 대 아동비율 1:3)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6개 반 이상), 보육교사 인건비 80% 특수교사 수당 치료사 아동 9인당 1명 인건비 100% 지원 방과후 교사 인건비 100% 취사부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장애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국공립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반 편성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80% 지원 특수교사 수당
		민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반 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시간연장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연장형보육: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 시간 연장 24시간보육: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 포함) 보육시설 중 24시간 보육아동 최소 5명 이상 최대 100명 이하 보육 휴일보육: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국공립,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5만원
		민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방과후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며, 보육서비스는 4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방과후 지정 20명 이상 보육 시 인건비 50%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인건비 100%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2)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보육서비스이용 비용 지원은 영아기본보조금,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취약보육지원 등이 있으며 모두 시설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정부 지원과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영아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교사와 원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를 제외한 비용을 부모 부담으로 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한 시설에 지원하는 종사자 인건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¹⁶⁾ 이는 최소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드는 적정한 비용을 대체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비용 수준으로 보고, 이 가격을 민간시설에 적용하되 부모 부담의 절대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0-4세 아동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육료 차등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¹⁷⁾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100% 이하에 적용되고 있고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2009년부터는 하위 50% 아동에게 까지 확대된다. 월 평균소득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만5세아 무상보육이 있다. 1999년 9월부터 정부의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부터 취학직전 1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이는 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점차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¹⁸⁾ 2008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가구까지

16) 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에 전국 3개 지역에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7)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시설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 수준 소득자)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18) 1999~2001년도는 농어촌 지역의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2002년 전국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2004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원, 2005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지원(도시/농촌 지원단가 일원화),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는 2003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부모 부담 지원 이외에 민간 시설 장애아동에게는 0세아 기본보조금과 동일한 액수를 기본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그밖에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후 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의 경우에도 정부가 부모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아래 <표 Ⅲ-4>는 이상의 보육비용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4> 보육료 지원(현금 및 수당)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영아 기본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육시설 이용하는 2세 이하 -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보육 시설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아닌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인당 지원금액 - 0세 반: 아동 1인당 340천원, 3명까지 지원 (1,020천원 상한) - 1세 반: 아동 1인당 164천원, 5명까지 지원 (820천원 상한) - 2세 반: 아동 1인당 109천원, 7명까지 지원 (763천원 상한)
차등보육료 지원	· 만 0세~4세	· 만 0세 372천원, 만 1세 327천원, 만 2세 270천원, 만 3세 185천원, 만 4세 167천원
만 5세아 무상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5세아 · 취학대상 중 취학유예된 아동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 지원함.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회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 4세에 보육시설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경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7천원 - 법정저소득층(1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이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 시 차액 수납 아니함 - 만 5세아 지원아동에 대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가는 1층 정부지원 단가

(계속)

2006년 농촌 100%, 도시 80%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표 Ⅲ-4〉 보육료 지원(현금 및 수당) (계속)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장애아 무상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0세~만 12세 취학전 장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고 교사대 아동비율 1:3으로 반을 편성하여 보육할 경우 372천원 장애아에 대한 별도 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해당반 별 보육료 상한액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이하 자녀 중 영유아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 4세 이하) 아동 법정저소득층(1층) 및 2층 차등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지원단가의 20% 4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지원단가의 40% 5층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지원단가의 60%
방과 후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세 이하 취학아동 법정저소득층(1층), 2층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 4시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단가(만 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보육시설 유형 관계 없이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할 경우 정부지원단가 50%(월186,000) 지원, 그렇지 않을 경우 50% 지원 방학기간 중 취학아동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 실시 할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연장 지정 시설 이용 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으로 규정 시간제 보육료는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취학아동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300 장애아동 3,300(연령관계 없이 지원) 시간연장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 시간연장 보육 지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
야간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보육(19:30~익일 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별(주간)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

(계속)

〈표 Ⅲ-4〉 보육료 지원(현금 및 수당) (계속)

정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수준
24시간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 - 주간보육 이용, 야간보육 불필요시 24시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의 150% 지원
휴일 (토요일 제외)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저소득층 및 만 3세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보육료x150%지원
시간제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저소득층 아동 2600, 장애아동 3,500 (연령 관계 없이 동일 지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3) 현금 지원 제도

2009년부터는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이 없는 저소득층 영아에게 지원될 예정이지만, 2008년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적 자녀 양육수당은 없고, 농어민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수당, 입양 자녀 영육수당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형태이며, 전반적으로 대상은 물론 그 지원수준이 취약하다.

대표적으로 농어민 자녀에 대한 보육료 현금 지원이 있다.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어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¹⁹⁾ 이 제도는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소유규모 1.5ha 미만의 농·어

19) 농림부는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에 일조하고자 2004년부터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다. 농어촌지역 기준은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농가 기준은 농·어업인이 주민등록상 생계와 경영을 같이 하는 가구이다.

업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²⁰⁾ 2005년에 사업대상 농지소유규모 기준을 2ha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다시 5ha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지원 금액은 5세 미만아는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수준이고, 5세아는 100%이다. 시·군·구 농정부서에서는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농어촌 일손돕기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한다.

나.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설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취약계층 가족의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일하는 여성에 대한 휴가 및 휴직제도 운영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돌봄지원 서비스에 있어 기존의 시설서비스 이외에 개별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시설보육서비스가 가족의 아동돌봄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또 일하는 여성에 대한 대표적 아동돌봄지원제도인 육아휴직은 3세 미만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규직근로자가 주요 수혜대상이라는 점, 대체 인력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아동돌봄 지원 제도로써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동 돌봄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일부 비영리 개별서비스와 영리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 재정 지원을 통하여 가정내 양육지원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반면 영리부분은 일반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2007년 현

20)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기준) 농지소유면적 15,000㎡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0~5세 아동,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재 약 100개소의 베이비시터 전문 파견 회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인력 등 제반 관리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여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관리가 되지만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단이 전혀 없다.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가정내 양육지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돌봄인력을 근로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정 지원에 대한 고민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로서 가족내 아동 돌봄도우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확산되어 왔다.

1)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의 법적 위상

이들의 근로와 관련된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가족내(in-home) 돌봄도우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법 제11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부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최소연령 제한, 최저 임금 등 모두 베이비시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이 법도 베이비시터회사나 베이비시터에게 적용할 수 없다. 이 법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이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이며, “파견근로자”라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베이비시터 회사가 이들을 가정과 연결한

다고 하여도 이들은 베이비시터 회사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회원으로 확보하여 소개만 할 뿐이다. 베이비시터 회사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파견한다고 하여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부분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준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적용 대상인 항목²¹⁾은 적용에서 제외되게 된다.

2)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현황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경기도 가정교육교사제도, 민간비영리인 YMCA 아가야사업, 민간영리인 베이비시터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기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를 교육하여 0세~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파견해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지원, 놀이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탄력적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체계는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각 시·도 및 시·군·구 행정 담당자, 그리고 사업시행의 주체인 중앙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천안, 울산, 여수, 부산 4개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

21) 사용사업주가 적용 받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시간(제50조), 탄력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제59조),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적용의 제외(제63조), 근로시간(제69조), 야외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70조), 시간외 근로(제71조), 갭내근로의 금지(제72조), 생리휴가(제73조), 임신부의 보호(제74조), 육아시간(제75조)이다.

영을 거쳐 2007년부터 37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되었으며, 2008년 현재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²²⁾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이다. 돌보미 교육은 교육시간이 일반은 40시간이며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0시간이다. 교육시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료로 인정하고 있다. 우대자 교육과정은 40시간 중 후반기부터 참여한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수료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지역센터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면접관의 면접을 거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양성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과 교재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발되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시간당 5,000원이고, 주말, 심야 시간대에는 추가 수당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비로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 및 돌보미에 대한 상해 보험에 가입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이후 매달 월례회와 보수교육을 통해 사례를 나누고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돌보미가 활동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3회 이상 접수 된 경우,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 받는 경우에 돌보미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용자 가정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이며(<표 III-5>

22)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는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참조), 전문적 교육내용과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표 Ⅲ-5〉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

구분	내용
일시적인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부모가 귀가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돌봄. -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돌아오면 손발 씻기를 지도하고, 이 외에 요구사항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안전하게 돌봄. 항상 아이의 움직임에 주의·주시하여야 함. - 신변처리 보조 활동으로, 영아의 경우는 기저귀 갈아주기 및 씻어주기, 유아일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소변·대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줌. 배변훈련을 하는 아이의 경우는 부모의 요구사항에 따라 배변훈련 또한 시킬 수 있음.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활동 중 식사 시간이 겹치게 되면 부모가 사전에 준비해 둔 음식을 차려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 아이돌보미의 식사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함께 준비함이 원칙임. - 영아 분유 및 이유식은 부모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당한 양, 횟수를 지키고, 유아,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준비해 둔 음식을 데우거나 차려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함. - 이유식, 음식 만들기 등은 하지 않아야 함. 식사 후 설거지는 하지 않아도 됨.
놀이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는 음악듣기, 동화책 읽어주기, 아이 발달 과정에 따라 신체적 활동 등을 함. - 유아는 동화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을 함께 함. - 아동은 유아의 경우와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되고, 부모의 요구사항 중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 놀이동산, 영화관 가기, 도서관 가기 등이 있을 수 있음.
송영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보육시설, 학교, 학원, 병원 등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송영서비스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함. - 송영서비스 제공 중 사고 발생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보호자와 센터에 반드시 연락을 함.
상담, 이용자의 이야기 들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와 아이를 돌보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 -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간에 교환노트를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부모가 부담하는 이용 비용은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된다. 가형은 저소득 가정으로 시간당 1,000원, 나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구로 시간당 4,000원, 다형은 그 이상 소득계층의 전액 부담 일반가정으로 시간당 5,000원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요금 조정이 가능하고,

한 달에 80시간 이용이 원칙이다. 여기서 저소득 가정은 차상위 이하 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의 130% 이하인 가정을 의미한다. 토, 일, 공휴일,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8시)은 시간당 6,000원이다.

(2)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적(2008 상반기)

아이돌보미 사업 실적 현황(1-6월 까지 실적 누계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먼저 활동하는 인원은 12,340명이고, 7,920명이 활동하였다. 연계 가정은 12,722 가정이고 연계건수는 111,382건이다. 소득계층별로 이용현황을 보면 가형의 저소득층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표 Ⅲ-7>에서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을 보면 16:00-20:00까지의 저녁시간이 35.77%로 가장 많고 12:00-16:00까지의 오후 시간이 33.52%로 두번째이다. 이를 보면 이용시간대는 주로 오후와 저녁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표 Ⅲ-6〉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건수)

월별	연계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계
6월	5,413	5,242	2,067	12,722	54,316	42,201	14,865	111,382
비율	42.55	41.20	16.25	100	48.77	37.89	13.35	100

※ 가형: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50~200%, 다형: 200% 초과 가정.

〈표 Ⅲ-7〉 시간대별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중복 응답)

(단위: 건수)

월별	오전1 04:00-08:00	오전 08:00-12:00	오후 12:00-16:00	저녁 16:00-20:00	심야1 20:00-24:00	심야2 24:00-04:00	계
6월	2,883	22,567	37,335	39,840	8,157	600	111,382
비율	2.59	20.26	33.52	35.77	7.32	0.54	100

※ 6월까지 누계치.

〈표 Ⅲ-8〉 아이돌보미 이용 사유

(단위: 건수)

월별	직장 근무	교육 참여	병원 치료	여가 활동	산후 후유증	집안 행사	자녀 양육부담	기타	계
6월	75,880	6,749	5,638	3,138	1,632	824	14,124	3,397	111,382
비율	68.13	6.06	5.06	2.82	1.47	0.74	12.68	3.05	100

〈표 Ⅲ-8〉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용 사유는 직장 근무가 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부담이 12.7%를 차지한다. 이용 가정도 맞벌이가정이 50% 수준이고 비취업 주부 가정의 이용도 건수로 27%를 차지한다(〈표 Ⅲ-9〉 참조). 이용아동은 각 연령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만 6-8세 아동이 19.84%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12개월 이하로 16.24%이다.

〈표 Ⅲ-9〉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현황(중복 응답)

(단위: 건수)

가정 유형		한부모	맞벌이 가족	장애인 가족	조손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비취업 주부가족(일반가정)	기타	계
가정	6월	1,594	5,973	223	41	256	4,222	91	12,400
	비율	12.85	48.17	1.80	0.33	2.06	34.05	0.73	100
건수	6월	17,007	58,212	2,410	380	2,000	30,404	978	111,382
	비율	15.27	52.26	2.16	0.34	1.80	27.30	0.88	100

〈표 Ⅲ-10〉 아이돌보미 이용아동 연령 현황

(단위: 건수)

월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계
6월	24,528	22,549	18,932	15,641	15,869	14,310	29,968	9,269	151,066
비율	16.24	14.93	12.53	10.35	10.50	9.47	19.84	6.14	100

※ 중복응답

(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특성과 과제

아이돌보미 사업의 특성²³⁾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간제 보육사업으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매우 제한적이다. 보육서비스는 시설 보육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시설을 이용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또는 시설 이용 외 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보충적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용시간을 제한하므로 또 다른 사각지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질병 장애 등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둔 가정,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지속적인 양육보조자가 필요한 가정 등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상시적 가정내 보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이러한 요구도 수용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용시간의 확대는 비용 지원 문제와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다. 보충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자생적 민간시장 형성이 어렵고, 시장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이돌보미 비용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소득층 무상보육, 소득계층별 차등보육료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중복 지원될 수 있음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아이돌보미 사업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으로 한정되다보니 지역적 확산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의 공공기관이나 단체로의 사업 위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이돌보미의 일자리로서의 성격은 매우 취약하다. 현재 많은 참여자들이 본인의 양육 경험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유급자원봉사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근로 조건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즉 집안일과 병행하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중장년 여성층들은 소득보조적 활동으로 아이돌보미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

23) 조성은,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성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7.

서 우선은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자아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돌보미 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 발전하여야 한다. 상시적 돌봄 서비스로의 확대는 수요측 뿐만 아니라 공급측, 즉 아이돌보미 입장에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섯째, 아이돌보미 체제가 유급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므로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파견을 요구하는 부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도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지속적인 장기 파견이 가능한 아이돌보미, 새벽, 주말 등의 시간에 파견 가능한 아이돌보미, 일상적인 긴급서비스에 연계 가능한 아이돌보미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이나, 보수체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이돌보미 자격은 단기 교육으로 부여되므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 가정들의 신뢰감은 높은 편이므로, 이용자의 신뢰 수준에 맞는 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수 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 타 사업들과 연계한다면 단순한 파견 돌봄 사업에 머물지 않고 아이돌봄과 가정에 대한 위기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아이돌보미 파견 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폭력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희망가정에게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연계를 활성화시킨다면, 아이돌보미 사업은 단순한 돌보미 파견사업이 아닌 가족의 돌봄기능 강화와 가족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성과의 달성이 가능하다.

나)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제도²⁴⁾

경기도는 출산 후 보육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취업여성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란 숙련된 전문보육교사

24) 경기도청, 사업담당자와의 인터뷰자료, 2008. 10.

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1:1로 보육하는 제도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이용료부담(시간당 6천원),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금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담당은 가족정책국 보육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 선발 및 교육은 도·시·군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교사를 선발하며, 가정보육교사 전문과정 교육(40시간) 실시 후 현장 배치(영아전문교육과정 교육 기 이수자 제외)하며, 교육비는 6만원이 지원(주 5일/1일 8시간 교육)된다. 보육대상은 생후 36개월 미만인 영유아이며 5세까지 연장보육이 가능하며 형제·자매 중 장애아나 미취학아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보육시간과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용시 교사와 부모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나오게 된다. 평균시간당 6천원이며 이용은 월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의 자격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의 교사가 도에서 실시하는 가정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주어진다. 도·시·군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요에 따라 단계별로 보육교사를 선발하며 40시간의 가정보육교사 전문과정교육을 실시 후 현장에 배치한다. 보육장소는 영아의 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모와 교사간 협의를 통해 교사의 집에서도 가능하다. 보육시간 역시 부모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했다.

보육료 지원으로는 이용부모에게는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및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 지원금이 있다.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은 24개월(출생후 익월 23개월)까지 국공립보육시설 이보육료의 20-50%를 지원해주며,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지원금은 36개월까지 기본보조금의 50%를 월단위로 지원해 준다. 지원방법은 월 5일 이상 이용가정에 대해 월단위로 매월 25일에 지원한다. 5일 미만 이용가정은 지원금이 없으며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지원을 하며 시간제 이용자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이용자에 대해 지원한다(<표 III-11> 참조).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처우개선과 영아특수 근무수당이 있다. 가정보육교사로 월 5일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처우개선비는 월 15만원 지급되며 영아전문교육과정(200시간)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영아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역시 시간제 근무교사의 경

우 1일 4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표 Ⅲ-12> 참조).

〈표 Ⅲ-11〉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이용 부모에 대한 지원

구분	부 모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이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여성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취업여성은 1일 3시간, 월 10일 이상 근로여성(근로가 연속되는 경우 휴일 포함) - 아동의 연령이 24개월 이하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모가 없는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상 아동 모두 지원/쌍둥이의 경우 호적 등재순에 따라 첫째아, 둘째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가정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이하인 경우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상아동 모두 지원
지원 기간	- 보육아동연령 24개월 까지	- 보육아동 연령 36개월 까지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20% • 0세(출생~12개월): 75천원/월, 1세(13개월~24개월): 66천원/월 - 둘째아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50% • 0세(출생~12개월): 186천원/월, 1세(13개월~24개월) 164천원/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출생~12개월): 기본보조금 50% (170천원/월) • 1세(13개월~24개월): 기본보조금 50% (82천원/월) • 2세(25개월~36개월): 기본보조금 50% (55천원/월)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 '08.7월은 시작일~23일까지 일할 계산 지원 • 산정예시('08.6.21에 이용 시작한 0세 첫째아) $75,000 \times (10(\text{실제보육일})/23\text{일}(\text{주5일적용 보육가능일수})) = 32\text{천원}$ - 시간제이용자의 경우 1일4시간 이상 이용자지원 • 4시간 이상~5시간미만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6시간미만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7시간미만 지원액의 80% • 7시간 이상~8시간미만 지원액의 90원 • 8시간 이상 이용자는 지원액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 '08.7월은 시작일~23일까지 보육료를 일할 계산 적용 지원 - 실제 보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보육료 지원: 5일 미만 제외 ※ 산정예시('08.1.21에 이용시작한 0세 아동 보육료 지원) $170,000 \times (10(\text{실제보육일수})/23\text{일}(\text{주5일적용 보육가능일수})) = 73,000\text{원}$ - 시간제이용자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 • 4시간 이상~5시간미만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6시간미만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7시간미만 지원액의 80% • 7시간 이상~8시간미만 지원액의 90% • 8시간 이상 지원액의 100%

〈표 Ⅲ-12〉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구 분	교 사	
	처우개선비	영아특수근무수당
지원 대상 및 조건	- 가정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보육교사	- 36개 이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 중 영아전담과정(200시간)을 수료한 교사
지원 기간	- 보육아동 연령 만 5세까지	- 보육아동연령 36개월까지
지원 금액	- 150천원/월	- 50천원/월
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시간 이상 근무보육교사대상 · 4시간 이상~5시간미만 지원액의 60% · 5시간 이상~6시간미만 지원액의 70% · 6시간 이상~7시간미만 지원액의 80% · 7시간 이상~8시간미만 지원액의 90% · 8시간 이상 지원액의 100% - 월단위 지원(매월 25일) - 5일 이상 1개월 미만 이용자의 경우 일할 계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7은 시작일 ~ 23일까지 보육료를 일할 계산 적용 지원 - 실제 보육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원 (5일 이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 예시 · 150,000원×(10(실제보육일수)/23일(주5일 적용 보육가능일))×4시간(근무시간)=32,000원 (천원 미만 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지원(매월 25일) - 영아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보육교사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과정을 수료하고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보육교사 전원 지급

다) 민간 비영리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YMCA 아가야

가정내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교육하거나 이용자와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는 매우 많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업인 YMCA의 ‘아가야’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다. YMCA에서는 ‘마을과 아이들’ 사업과 ‘아가야’ 사업을 통하여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과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아가야 사업은 시간제 보육공간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시에 베이비시터 파견사업

도 하고 있는 것이다.

아가야는 3년 기한으로 재정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에 지원 센터가 있고 전국 YMCA 16개 개소에 시간제 육아센터를 두고 시간제 공간 보육을 하고 동시에 가정에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 베이비시터 파견 이외에 영유아의 즐거운 성장을 돕는 놀이 안내 시터, 방학 및 노는 토요일 체험활동 도우미시터, 교회, 동우회, 친목회, 공공기관 등 행사시 혼합연령지도가 가능한 기관 파견 시터, 보조교사로 도움을 주는 보육시설 파견 도우미 시터 등 다양하다.

베이비시터로서의 자격은 보육·교육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저소득 실업여성, 한부모, 실질 가장 여성, 고학력 실업여성, 30~40대 고졸 여성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과정교육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베이비시터는 회비를 센터에 납부하며, 센터는 이를 시터들의 교육 및 활동에 사용한다. 월 회비는 월수입 20만원 미만은 없고, 월수입 20만원~50만원은 1만원, 월수입 50만원~90만원은 2만원, 월수입 90만원 이상은 3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약관에 베이비시터 자격 상실 조항을 두어서 베이비시터 월 1회 정기모임에 연속3회 이상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이용 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제반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약관에 있는 의무와 복무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로 재교육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와 태도가 불량할 경우, 고객과 예약을 해놓고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3번 이상 발생할 경우, 자격 승인 절차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에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용비용은 아동수별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 1명을 기준으로 최소 3시간에 16,000원이고 시간당 5,000원이 추가된다. 야간 및 휴일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이외 종일, 1박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하게 서비스별 비용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아가야사업은 약관을 정하여 베이비시터를 관리·보호하고 있는데, 제5조에 베이비시터의 의무와 복무규칙이 있다. 이용자 가정에 방문할 경우 아가야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시작 10분전에 도착해야 하고, 육아일지 및 도우미 출퇴근 확인사항을 매일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베이비시터 섭외 시 결정된 금액 외에 팁이나 교통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면접을 보거나 시터로 활동하는 동안 센터에 대한 불평이나 이용금액에 대한 불평을 해서는 안 되며, 베이비시터는 활동하는 동안 알게 된 센터 및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베이비시터는 근무 중 무단이탈 하거나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이용자 집으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는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베이비시터는 업무 중에 강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과 당사에게 입힌 재산상, 신체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고, 베이비시터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시터가 책임을 진다고 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베이비시터는 돌봄서비스에서 발생할 불의한 사고에 대비하여 ‘돌봄 복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센터도 베이비시터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베이비시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베이비시터가 제공한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라) 영리 베이비시터

(1) 관련 법 조항

영리 부분에서의 파견 서비스인 베이비시터는 시설 중심의 보육 틈새시장을 겨냥한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으로 주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파견보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베이비시터 소개업과 관련된 현행 법규로는 부가가치세법과 직업안정법을 들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현행 법규상 방문택아 회사 설립자는 세금납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를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전 또는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용역

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방문탁아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은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신고와 유료소개사업자의 등록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방문탁아 사업체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키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19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²⁵⁾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적용 받게 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개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직업상담원을 1인 두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자는 법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임원 2인 역시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 직업상담원을 1인 두어야 한다. 사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직업상담원은 사업소마다 1명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 및 법인의 임원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란 직업상담사,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 자격자, 노동조합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 노무관리업무전담 2년 이상 조사한 경력자,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자, 초·중등 교사 자격자로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직업소개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자 및 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종사자 명부,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²⁶⁾ 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

25) 직업안정법에서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26)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는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등록하면 된다.

또한 법 제19조는 유료직업소개업자로 등록하고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노동부장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업 요금을 기준으로 베이비시터에 적용하여 요금은 지급임금의 10%이고, 소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공급 현황²⁷⁾

우리나라에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 대신 아동을 맡아봐 주는 방문탁아를 하는 베이비시터 파견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1996년부터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되던 시기이었다. 그 후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또한 국가 경제위기 등으로 베이비시터 회사 설립이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일종의 벤처사업으로 다시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업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2007년 11월 현재 본사 및 지사 등 약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유료직업소개업소로의 등록은 본사 중 71.4%, 가맹점 중에서는 28.6%만이 유료 직업 소개업으로 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단독 업체는 55.6%로 절반가량만이 유료직업소개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들 베이비시터 업체는 대체로 시터와 부모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부모들의 요구시 연계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시터를 파견하기 전에 실시하는 초기 교육시간은 평균 14시간인데, 업체별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편차가 크다.

27) 영리 베이비시터 공급 현황, 이용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서문희 외(2007)의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3) 이용 현황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는 고학력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많았다. 베이비시터 회사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이용 가구 중 취업모의 경우는 약 74.3%인 반면 전업주부는 25.6%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전체 응답자의 61.4%에 해당하여 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용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 또한 높은 편이며, 이용 아동의 연령은 3세 미만의 영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가구의 경우 베이비시터 이용을 장시간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경향을 가진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음을 나타낸다. 2007년 조사에서는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이 23.5%로 가장 다수였으며, 300만원 미만은 전체의 15.8%에 불과하였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취미활동이나 외출 등의 사회활동 때문이라는 응답과 일하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9.4%, 38.7%로 비슷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어머니 취업 여부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취업모의 대부분은 근무시간 중의 대리양육이 61.0%로 가장 큰 이용 이유인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 사회여가활동이 71.8%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즉 집안 일로 바빠거나 평소 자녀를 돌보던 사람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몸이 불편할 때는 각각 6.2%, 5.8%, 4.0% 정도로 낮게 응답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녀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45.7%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0%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이가 보육시설에 적응을 잘 못해서’, ‘집 주변에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보육시설을 믿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9.1%, 8.6%, 6.5% 정도로 보고되었다.

(4)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 베이비시터 업체는 몇몇 본사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화하여 베

이비시터의 브랜드 및 그에 따른 인지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베이비시터 소개 및 파견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등 개인양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신(新)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체의 주요한 상품인 개별서비스 제공 인력, 즉 베이비시터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인지나 대우,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질 높은 인력양성을 위해서 ‘실무’에 바탕을 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베이비시터 회사들은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의 질 관리에 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짧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으며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 등 교육인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베이비시터로 활동 중인 인력들도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특히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대부분 이론에 치중하고 있어 실습이나 실무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내용 구성시 실습과정이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시터 전문 기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자격기준 제정시 부여되어야 하는 조건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업체에서 베이비시터 채용시 인성과 육아경험이 학력이나 자격증 소지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는 비전문적인 모습으로 비취질 수도 있으나 부모들도 베이비시터 선택시 인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경험과 회사의 신뢰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채용에 대한 업체와 부모의 요구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시터를 하나의 신직종으로 정착시키고 인력의 질 관리를 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즉,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인력에게는 적성과 인성, 육아경험이 학력이나 자격과 같은 객관적 요소에 비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므로, 수준 높게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보다는 실습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베이비시터의 양성 및 파견 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시터와 부모의 회원가입, 시터 파견시의 계약은 서면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터 파견후 시터 및 부모의 의견 수렴, 시터의 활동 보고, 보수 교육 등 사후관리는 부실하며, 파견후 활동내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여 육아활동 보고를 요구하지 않거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제출 단위 기간이 없이 수시로 받는 등 사실상 시터 파견 후의 서비스 질 관리에는 소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 직업인으로 경력을 쌓아나가게 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영리·영리 부문 공히 사후관리 체계의 개발과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돌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회사와 아동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본인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베이비시터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업체들은 손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시터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가입비율이 낮아서 아동이나 회사에 비해 시터에 대한 보장은 취약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개별적인 손해보험 가입 등 시터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베이비시터 양성을 사회적 일자리 마련의 한 방법으로서 추진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직업으로서의 장점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활동 중인 베이비시터는 평균 2년 정도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맞는 일로서 여가활동과 일자리 및 소득획득의 욕구로 베이비시터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응답에 비추어, 이들이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만족스러운 소득 획득이나 직업적인 장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력 있는 베이비시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이들이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적절한 소득 및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그리고 베이비시터라는 업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베이비시터 업종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의 가정보육 제도 관련 정책동향

가. 프랑스의 가정보육

1) 가정보육모

프랑스에서 가정보육모란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보육하는 자로, 수탁유형에 따라서 비항시적 가정보육모와 항시적 가정보육모로 나뉜다. 가정보육모를 고용하는 주체는 신분에 따라서 자연인(일반 가정 등), 사법인 또는 공법인으로 구분된다.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가정 보육모와 비교할 때 가정 탁아기관에 소속된 보육모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육아 전문가와 보육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DREES, 2001:6, 한지혜, 2002, 재인용).

프랑스에서 실제로 가정내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등록보육모이며 이 때의 자격 기준은 낮다. 또한 등록보육모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가정내 고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등록보육모는 모자보건국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을 부여하는데, 가족상황, 물리적·환경적 조건, 이전 직업, 학력, 아동들과 함께 했던 교육적 활동이나 기타 활동, 희망하는 보육 유형을 기록하여 건강검진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자격을 받은 후 비항시적 보육모는 총 60시간, 항시적 보육모는 총 120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중 20시간은 자격인증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비항시적 보육모 자격인증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약 2년 정도 영유아기 아동 관련 학업을 이수한 자는 6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가정보육모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970년대 기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육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은 1977년 보육모에 대한 관련 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법을 통해서 보모(nourrice)라는 호칭 대신에 ‘가정 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가 사용되었고, 이들의 인증방식도 구체화됨에 따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한지혜, 2002).

그러나 가정보육모 제도가 활성화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

렸다. 그 이유는 보육모를 고용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보육모 고용으로 파생되는 세금의 부담이 여전히 각 가정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1992년 이후 등장한 가정보육모 고용지원제도는 보육모로 하여금 자격을 인증 받도록 고무함으로써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은 보육모 당사자가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와 가정에서는 보육모의 질 관리²⁸⁾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프랑스의 가정보육모 보육자격에 대한 인증은, 인증을 받은 보육모를 고용할 경우에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육모의 질을 관리하고 음성적인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지혜, 2002).

가정보육모의 질적 수준 유지 등의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프랑스는 가정에서의 1인 고용자도 근로자로서 노동 관련법으로 보호한다. 노동법전(2003) 중 가사사용인에 관하여 노동절 휴무,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가족과 관련된 결근할 권리 및 건강검진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먼저 프랑스가 1973년부터 적용하여 온 5월 1일 노동절 휴무와 관련된 조항을 들 수 있다. 매년 5월 1일은 휴일로서 근무하지 않고, 5월 1일의 휴무는 급여 삭감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시급, 일당, 생산율에 따라 지불되는 급여는 이 휴무로 인해 손실된 액수에 합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일의 특성상 일을 중단할 수 없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경우, 5월 1일 근무하는 임금노동자는 당일의 일에 합당한 급여와 더불어 그 급여 총액과 일치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수당은 고용주가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다음은 2002년부터 발효한 성희롱과 관련된 조항의 적용이다. 개인이나 제 3자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희롱행위(les agissements de harcèlement)를 당하거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수 등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고,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증언하거나 상세히 기재했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제재, 해고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권리와 근엄성을 경시하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28) 가정보육모 인증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고, 보육가능한 아동수가 3명 이내로 명시되었으며 보수교육 시기와 시간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이옥 외, 2004).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 환경의 점진적 악화를 목표로 하거나, 이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성희롱 행위를 받아서는 안 되며, 위 단락에서 명시된 희롱행위를 당하거나, 거부, 증언, 기재했다는 이유로 보수나 교육, 복직, 직무할당, 명칭, 분류, 승진, 인사이동, 계약갱신에 관한 직·간접적인 차별대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해고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력관리 및 보호 차원에서 2004년부터 발효한 법으로 증명서를 제출하고 결근할 수 있는 권리의 적용이다. 임금노동자가 결혼할 경우 4일, 그 가정의 뜻밖의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도착하는 경우 3일,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할 경우 2일,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 부모님, 시부모님(장인, 장모),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1일 결근을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가사사용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정책은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인 동시에 사회가 당면한 실업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보육모의 등록, 인증 제도로 수십만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육수당제도의 확산으로 노동시장 저변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양육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치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2) 정부의 비용지원

프랑스는 가정내 보육을 영아 보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만큼 비용지원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에 대한 비용지원은 2003년에 변화를 맞게 되는데, 기존의 양육수당(APE), 가정내보육수당(AGED), 등록보육모고용지원제도(AFEAMA)가 PAJE²⁹⁾라는 유아편의수당(infant accommodation benefit)으로 통합되어 2004년부터 이러한 비용지원 체계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PAJE는 앞서 언급된 APE, AGED, AFEAMA 등의 보육수당 뿐 아니라 유아수당(APJE), 입양수당(AAD)까지 포함하고 있어 아동의 출생과 보육에 관련된 통합적인 비용지원

29) PAJE에 관한 정보는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3.html 참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PAJE는 출생(입양)시의 지급금과 아동보육에 대한 기본 수당 및 선택 가능한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PAJE는 기존의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통합된 것이므로 기존의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은 PAJE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프랑스 개별보육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자녀출산 이후 3년간 부모 중 한 사람이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양육수당(APE)을 들 수 있고, 등록한 자격 인증 보육사가 운영하거나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AFEAMA)가 있으며, 아동의 가정에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여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의 현금지원³⁰⁾과 세제혜택(tax credit)을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수당(AGED)이 있다.³¹⁾

이 중 AFEAMA와 AGED가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고, 특히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견서비스가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다. AFEAMA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핵심은 등록된 보육모(licensed childminder)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가족수당기금(CNAF)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는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로서, 가족사회지원법(Family and Social Assistance Code)에서 정의된 바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Fagnani, 2004). 또한 가정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족수당기금(CAF)에 제출하여야 한다(한지혜, 2002). PAJE는 이러한 수당들의 성격에 따라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출생(입양)과 관련된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PAJE는 보육 뿐 아니라 아동의 출생(입양)에 관한 지원까지 포함한다. 기존의 출생(입양)에 대한 수당인 APJE(AAD)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생일 경우 €868.13, 입양의 경우에는 €1,736.27가 지급된다.


30)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를 지원한다.

31) 양육수당(APE)은 1985년, 가정내 보육수당(AGED)은 1987년, 등록보육사고용지원제도(AFEAMA)는 1990년에 각각 도입되었다(Martin, et al. 1998).

아동의 출생(입양) 후의 기본수당은 매월 €173.63으로 3년간 지급된다. 이러한 기본수당 외에 PAJE는 보육의 자유선택에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의 선택이란 자녀 보육을 위해 부모가 직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선택을 가리킨다. 우선 부모가 아동 보육을 위해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활동 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선택 보조금(Supplement for free choice of working time)’이 주어진다. 기존의 APE와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으로, 자산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부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최소한 2년간 직업 활동을 해왔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는다. 이러한 조건은 가정내 자녀의 순서, 즉 몇째 아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직업활동의 중단의 경우 최대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의 보조금은 €538.72이다.

한편, 직업활동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부모들에게는 ‘아동보육 선택 보조금(Supplement for free choice of childcare)’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AFEAMA와 AGED를 대체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보육선택 보조금은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은 가정보육모 임금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가정보육모의 고용인으로서 지불해야 할 사회보장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등록 보육모인 경우 10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에 대한 직접 지불 체계라는 것도 보조금의 성격 속에 포함된다. 보조금은 아동이 3세까지 최고 비율로 지급되고 이후 6세까지 차감된 비율로 지급된다.

〈표 Ⅲ-13〉 프랑스의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

구분	대상 아동연령	사업내용	⇒	<div style="text-align: center;"> 통합  (2004.1.1시행) </div>
양육수당 (APE)	6세 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한 경우 • 노동시간 감축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지급 		
등록보육모 고용지원제도 (AFEAMA)	6세 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모 자신의 집이나 등록보육모가 고용되어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서비스 이용 • 사회보장기여금 일부를 총당해 줌 		
가정보육수당 (AGED)	6세 미만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비용의 50%를 지급, 보육사의 사회보장기여금 일부 지급 		

나. 미국의 가정보육

1) 가정보육모

미국의 가정보육(home daycare)은 사적 보육 영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해 왔다. 가정보육이 적정아동 수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여 영아에 대한 개인적 보살핌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영아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지 않으며 제한된 공간에서 하루종일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나, 미국에서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자녀가 보육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정보육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이옥 외, 2004). 이처럼 사적 영역에서 발달해 온 미국의 가정보육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허가 제도를 도입, 지도·감독 및 지원 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무허가 가정보육(unlicensed caregiver's home care)³²⁾과 허가받은 가정보육(licensed caregiver's home care)³³⁾이 공존하고 있다. 무허가 가정보육은 부모에 의해서만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받은 가정보육 제공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보육모 허가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가정보육모(In-home care-giver)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식적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 일률적인 가정보육모 자격관련 규정 역시 없으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의 표준형(Pruissen, 1993, 이옥 외, 2004, 재인용)에는 연령, 건강진단서, 교육이수 과목과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점차 가정보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정내 보육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가정보육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이옥 외, 2004).

그러나 많은 경우 민간 관련 업체가 가정보육 제공자의 연령, 흡연, 운전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보육의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베이비시터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기준 없이 부모가 시터의 연령, 성숙

32) 비공식, 미등록, 독립적(informal, unregistered, independent) 가정보육으로 불리고 있다(이옥 외, 2004).

33)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등록, 규제, 계약, 승인 가정보육(registered, regulated, approved home care) 등 명칭이 다양하다(이옥 외, 2004).

도, 보육에 대한 경험, 자녀의 연령과 수, 경험, 자녀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부응 등을 고려하여 베이비시터를 선택한다. 내니의 경우에도 정해진 자격조건은 없고, 사업체마다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 내니 관련 업체가 제시한 조건들을 종합하면, 연령은 18세 또는 19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고, 미국 시민이거나 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⁴⁾ 이외에 업체에 따라서 응급구조자격, 무사고 운전면허를 조건으로 하기도 하고,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은 신원보증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소한 친인척 이외의 3명의 참고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동학대여부 등 범죄여부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를 요구한다. 신원조회는 대부분 이를 위한 별도의 전문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육 참조 및 자원기관(Child Care Referral and Resources Agencies: CCR&R)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공식 및 비공식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있다(Mogan et al. 2001).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고용자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근무 외 수당, 연령 등과 관련하여 1938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초기에 공장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시작된 이 법은 지난 1974년부터 가정내 고용에 대한 규정을 두기 시작하여 최저임금을 제시하였다.³⁵⁾ 그러나 비정규 베이비시터/내니나 동반자적인 고용자는 아이보기 서비스(Babysitting services)라는 이름으로 가정내 고용(Domestic services)과 별도로 정의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아니며 돌보는 아이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서비스로 정의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공정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조항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24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³⁶⁾ 특히 아기보기 서비스(Babysitting services) 중

34) URL: <http://www.americannantjobsrarch.com>.

35) 1974년도 당시 최초 최저임금은 시간당 2.30불이었으며, 최저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에 시간당 5.15불로 확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2007년 5월 27일)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2009년 여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7.25불로 바뀔 예정이다.

36) URL: 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12feb20041500/edocket.access.gpo.gov/cfr_2004/julqtr/pdf/29cfr552.1.pdf.

에서도 아이 돌보는 일이 일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간헐적이며 시간제인 경우를 일시 형태(Casual basis)로 구분·정의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조항으로 두어, 베이비시터업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를 일차적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반면, 일시형태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Dept. of Labor, 2001). 단, 주당 근무시간의 20% 이상을 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이 안 되어도 최저임금을 적용 받도록 되어있다.

2) 정부의 비용지원

미국은 보육 공급자와의 계약방식에 의한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및 가정 보육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육이용권(Voucher) 등을 이용한 보육료 지원 방식의 경우, 주정부에 따라서 친인척 보육 및 시터에 의한 비공식 보육도 부분적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지원 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로드아일랜드³⁷⁾와 미시건³⁸⁾ 등의 주에서는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대상으로 친인척과 비혈연, 즉 베이비시터/내니를 포함하고 있다. 단,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보육의 공급자인 친인척과 베이비시터 및 내니 등은 각 주정부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의 보육자로서 등록(Registration)을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다. 영국의 가정보육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공지원서비스가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중 하나였으나 1997년 이후 여성의 직업기회 확보를 위해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그 이후 보육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옥 외, 2004).

37) URL: <http://www.dhs.ri.gov/dhs/famchild/dcsppgm.htm>.

38) URL: 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00.html.

영국의 가정보육모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영아동보육자(self-employed child care-giver)인 ‘가정보육모(childminder)’이며 다른 하나는 ‘내니(nanny)’ 또는 ‘베이비시터’다. 가정보육모(childminder)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자영업자로서 보육비용은 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989 아동법’에 의해서 가정보육모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고 1년에 한번씩 감독을 받게 되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시설, 보육아동 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정보육모를 위한 교육 과정과 자격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주로 아동보육 심의회(The Council for Awards on children’s Care and Education: CACHE)의 가정보육 자격증 등이 요구된다(이옥 외, 2004).

2006년 관련법의 재편으로 가정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2007년 10월부터 아동보육 인증 체계(Childcare Approval Scheme: CAS)에서 교육기준청(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으로 담당이 완전 이관되었다. 즉, 2006년 아동보호법(Childcare Act)을 통해 아동보호 제공자에 대한 감독·관리 절차에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져, 보상을 받고 하루에 두 시간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하여야 하며,³⁹⁾ 반대로 8세 이상의 아동을 돌보거나 또는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자발적인 등록대상으로, 내니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내니는 기본적으로 강제적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할지라도 관련 서류들과 자격조건을 확인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부모에게 있다. 이러한 등록 과정에는 세 영역에 대한 검토가 따르게 되는데,⁴⁰⁾ 첫째, 보육서비스 제공에의 적합성 여부이고, 둘째는 가정보육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설의 관리자처럼 등록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적합성이며, 셋째는 시설이나 장소가 안전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한편, 내니·베이비시터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영국은 주당 48시간을 정하는 정부의 근로기준의 적용을 받으며(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50~60시간이 보편적), 출퇴근 내니는 최소 임금⁴¹⁾의 적용을 받는데, 주당 일정금액 이

39)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childminder’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정집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daycare provider’로 등록하여야 한다(www.suffolk.gov.uk).

40) URL: <http://www.ofsted.gov.uk/portal/site/internet/menuitem.f08cb1ee8076>

상을 지불받을 경우 세무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내니 및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부모는 고용주로 등록하여 고용인에 대신하여 세금과 국가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가능한 내니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급여명세표를 함께 주어야 하며, 내니는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내니가 사회보험료를 지불함에 따라 얻게 되는 혜택에는 질병수당(SSP: Statutory Sick Pay), 모성수당(SMP: Statutory Maternity Pay), 입양수당(SAP: Statutory Adoption pay), 부성수당(SPP: Statutory Paternity Pay), 실업수당(redundancy pay), 유급휴가(Holiday pay), 연금이 있다⁴²⁾.

라. 일본의 가정보육

1) 가정보육 현황 및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일본의 가정보육은 시설형의 집단보육 등과는 달리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보육 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가정복지원, 가정보육복지원, 주간위탁모, 가정보육실, 아기홈 등이 있다. 일본의 가정보육 제도는 인가보육소의 자연령아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주로 대도시 및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데, 정부 지원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혀 지원이 없는 곳에서부터 일반 보육소 이용 지원액과 유사한 정도의 지원금이 보조되는 곳도 있다(이옥 외, 2004).

후생노동성의 '실시요강'에는 가정보육모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보육모로서 인정받으려는 자는 시정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정보육모로 인정받는 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실시요강'에는 자격증, 보육아동의 수(3인 이하), 보육장소, 보육시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옥 외, 2004).

한편, 일본은 관련 단체의 자조적 활동으로 내니 등 가정내 보육제공자나 회사 등이 협회를 구성하여 민간인 스스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베이비시터협회를 들 수 있는데, 일본 전국베이비시터 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에서 단기 교육과 시험

41) 2007년 현재 시간당 5.35 파운드.

42) www.nannytax.co.uk/nannies/advice/payevenefits.html.

을 통하여 자격을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베이비시터로 자격을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자가 신입연수과정을 수강한 후 3개월간 90시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고 현임연수과정을 거친 후 인정시험을 치고 인정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해 인정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험은 5지 선다형 40문항, 400자 이내 기술형으로 90분간 실시된다. 신입연수 과정은 13시간 동안 모두 10과목을 수강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임연수Ⅰ인 연수Ⅱ 과정은 심층 학습으로, 7과목과 토론으로 구성된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연수과정은 1년에 각 6~7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입연수 교과내용을 보면, 아동가정복지, 베이비시터 사업, 베이비시터 마음가짐, 보육마인드, 아동발달, 아동의 건강관리, 사고·안전, 영유아보육기술, 유아·아동보호기술, 가족과 커뮤니케이션,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과목을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외 대학교과 제휴하여 해당자에게 베이비시터 인증서를 주고 있다. 2005년부터 “인정베이비시터 지정교 제도”를 실시하여 2006년 현재 전국에 17개 대학을 인정베이비시터 자격취득 지정교로 지정하고 있다⁴³⁾.

일본의 베이비시터협회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이 베이비시터업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회사는 청부에 의하여 채택 및 거택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을 명시하고 이들은 협회가 제시하는 자주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베이비시터에게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을 준수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용자와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업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정의, 자주기준의 성격, 베이비시터 역할 및 업무, 베이비시터의 자질, 보육의 기본적인 사항, 유의사항, 베이비시터 업무기준, 안전사고 방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내니 개념을 포괄하는 통칭으로 베이비시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3) 동경도 세다가야구에 위치한 昭和女子大學 등으로 이들 대학의 해당 정원은 1,375 명이고, 적용시기가 2007년 이후인 학교가 많아서 앞으로 자격 인정 희망자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일본의 베이비시터회사 규모는 150여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형태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화를 통한 활동 및 정부와 이용 할인권 제도(다음에 소개될)를 통한 기업의 지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정부의 비용지원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베이비시터 이용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리 베이비시터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과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원 절차를 보면, 먼저 후생노동성에서 재단법인인 어린이미래재단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어린이미래재단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 다음에 어린이미래재단은 사업주 또는 해당 보육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베이비시터협회는 사업주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기업에 1매당 1,500엔짜리 재택보육 할인권을 수수료 150엔을 받고 납입하는 한편, 베이비시터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베이비시터협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할인권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보육소는 종업원에게 재택보육 할인권을 교부하고, 할인권을 받은 종업원은 베이비시터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재택보육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때 종업원은 재택보육서비스 이용비용에서 교부받은 할인권 금액만큼 제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할인권은 협회를 통하여 재단법인 어린이미래재단이 지원금으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할인권은 종업원 1인당 하루에 1장을 사용할 수 있다.

마. 호주의 가정보육

1) 가정보육모⁴⁴⁾

호주에서의 가정보육은 등록된 보육모의 집에서 아동에게 양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보육이다. 가정보육은 융통적이어서 각 가족의 요구에 따라 달라

44) 장혜경 외(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에서 발췌 인용함.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필요하면 밤에도 양육을 제공할 수 있다. 가정보육 관리 기구는 보육모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가정보육은 주로 지역위원회나 비영리 지역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칙적으로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인증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보육을 이용하는 부모만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장혜경 외, 2006).

호주의 가정보육모에 대한 자격기준은 각 주마다 다양하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격은 ‘응급처치자격증’이다. 가정보육모를 위한 공식 교육은 직업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보수교육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주와 지방정부는 가정보육서비스에 관한 법령과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육모가 돌보아야 하는 아동 수, 보육모 요구사항(자격요건), 건강과 안전요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정부의 비용지원

호주에서 가정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족은 연방정부로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보육비용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수입에 기초하고 있다. 호주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2000년 이후로 Child Care Benefit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되었다. CCB 지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공식적 보육시설 이용자는 물론 소규모 사적인 가정보육시설 이용자에게도 가정의 연간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여 보육료를 차등 보조한다. 호주정부는 가족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된 전달체계인 Centerlink 내에 Family Assistance 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Centerlink는 보육료 지원대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고 이 자산평가에 기초하여 가족의 소득과 보육아동 수 등에 따라 보육료 보조비율을 결정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가정보육제공자와 관련된 정책동향을 정리하면 <표 III-14>와 같다.

〈표 Ⅲ-14〉 가정보육 돌봄제공자 관련 외국의 정책 동향

구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자격 기준 및 관리	<p>· <u>가정보육 돌봄자 자격 법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법규 없음 - 노동기준법 제89조에 의거,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취업규칙 적용 <p>· <u>자격기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베이비시터 협회 단기교육 시험을 통해 자격 인정 - 대학교 재휴하여 해당자에게 베이비시터 인증서 제공 - 유효기간 5년 	<p>· <u>가정보육 돌봄자 자격 법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제공자로 등록(로드아일랜드, 미시건 주 등) - 장기 근로자로 일할 경우 노동법, 사회보장 관련 법 대상 · 일주일 20시간 미만 · 주당 근무시간 20% 이상이 가사업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안되어도 최저임금 적용 <p>· <u>자격기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18세 또는 19세 이상 - 학력: 고졸 이상 - 금연, 미국시민권, 근로할 수 있는 자격 되어야 함 - 업체별 기준 조건 	<p>· <u>가정보육 돌봄자 자격 법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법 자율 등록 - '07.10. 교육기준청에 등록 - 장기 근로자로 일할 경우 노동법, 사회보장 관련 법 대상 · 주당 48시간 근무, 출퇴근 내니는 최소 임금 적용, 주당 일정금액 이상 지불시 세무당국 등록 <p>· <u>자격기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아동보육에 적합한 자격 - 인증 신청 전 3년 이내 적합한 응급 처치 훈련, 아동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범죄기록 적용 	<p>· <u>가정보육 돌봄자 자격 법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회부조법전 - 노동법전 제7권 제7편 <p>· <u>자격기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교육(가정내 자녀양육지원 인력 대부분 '등록보육모')
비용 지원	<p>· <u>정부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 협회 교육 지원 <p>· <u>정부+기업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 이용할인권을 통한 베이비시터 이용부모 비용 지원 	<p>· 응급구조자격, 무사고면허, 건강진단서, 최소 친인척 이외 3명 참고인, 아동학대 여부 등 범죄여부 신원조회 결과 요구</p> <p>· <u>비용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지원(로드아일랜드, 미시건 주) ※ 단, 가정에서 개별적 비공식보육 공급자는 주정부에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 보육자로서 등록 절차 필수적 	<p>· <u>비용지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 없음 · 세제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비용 현금 지원 · 노동 관련법 근거 근로자로서 보호 · 가정부담의 사회보험료 정부, 기업의 기금으로 마련

3.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한국의 가족내 아동돌봄지원정책 동향과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의 가정보육 관련 제도 및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국의 가족내 아동돌봄지원정책은 대략적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및 휴가제도, 보육지원서비스, 가족의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가족내 아동돌봄지원서비스 공급 현황을 보면 공공영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이돌보미파견서비스,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등이 있으며 민간비영리에서는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제공되는 베이비시터 또는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이 있다. 민간 영리 서비스로는 베이비시터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유료베이비시터가 있으며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아동돌봄도우미가 있다. 이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개별적인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는 공공영역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의 가정보육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프랑스의 경우 등록가정 보육모 제도를 통해 공적으로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보육모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에 대해서도 이용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 가정내 보육을 공보육서비스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 미국은 일부 주에서 주정부 차원의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도 감독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보육 참조 및 자원기관(CCR&R)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공식 및 비 공식 보육제공자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나라인 영국에서도 2006년 아동보호법을 통해 아동보호 제공자에 대한 감독·관리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져 보상을 받고 하루에 두시간 이상 8세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교육기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8세이상의 아동을 돌보거나 아동의 집에서 돌보는 사람도 자발적인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 일본의 경우 가정보육은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형태를 총칭하는데 일본의 가정보육제도는 인가보육소의 저연령아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가정보육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정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실시요강에 의하면 자격증, 보육아동의 수(3인이하), 보육장소, 보육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가정보육제공자는 민간인 스스로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일본베이비시터협회가 있으며 이 협회에서 단기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증받고 있다. 일본의 베이비시터 회사 규모는 150여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형태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지만 이들은 전국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자격인증 및 보육제공자의 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용할인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등 한국과 다른 활동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용할인권 제도는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베이비시터 이용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기업에 협력하여 근로자의 아동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이다. 호주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정보육모에 대해 공통적으로 응급처치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식교육 또한 직업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교육 역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주와 지방 정부는 가정보육서비스에 관한 법령과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가정보육에 대한 제도를 보면 비록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에서의 자격관리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를 인정하고 보완적인 보육서비스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베이비시터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나 전국베이비시터협회를 통해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현재 가족내 아동돌봄서비스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즉 시설 중심의 보육정책 및 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개별적인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보육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충분하지 않고, 영리업체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전체 가정보육제공자에 대한 자격관리 및 감독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리는 프랑스나 영국처럼 정부가 할 수도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례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IV

한국의 가족내 아동 돌봄 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83
2. 일반적 사항	86
3. 아동 돌봄 형태 분석	92
4.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실태	118
5. 요약 및 소결	126

1. 조사개요

가. 표본설계

조사대상 가구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하였으며 전체 표본 수는 1,000가구이다.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 한정된 것은 취학전 아동의 돌봄 형태를 조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며 조사의 편이성을 위해 취학/미취학의 기준보다는 구체적인 연령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고 모수에 비례하여 추출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지역별로 표집방법은, 서울과 인천경기 두개 지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묶어 표집하였으며 지역별 표본 할당 수는 <표 IV-1>과 같다. 서울은 강북서부, 강북동부, 강남서부, 강남동부의 4대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표본할당 수는 388명이며 인천경기는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기위성지역으로 나누었으며 표본 수는 612명이다.

〈표 IV-1〉 지역별 표본 할당

지 역		표본 수
서울	강북 서부	62
	강북 동부	120
	강남 서부	117
	강남 동부	89
인천 경기	인천	106
	경기 남부	165
	경기 북부	67
	경기위성지역	274
계		1,000

나.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방법을 이용하였다. 또 조사 응답자는 조사대상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로 하며 어머니가 없거나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동의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없는 한부모가족이 5건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례는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하였다.

다. 조사도구 및 내용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조사 내용은 크게 돌봄형태와 유료가정돌봄에서 베이비시터 관련 내용, 조사응답자 및 자녀·배우자의 특성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돌봄형태는 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조사대상가구의 5세 이하 자녀의 돌봄형태에 대해 하루시간대별로 추이를 살펴보았다. 돌봄형태는 크게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의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접돌봄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며 친인척돌봄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 외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친인척이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이다. 이 때 아동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조사하였다. 시설돌봄에서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유치부, 놀이방 등이며 학습보충이나 특기적성을 위한 학원은 돌봄시설에서 제외하였다. 유료가정돌봄은 개별 보육의 형태로 베이비시터나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보미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별로 4가지 돌봄형태 해당여부를 알아보고 아동연령별, 응답자 소득 및 가구소득별, 취업상태별로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 돌봄형태별로 선택이유와 더불어 직접돌봄과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는 돌봄담당자를, 시설돌봄의 경우 시설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돌봄이용비용에 대해 돌봄형태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료베이비시터 관련 사항들은 유료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

로 한 문항과 전체 응답자에 대하여 유료베이비시터관련 설문문항으로 구분된다. 유료베이비시터 이용자에 대하여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경력 등 일반적 사항과 베이비시터의 현재 업무 내용과 희망업무 내용, 베이비시터 고용경로 및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등을 알아보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 및 베이비시터 고용시 제공받고 싶은 정보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응답자와 아동, 배우자 관련 사항은 조사응답자의 경우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근로시간, 월평균소득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관련 내용은 자녀수, 성, 연령 등이며 배우자 및 가족관련 사항은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그리고 월평균가구소득을 조사하였다.

〈표 Ⅳ-2〉 조사항목 및 세부내용

항목	세부내용
돌봄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형태(직접돌봄/친인척돌봄/시설돌봄/유료가정돌봄)별 이용여부 ·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추가: 아동연령별/소득별/취업상태별 · 돌봄형태별 선택이유 · 돌봄담당자 또는 시설유형 · 돌봄이용비용(친인척돌봄/시설돌봄/유료가정돌봄)
유료가정돌봄이용자의 베이비시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의 업무 영역 · 베이비시터 관련 사항(연령,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 베이비시터 고용경로 · 베이비시터 업체 이용경로 및 만족도
유료베이비시터 및 업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시터 고용시 선택 기준 · 베이비시터 업체의 베이비시터 고용시 제공 정보 관련
조사응답자와 아동, 배우자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응답자 관련 사항: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근로시간, 소득 · 아동 관련 사항: 자녀수, 성, 연령 · 배우자 관련 사항: 성, 연령, 학력, 취업여부, 고용형태, 배우자동거여부, 가구소득

2. 일반적 사항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아동과의 관계, 연령 및 학력

조사응답자 전체 1,000명 가운데 995명이 아동의 어머니이다. 나머지 5명은 아동의 아버지이며 모두 배우자가 없는 편부가족이다. 아동의 어머니인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사례는 990명이며 4명은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표 IV-3>).

〈표 IV-3〉 응답자의 아동과의 관계 및 배우자 여부

(단위: 사례수(%))

		배우자 여부			전체
		동거	비동거	배우자없음	
아동과의 관계	어머니	990	4	1	995(99.5)
	아버지	0	0	5	5(0.5)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3.9세이며 30세-34세가 전체의 45.9%로 가장 많다. 다음은 35세-39세로 34.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30대 연령층이 대부분이었다. 29세 이하는 12.3%, 40세 이상은 7.5%이다. 학력을 보면 대졸이 55.9%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고졸(42.7%)이다(<표 IV-4>).

〈표 IV-4〉 응답자의 연령 및 학력

구분		사례수(%)
연령 (평균 33.9세)	29세 이하	123(12.3)
	30세-34세	459(45.9)
	35세-39세	343(34.3)
	40세 이상	75(7.5)
	전체	1,000(100.0)
학력	고졸	427(42.7)
	대졸	559(55.9)
	대 학원졸 이상	16(1.6)
	전체	1,000(100.0)

2) 경제활동

조사응답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살펴보면(<표 IV-5>) 응답자 가운데 취업자는 40.4%, 가사양육을 하고 있는 비율은 59.6%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중 남성의 경우는 모두 취업자이다. 월평균 수입을 보면 100-150만원 미만인 38.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150-200만원으로 30.7%로 나타났다.

〈표 IV-5〉 응답자의 경제활동 여부 및 월평균 수입

구분			사례수(%)
경제활동여부	가사양육		596(59.6)
	취업	여성	363(36.8)
		남성	5(3.6)
	전체		1,000(100.0)
월평균수입	100만원 미만		35(8.7)
	100-150만원 미만		154(38.1)
	150-200만원 미만		124(30.7)
	200-300만원 미만		70(17.3)
	300-500만원 미만		18(4.5)
	500만원 이상		3(0.7)
	전체		1,000(100.0)

<표 IV-6>은 응답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회사나 타인의 사업체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이다. 남성은 임금근로자가 3명, 자영업이 2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72.4%로 대부분이며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26.5%로 나타났다. 남성은 가족의 사업을 보수없이 도와주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없었으며 여성은 4명이었다.

〈표 IV-6〉 응답자의 고용형태

(단위: 사례수(%))

	남성	여성	전체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	3(60.0)	284(72.4)	287(72.3)
내 사업	2(40.0)	104(26.5)	106(26.7)
가족의 사업을 보수 없이 도움	0(0.0)	4(1.0)	4(1.0)
전체	5(100.0)	392(100.0)	397(100.0)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40-50시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8.4%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 미만은 20.9%로 두 번째이며, 세 번째는 40시간 미만으로 전체의 14.1%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46.1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경우가 37.2%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대략 1/3 이상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응답자의 주당근로시간

구분		사례수(%)
주당근로시간 (평균 46.17시간)	40시간 미만	57(14.1)
	40-50시간 미만	192(48.4)
	50-60시간 미만	83(20.9)
	60-70시간 미만	47(11.8)
	70시간 이상	18(4.5)
	전체	379(100.0)

응답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출근시간은 평균 9시 45분이며 퇴근시간은 평균 18시 41분으로 출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며 퇴근시간은 대체로 정규근로시간에 준하여 늦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근시간을 보면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84.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퇴근시간은 6시에서 8시 사이인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으며 5시 30분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21.2%였다. 또 비록 그 비율이 높진 않으나 8시 이전 출근하는 경우가 6.5%, 밤늦게 퇴근하

는 경우가 15.6%로 나타나 돌봄시설 이용시간과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출근시간대별 퇴근시간 분포

(단위: 사례수(%))

출근시간 \ 퇴근시간	6시-8시 사이	8시 30분-10시 사이	11시-5시 사이	계
12시-5시 30분 사이	9(34.6)	70(20.8)	5(14.3)	84(21.2)
6시-8시 사이	15(57.7)	223(66.4)	13(37.1)	251(63.2)
8시 30분-24시 사이	2(7.7)	43(12.8)	17(48.6)	62(15.6)
전체	26(6.5)	336(84.6)	35(8.8)	397(100.0)

나. 응답자의 아동 관련 사항

응답자의 아동수는 평균 1.66명이며 2명인 경우가 50.5%로 가장 많고 다음이 1명인 경우로 41.8%를 차지하였다(<표 IV-9>). <표 IV-10>에서 아동의 성별 분포는 아들이 47.7%, 딸이 50.3%로 딸이 약간 더 많다. 출생 순위별로 성별을 보면 첫째아동은 아들과 딸의 수가 똑같으며 둘째는 딸이 약간 더 많고 셋째는 아들이 약간 더 많으며 넷째 또한 아들과 딸이 각각 1명씩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세 이상이 23.2%로 가장 많고 4세(17.3%), 5세(16.4%)의 순이다. 첫째자녀의 경우 6세 이상이 전체의 33.9%로 가장 많다. 첫째 자녀는 대체로 나이가 많은 편인데 가장 나이가 많은 경우는 28세였다⁴⁵⁾. 둘째 자녀는 1세 이하가 20.6%, 4세가 19.1%, 2세 18.2%, 3세 18.0%, 5세 16.3%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 셋째자녀는 1세 이하가 3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2세로 24.7%였다. 넷째자녀가 있는 경우는 단 2사례이며 각각 2세와 4세였다.

45) 조사응답자의 자녀 모두를 조사한 결과로 5세 이상의 자녀가 다수 있었으며 돌봄 형태 분석은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IV-9〉 아동수

(단위: 사례수(%))

구분	사례수(%)
1명	418(41.8)
2명	505(50.5)
3명	75(7.5)
4명	2(0.2)
전체	1,000(100.0)

〈표 IV-10〉 아동출생순위별 성별 및 연령 분포

(단위: 사례수(%))

구분		첫째자녀	둘째자녀	세째자녀	네째자녀	계
성별	남	500(50.0)	281(48.3)	44(57.1)	1(50.0)	826(47.7)
	여	500(50.0)	301(51.7)	33(42.9)	1(50.0)	835(50.3)
연령	1세 이하	96(9.6)	120(20.6)	27(35.1)	-	243(14.6)
	2세	102(10.2)	106(18.2)	19(24.7)	1(50.0)	228(13.7)
	3세	129(12.9)	105(18.0)	10(13.0)	-	244(14.7)
	4세	163(16.3)	111(19.1)	13(16.9)	1(50.0)	288(17.3)
	5세	171(17.1)	95(16.3)	7(9.1)	-	273(16.4)
	6세 이상	339(33.9)	45(7.7)	1(1.3)	-	385(23.2)
전체		1,000(100.0)	582(100.0)	77(100.0)	2(100.0)	1,661(100.0)

다. 응답자의 배우자 관련 사항 및 가구소득

〈표 IV-11〉은 응답자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들이다. 배우자는 평균 연령이 36.4세이며 35세-39세가 50.4%로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30세-34세였다. 학력수준을 보면 대졸이 68.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고졸로 26.6%이다. 경제활동은 98.9%가 하고 있었으며 가사와 양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9명, 기타가 2명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가 77.5%로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22.4%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가족의 사업을 보수없이 돕는다고 한 경우가 1건 있었다.

〈표 IV-11〉 배우자의 연령과 학력, 경제활동관련 사항

구분		사례수(%)
배우자 연령 (평균 36.4세)	29세 이하	33(3.3)
	30세-34세	260(26.2)
	35세-39세	501(50.4)
	40세 이상	200(20.1)
	전체	994(100.0)
배우자 학력	중졸이하	2(0.2)
	고졸	264(26.6)
	대졸	685(68.9)
	대학원졸 이상	43(4.3)
	전체	994(100.0)
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	983(98.9)
	가사양육	9(0.9)
	기타	2(0.2)
	전체	994(100.0)
고용형태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	762(77.5)
	내 사업	220(22.4)
	가족의 사업을 보수 없이 도움	1(0.1)
	전체	983(100.0)

가구소득은 180만원-350만원 미만인 경우가 45.9%로 가장 많고 다음이 350만원-500만원 미만으로 41.0%로 나타났다(<표 IV-12>). 응답자의 취업 상태에 따라 가구소득을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가구소득이 180-3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자는 17.0%, 비취업자는 83.0%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가구소득이 350-50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자는 58.3%, 비취업자는 41.7%로 취업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자가 1/3이 넘어 비취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가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한 5사례를 제외하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홀벌이보다 가구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다.

〈표 IV-12〉 가구 월평균소득

(단위: 사례수(%))

구분	취업	비취업	전체
180만원 미만	7(43.8)	9(56.3)	16(1.6)
180-350만원 미만	78(17.0)	381(83.0)	459(45.9)
350-500만원 미만	239(58.3)	171(41.7)	419(41.0)
500-700만원 미만	67(69.8)	29(30.2)	96(9.6)
700만원 이상	13(68.4)	6(31.6)	19(1.9)
계	404(40.4)	596(59.6)	1,000(100.0)

3. 아동 돌봄 형태 분석⁴⁶⁾

가. 아동 연령 및 소득별 돌봄 형태

1) 아동연령별 돌봄형태

아동 돌봄형태를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직접돌봄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것을 말하며 친인척돌봄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친척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설돌봄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과외교습 학원 등은 제외하였다. 유료가정돌봄은 유급으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동 돌봄 형태에 대한 설문에는 하루 중 아동을 돌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복응답이며 해당여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IV-13>을 보면 직접돌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8.4%로 대부분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동을 직접 돌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가정들은 전체의 57.4%이고,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15.0%로 나타났다⁴⁷⁾.

46) 아동 돌봄 형태는 조사응답자의 5세 이하 아동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1,266 사례가 수집되었다.

47) 유료가정돌봄은 서문희(2005)의 전국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이용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조사는 1.1%가 하고 있다고 한 반면 본 조사는 15.0%로 나타

아동연령별로 보면 직접돌봄은 연령에 상관없이 매우 높았다. 이는 아동을 시설에 보내거나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오전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시간에 아동을 직접 돌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친인척돌봄은 8.1%만이 해당된다고 응답하여 4가지 돌봄형태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연령별로 보면 2세의 경우에 11.0%로 가장 높지만 연령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시설돌봄은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해당 비율이 높아져 1세 이하는 13.2%에 불과한 반면 2세는 30.4%, 3세는 57.0%에서 4세, 5세는 각각 80.9%, 93.4%로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시설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1세 이하는 12.8%인 반면 2세는 24.2%로 그 비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3세, 4세, 5세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용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2세 아동의 유료가정돌봄 이용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이유는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직접돌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 또 시설돌봄은 대략 3세 이상의 이용비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3〉 돌봄형태

(단위: 사례수(%))

연령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1세 이하	232(99.1)	2(0.9)	20(8.5)	214(91.5)	31(13.2)	203(86.8)	30(12.8)	204(87.2)
2세	218(96.0)	9(4.0)	25(11.0)	227(93.0)	69(30.4)	158(69.6)	55(24.2)	172(75.8)
3세	242(99.2)	2(0.8)	17(7.0)	227(93.0)	139(57.0)	105(43.0)	43(17.6)	201(82.4)
4세	283(98.3)	5(1.7)	18(5.5)	270(93.8)	233(80.9)	55(19.1)	43(14.9)	245(85.1)
5세	271(99.3)	2(0.7)	23(8.4)	250(91.6)	255(93.4)	18(6.6)	19(7.0)	254(93.0)
전체	1,246(98.4)	20(1.6)	103(8.1)	1,163(91.9)	727(57.4)	539(42.6)	190(15.0)	1,076(85.0)

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2004년과 2008년의 조사 시점의 문제,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한 반면 서문희 외(2005)의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시점은 2004년이라 하더라도 서문희 외(2005)의 조사결과가 전국조사라는 점에서 실태에 약간 더 근접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4년이라는 시간은 개별 가족의 행위 선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가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점이며 아동의 연령과 취업여부, 근무시간대 등에 따라 하루시간대별 아동 돌봄 형태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소득별 돌봄형태

가) 응답자의 월평균소득별 돌봄형태

돌봄 형태를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과 가구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표 IV-14>, <표 IV-15> 참조). 우선 응답자의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직접돌봄 해당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돌봄은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이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장 비율이 높으며 다음은 300만원-5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중간이상이면서 최상위가 아닌 경우에 친인척돌봄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시설돌봄은 100만원-15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79.3%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나 소득이 올라갈수록 다시 그 비율이 낮아지다가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 미만소득자를 제외하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유료가정돌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시설은 유료가정돌봄보다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 있어서 이용률이 높다.

〈표 IV-14〉 응답자 월평균소득과 돌봄형태

(단위: 사례수(%))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100만원 미만	39(100.0)	-	1(2.6)	38(97.4)	24(61.5)	15(38.5)	13(33.3)	26(66.7)
100-150만원 미만	174(97.2)	5(2.8)	36(20.1)	143(79.9)	142(79.3)	37(20.7)	27(15.1)	152(84.9)
150-200만원 미만	136(95.1)	7(4.9)	27(18.9)	116(81.1)	87(60.8)	56(39.2)	53(37.1)	90(62.9)
200-300만원 미만	75(93.8)	5(6.3)	24(30.0)	56(70.0)	35(43.8)	45(56.3)	37(46.3)	43(53.8)
300-500만원 미만	19(95.0)	1(5.0)	4(20.0)	16(80.0)	12(60.0)	8(40.0)	9(45.0)	11(55.0)
500만원 이상	3(75.0)	1(25.0)	0(0.0)	4(100.0)	3(75.0)	1(25.0)	3(75.0)	1(25.0)
통계량	$\chi^2=8.126$ df=5; p=.149		$\chi^2=13.620$ df=5; p=.018		$\chi^2=33.792$ df=5; p=.000		$\chi^2=38.178$ df=5; p=.000	

나) 응답자의 가구 월평균소득별 돌봄형태

가구월평균소득과 돌봄형태를 살펴보면(<표 IV-15>) 응답자의 소득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돌봄은 가구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돌봄은 가구소득이 350만원-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장 해당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이 180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였다.

<표 IV-15> 월평균가구소득과 돌봄형태

(단위: 명(%))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180만원 미만	23(100.0)	-	4(17.4)	19(82.6)	14(60.9)	9(39.1)	6(26.1)	17(73.9)
180-350만원 미만	599(99.0)	6(1.0)	27(4.5)	578(95.5)	330(54.5)	275(45.5)	37(6.1)	568(93.9)
350-500만원 미만	495(98.2)	9(1.8)	49(9.7)	455(90.3)	324(64.3)	180(35.7)	87(17.3)	417(82.7)
500-700만원 미만	108(97.3)	3(2.7)	22(19.8)	89(80.2)	47(42.3)	64(57.7)	50(45.0)	61(55.0)
700만원 이상	21(91.3)	2(8.7)	1(4.3)	22(95.7)	12(52.2)	11(47.8)	10(43.5)	13(56.5)
통계량	$\chi^2=10.243$ df=5; p=.037		$\chi^2=35.970$ df=5; p=.000		$\chi^2=22.454$ df=5; p=.000		$\chi^2=134.853$ df=5; p=.000	

이처럼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율이 가구소득이 높아지면서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소득, 취업과 아동돌봄형태에 대해 3차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6>은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별로 4가지 돌봄형태 해당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라 유료가정돌봄 해당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율이 확연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180만원 미만인 취업자의 경우 유료가정돌봄 해당자가 50.0%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⁴⁸⁾ 가구소득이 180-350

4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가정돌봄 중 정부지원아이돌보미일 가능성을 두고 분석해

미만인 취업자는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16.5%인데 가구소득이 350-500만원 미만인 경우 26.1%, 500-700만원 미만은 55.3%, 700만원 이상은 64.3%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율이 높았다.

〈표 IV-16〉 월평균가구소득 및 취업여부별 돌봄형태 해당여부

(단위: 사례수(%))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180만원 미만	8(100.0)	15(100.0)	2(25.0)	2(13.3)	3(37.5)	11(73.3)	4(50.0)	2(13.3)
180-350만원 미만	86(94.5)	513(99.8)	21(23.1)	6(1.2)	68(74.7)	262(51.0)	15(16.5)	22(4.3)
350-500만원 미만	267(96.7)	228(100.0)	46(16.7)	3(1.3)	192(69.6)	132(57.9)	72(26.1)	15(6.6)
500-700만원 미만	73(96.1)	35(100.0)	22(28.9)	0(0.0)	33(43.4)	14(40.0)	42(55.3)	8(22.9)
700만원 이상	12(85.7)	9(100.0)	1(7.1)	0(0.0)	7(50.0)	5(55.6)	9(64.3)	1(11.1)

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표 IV-17〉과 〈그림 IV-1〉은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동의 일과시간에 따라 돌봄형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오전 시간대에 직접돌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낮 시간대에 시설돌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오전 8시-9시에는 직접돌봄이 80.8%로 가장 높은 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직접돌봄의 비율이 50% 이하이며 시설돌봄의 비율이 50% 이상이다. 특히 출근시간대를 기점으로 하여 직접돌봄이 줄어들고 있어, 경제활동이 돌봄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퇴근 시간 이전인 오후 2-3시를 기점으로 직접돌봄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아동교육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

보았으나 이웃 등 개인의 소개로 이용하는 시터인 사례가 더 많았다. 이에 유료베이비시터 이용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액수가 27만원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되었다. 가구소득별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용 평균은 본장의 3절 돌봄이용비용 부분에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표 IV-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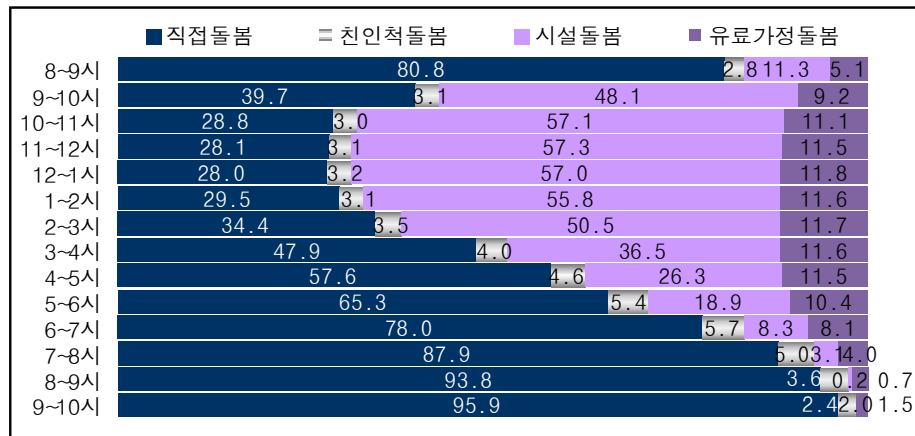
원을 이용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10%대의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낮 시간대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Ⅳ-17〉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하루시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전체
8~9시	80.8	2.8	11.3	5.1	100.0
9~10시	39.7	3.1	48.1	9.2	100.1
10~11시	28.8	3.0	57.1	11.1	100.0
11~12시	28.1	3.1	57.3	11.5	100.0
12~1시	28.0	3.2	57.0	11.8	100.0
1~2시	29.5	3.1	55.8	11.6	100.0
2~3시	34.4	3.5	50.5	11.7	100.1
3~4시	47.9	4.0	36.5	11.6	100.0
4~5시	57.6	4.6	26.3	11.5	100.0
5~6시	65.3	5.4	18.9	10.4	100.0
6~7시	78.0	5.7	8.3	8.1	100.1
7~8시	87.9	5.0	3.1	4.0	100.0
8~9시	93.8	3.6	0.7	2.0	100.1
9~10시	95.9	2.4	0.2	1.5	100.0

(단위: %)



〈그림 Ⅳ-1〉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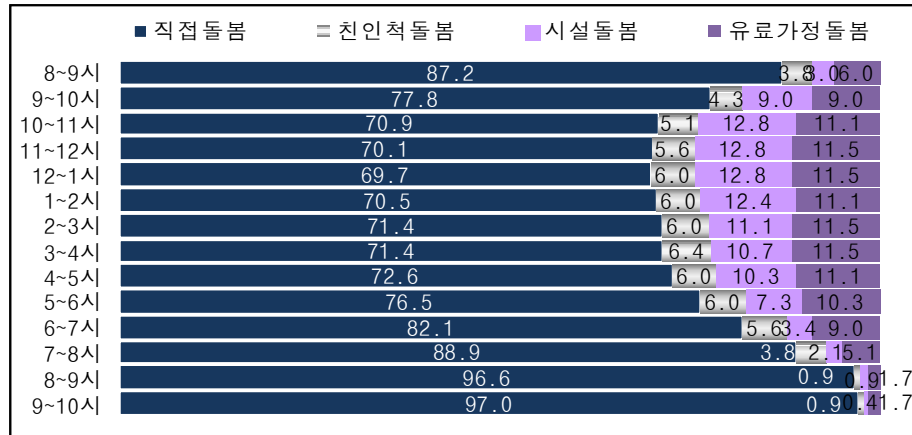
1) 아동연령과 시간대별 돌봄형태

아동의 연령과 하루 시간대별 돌봄 형태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접돌봄의 비율이 줄어들고, 시설돌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인척 돌봄의 경우 2세 아동의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유료가정돌봄 또한 2세 아동의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 1세 이하 아동

<그림 IV-2>는 1세 이하의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1세 이하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시간대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하루시간 전체에서 매시간 모두 직접돌봄의 비율이 높다. 직접돌봄을 제외하고 다른 돌봄유형을 비교하면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친인척돌봄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약 11%에서 13%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유료가정돌봄도 대략 11%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시설돌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오전 8시에는 유료가정돌봄의 비율이 6.0%로 시설(3.8%)에 비해 약간 더 높으며, 오후 3시 이후 시간에는 시설돌봄보다 유료가정돌봄의 비율이 더 높다. 이를 보면 시설돌봄 이용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 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1세 이하의 아동은 부모가 대체로 오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는 직접돌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낮시간대에도 다른 돌봄형태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직접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낮 시간대 돌봄 추이를 보면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비교해보면 아침 시간(10시 이전)과 오후 시간(5시 이후)에는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데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개별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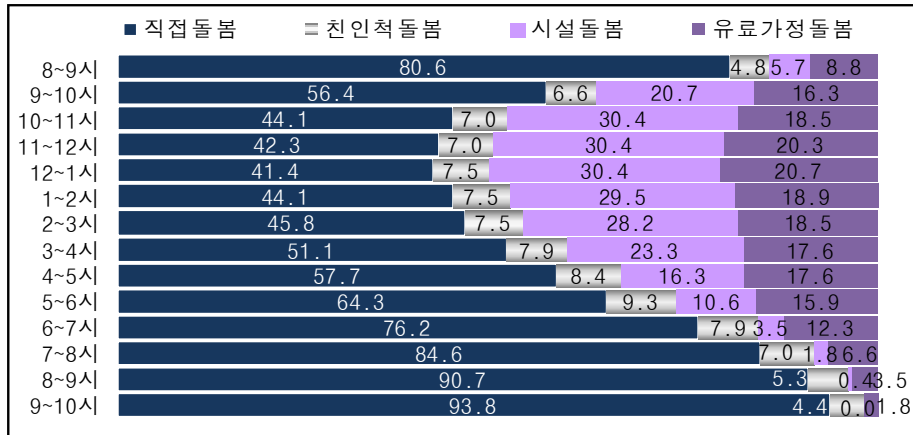


〈그림 Ⅳ-2〉 1세이하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나) 2세 아동

2세 아동에 대해 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자세히 알아보면(<그림 Ⅳ-3>)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직접돌봄의 비율이 대략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리고 1세 이하 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시설돌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료가정돌봄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오전 9시-10시시간대를 보면 시설돌봄이 20.7%로 직접돌봄에 이어 두 번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 4시까지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는 유료가정돌봄(8.8%)이 시설돌봄(5.7%)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 4시부터도 시설보다는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를 보면 1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시설돌봄은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대는 직접돌봄을 하거나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 유료가정돌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돌봄 시설 운영시간의 제한과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시설에 장시간 두는 데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른 아침 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직접돌봄 또는 유료가정돌봄으로 개별 돌봄 방식을 선호함을 드러내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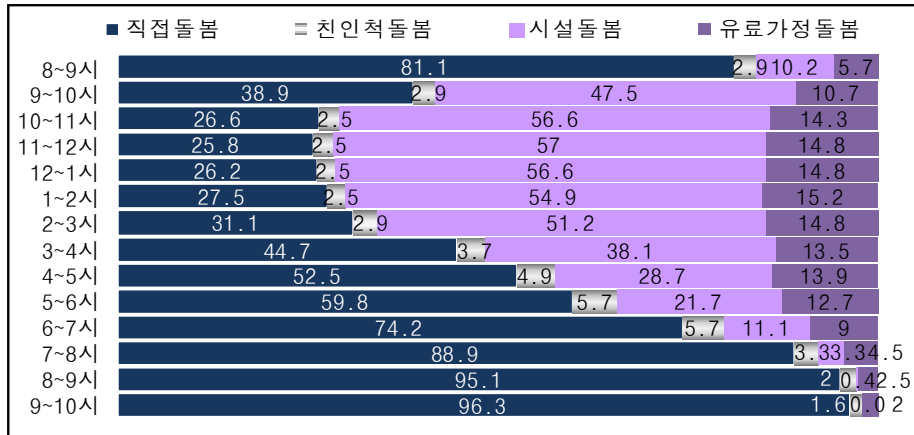


〈그림 IV-3〉 2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다) 3세 이상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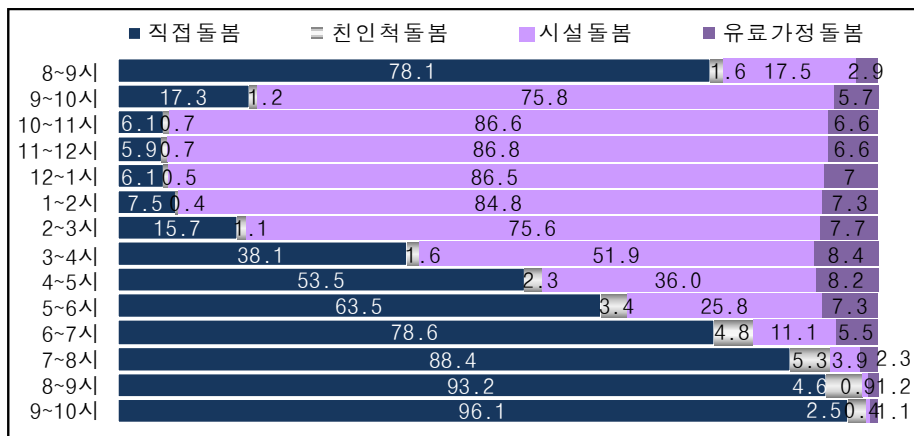
아래 <그림 IV-4>와 <그림 IV-5>는 하루시간대별 돌봄 형태에 대해 3세 아동과 4-5세 아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3세 아동과 4-5세 아동의 시간대별 돌봄형태에서 1세 이하 아동과 2세 아동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낮 시간대(오전 9시 이전, 오후 3시 또는 4시 이후)에 직접돌봄보다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오전 9시-10시 사이를 보면 3세 아동은 47.5%가 4-5세의 경우 75.8%가 시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3세 아동의 절반이상이, 4-5세 아동은 2/3 이상이 시설돌봄을 이용하고 있었다. 오후 3시 이후 부터는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가는 아동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인척돌봄은 2세 이하 아동에 비해 그 비율이 적으며 특히 4-5세 아동은 매우 적었다.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3세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1세 이하 아동보다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3세 아동은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5세 아동의 유료가정돌봄 비율은 1세 이하 아동보다는 그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역시 낮 시간대 이용비율이 높다.

(단위: %)



〈그림 IV-4〉 3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그림 IV-5〉 4-5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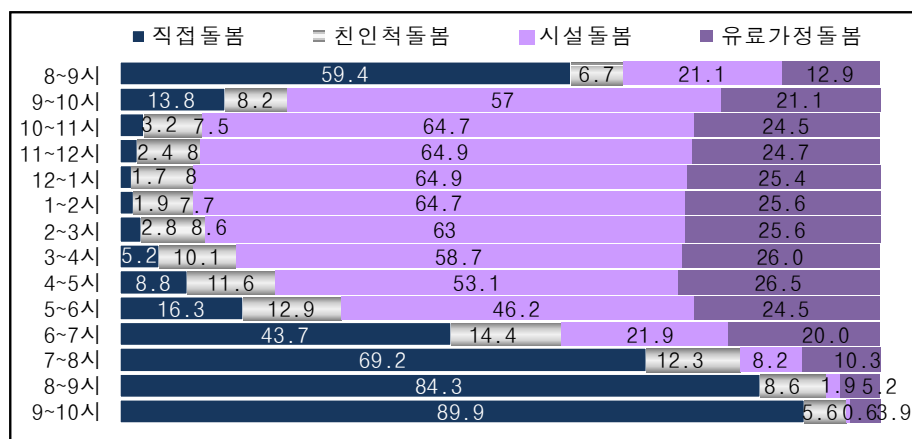
2) 취업상태와 아동연령별 돌봄형태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조사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림 IV-6>, <그림 IV-7> 참조). 우선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높고 비취업자는 직접돌봄 비율이 높다는 점이 명백하게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다. 특히 주로 일하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에 취업자의 경우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50% 이상이며 유료가정돌봄의 비율도 약 25% 정도로 1/4수준이다. 반면 비취업자는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취업자에 비해 직접돌봄 이용 비율이 대체로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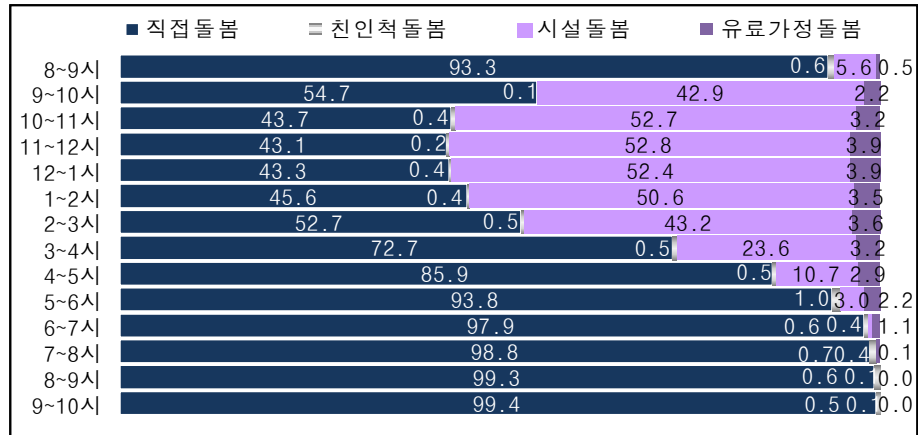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비취업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접돌봄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것은 교육이 주요 목적이며 돌봄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친인척돌봄은 비취업자는 이용비율이 매우 낮으며 취업자는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취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자의 경우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돌봄형태 가운데 가용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친인척돌봄의 경우 오후 5시 이후 시간에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무시간이 돌봄시설 이용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도 오후 7시 이후에는 시설돌봄 형태보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시설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 %)



〈그림 IV-6〉 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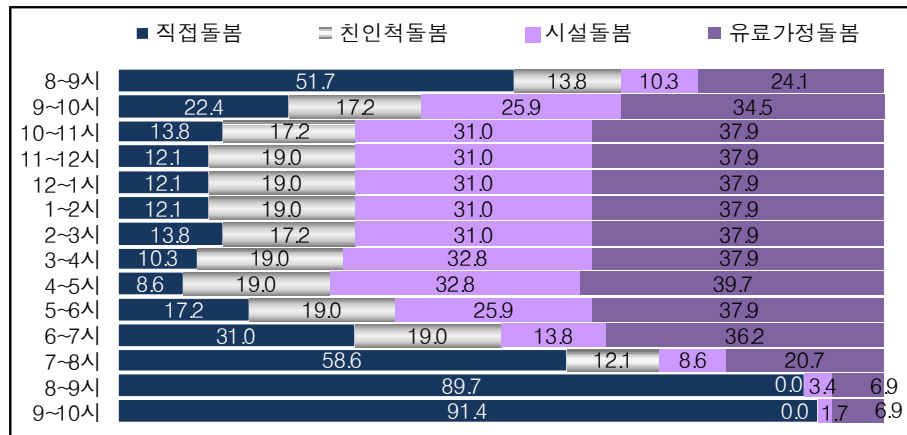


〈그림 IV-7〉 비취업자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가) 취업상태별 1세 이하 아동의 돌봄형태

아래 <그림 IV-8>, <그림 IV-9>는 1세 이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취업상태별 돌봄형태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비취업자는 하루시간대 대부분 직접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시설돌봄이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는 직접돌봄이 51.7%, 유료가정돌봄이 24.1%, 친인척돌봄이 13.8%, 시설돌봄이 10.3%로 직접돌봄이외에 유료가정돌봄의 비중이 높으며 다음이 친인척돌봄이다. 즉 취업자의 경우 오전시간대에 직접돌봄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보다는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 가정에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는 유료가정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높고 다음이 시설돌봄 형태이다. 한편 친인척돌봄은 아동을 돌볼 친인척 유무라는 개인적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경우 이용하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가장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후 6시~8시 사이의 돌봄형태를 보면 유료가정돌봄이 가장 높고 다음이 친인척돌봄으로 나타나 돌봄시설 이용시간의 제약이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단위: %)



〈그림 IV-8〉 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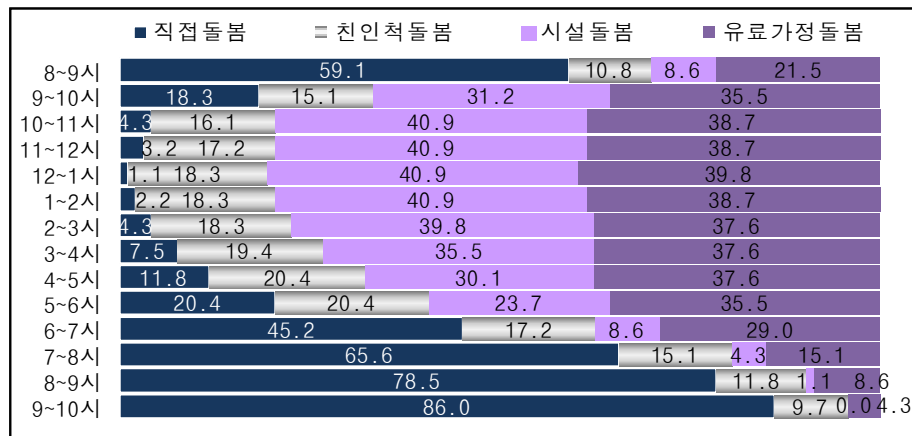
〈그림 IV-9〉 비취업자의 1세이하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나) 취업상태별 2세 아동의 돌봄형태

2세 아동에 대해 취업상태별로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1세 이하 아동과 마찬가지로 비취업자는 직접돌봄비율이 높다. 비취업자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는 95.5%가 직접돌봄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70% 이상이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돌봄을 제외하고는 시설돌봄이 두 번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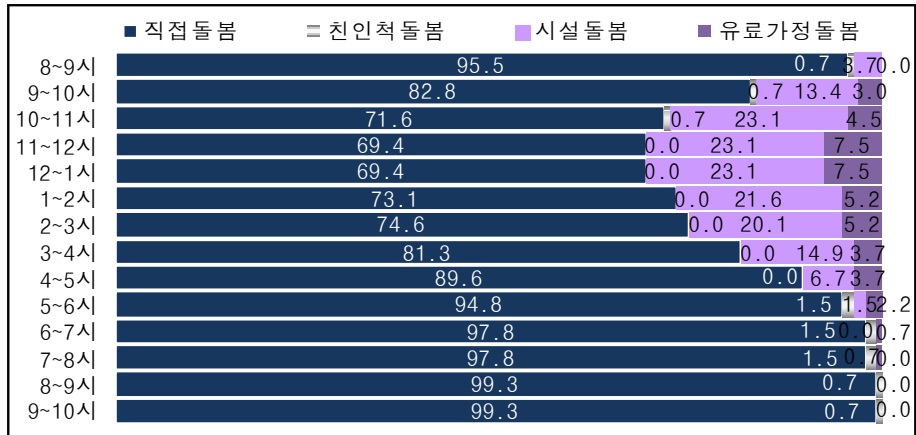
많은데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20%에서 23% 정도이다. 친인척돌봄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유료가정돌봄도 매우 적다. 이를 보면 아동이 2세이고 비취업자는 대부분 직접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의 경우를 보면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직접돌봄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 밖의 시간대는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형태가 높게 나타났다. 양자의 비율을 비교하면 시설돌봄이 약간 더 높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주로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대에는 아동을 시설에 보내거나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고 있으며 친인척 돌봄은 상대적으로 이용비율이 낮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유료가정돌봄이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후 5시-6시에도 시설보다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율이 더 높다. 오후 6시 이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료가정돌봄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친인척돌봄, 마지막으로 시설돌봄으로 나타나 1세 이하 아동과 마찬가지로 돌봄시설 이용시간의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Ⅳ-10〉 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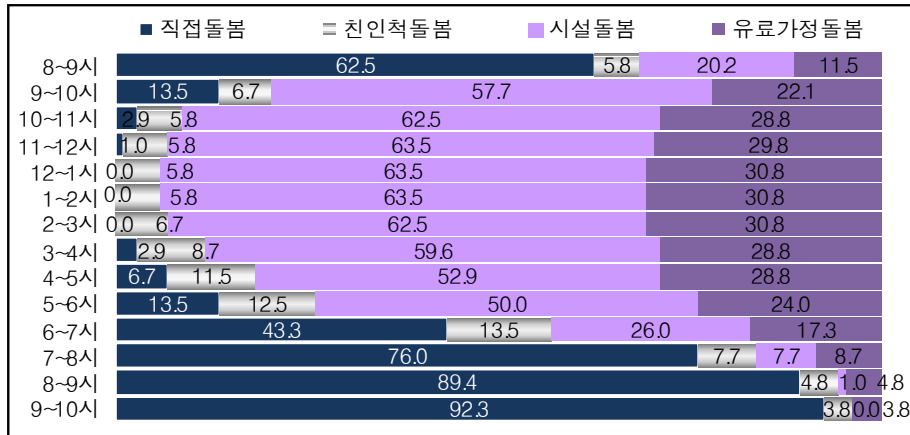


〈그림 IV-11〉 비취업자의 2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다) 취업상태별 3세 아동의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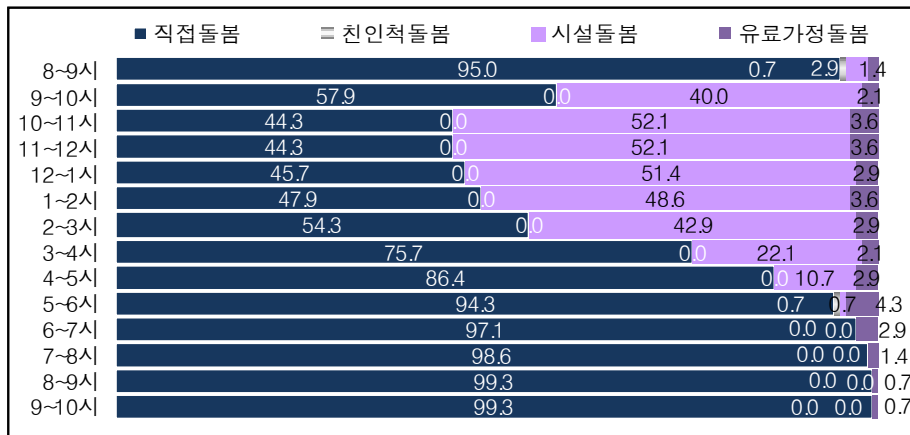
다음 <그림 IV-12>와 <그림 IV-13>은 3세 아동의 돌봄형태에 대해 취업 상태별로 알아본 것이다. 1세 이하와 2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비취업자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낮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에는 시설돌봄의 비율이 직접돌봄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는 3세 아동의 경우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아동을 시설에 보내기 때문에 그러하다. 취업자의 경우를 보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는 시설돌봄이 60%에 가깝거나 상회한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도 시설돌봄이 50%를 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형태이다. 오후 6시에서 7시에는 비록 직접돌봄이 43.3%, 시설돌봄이 26.0%로 직접돌봄보다는 적지만 유료가정돌봄과 친인척돌봄보다는 높아서 1세 이하와 2세 아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2세 이하의 아동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직접돌봄 다음으로 유료가정돌봄이었지만 3세 아동은 시설돌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후 늦은 시간대에 직접돌봄이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에서 돌봐주는 것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단위: %)



〈그림 IV-12〉 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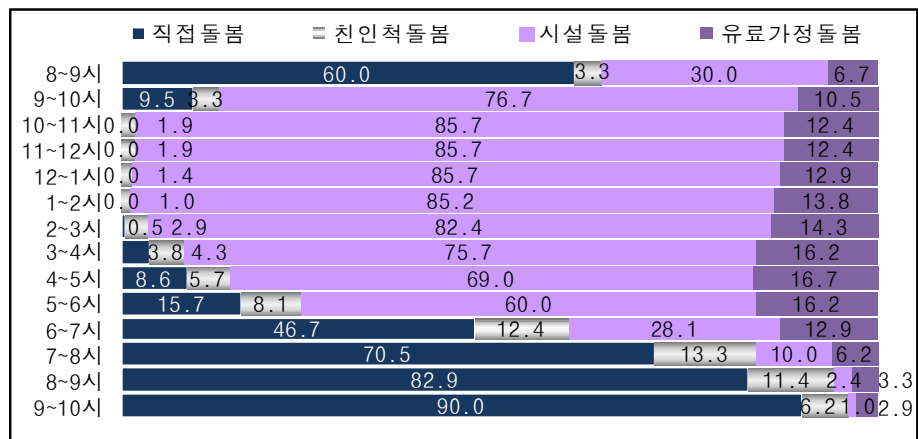
〈그림 IV-13〉 비취업자의 3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라) 취업상태별 4-5세 아동의 돌봄형태

취업상태별로 4-5세 아동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비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낮시간대 시설돌봄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4-5세 아동은 대부분 돌봄시설에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대별로 보면 취업자, 비취업자 모두 오전 9시부터 시설이용비율이 높은 것은 동일하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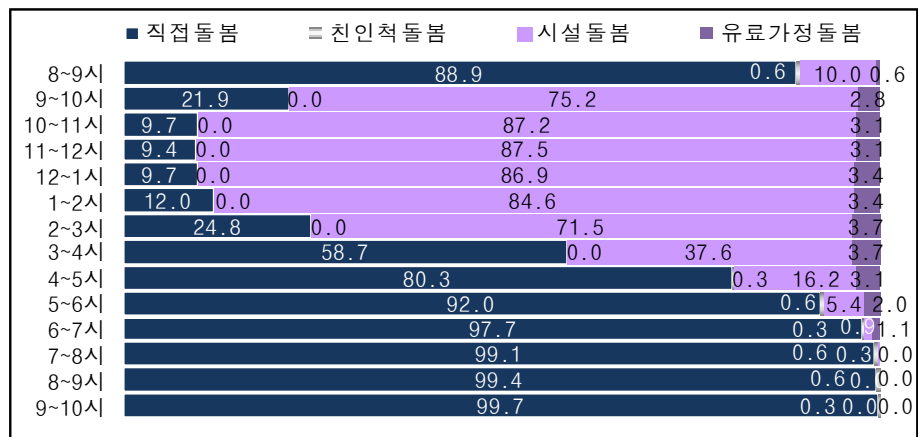
러나 오후 시간은 비취업자는 오후 3시 이후 시설이용비율이 급격히 낮아지지만 취업자는 오후 7시 이후 시설 이용비율이 급감한다. 유료가정돌봄은 비취업자의 경우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이용비율이 낮다. 다만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돌봄시설이용이 끝난 후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다.

(단위: %)



〈그림 IV-14〉 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단위: %)



〈그림 IV-15〉 비취업자의 4~5세 아동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다. 돌봄형태별 선택 사유

돌봄형태별로 각각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아동을 직접 돌보는 이유에 대해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살펴본 결과 1순위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74.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순위 사유 가운데 두 번째는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이다. 이를 보면 아이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직접 돌보거나 비취업인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나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 사유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30.6%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는 “비용이 부담돼서”이다.

이를 취업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는 직접 돌봄을 하는 경우가 4사례로 매우 적으며,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와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가 1순위 사유로 각각 2사례씩 있었다. 2순위 사유로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2사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가 각각 1사례씩 나타났다. 이 중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 라고 응답한 사례는 응답자인 아동의 어머니는 취업 상태이나 배우자가 비취업 상태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비취업자는 1순위의 경우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직접 돌봄을 하는 사례가 전체의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이며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이 중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는 조사응답자인 아동의 어머니가 비취업상태이므로 결국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 아동을 돌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2순위 응답을 보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가장 많아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사유는 “비용이 부담돼서”이며 세 번째는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시설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시설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해 믿을 수 없어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을 직접 돌보는 사유로는 대체로 아동의 연령이 시설에 보내기는 나이가 어린 경우이거나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거나,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직접 돌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8〉 직접돌봄을 하는 이유

(단위: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취업	비취업	계	취업	비취업	계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2(50.0)	247(74.6)	249(74.3)	2(50.0)	35(10.8)	37(11.3)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0(0.0)	9(2.7)	9(2.7)	0(0.0)	7(2.2)	7(2.1)
시설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0(0.0)	3(0.9)	3(0.9)	0(0.0)	28(8.7)	28(8.6)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0(0.0)	7(2.1)	7(2.1)	0(0.0)	24(7.4)	24(7.3)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2(50.0)	8(2.4)	8(2.4)	0(0.0)	35(10.8)	35(10.7)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0(0.0)	21(6.3)	23(6.9)	1(25.0)	99(30.7)	100(30.6)
보육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어서	0(0.0)	1(0.3)	1(0.3)	0(0.0)	4(1.2)	4(1.2)
비용이 부담돼서	0(0.0)	12(3.6)	12(3.6)	0(0.0)	53(16.4)	53(16.2)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	0(0.0)	23(6.9)	23(6.9)	1(25.0)	38(11.8)	39(11.9)
전체	4(1.2)	331(98.8)	335(100.0)	4(1.2)	331(98.8)	327(100.0)

다음 시설에 보내는 이유를 살펴보면(<표 IV-19>) 1순위 사유는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가 41.1%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로 나타났다. 2순위 사유를 보면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28.2)”,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28.2%)”이다. 이를 보면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라는 사유 이외에는 대부분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시설에 보내지 않고 유료가정돌봄을 하는 사유를 보면(<표 IV-20>) 1순위에서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49.4%로 가장 높아서 아동의 연령으로 인해 직접돌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료가정돌봄도 아동의 연

령이 어릴 때 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위 사유에서도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직접 돌봄을 하는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은 시설과 달리 1명의 돌봄교사가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1명의 아동을 돌봐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유료가정돌봄을 선택한 사유를 보면 시설에 보내기에 아동의 연령이 어리거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돌보고자 할 때 이용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

〈표 Ⅳ-19〉 시설에 보내는 이유

(단위: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299(41.1)	105((14.5)
비용이 저렴하므로	47(6.5)	78(10.8)
근무 시간과 시설돌봄 시간이 맞아서	53(7.3)	78(10.8)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102(14.0)	204(28.2)
또래들과 활동 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198(27.2)	204(28.2)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재 교구들이 다양하고 많아서	20(2.8)	44(6.1)
자질있고 신뢰할 만한 베이비시터를 못 찾아서	3(0.4)	8(1.1)
베이비시터는 시설에 비해 지속적이지 못해서	-	2(0.3)
기타	5(0.6)	-
전체	727(100.0)	724(100.0)

〈표 IV-20〉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시설을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80(49.4)	11(7.0)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18(11.1)	21(13.4)
시설에서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21(13.0)	31(19.7)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어서	14(8.6)	14(8.9)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5(3.1)	14(8.9)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14(8.6)	34(21.7)
시설 보육 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어서	-	6(3.8)
무료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5(3.1)	8(5.1)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5(3.1)	18(11.5)
전체	162(100.0)	157(100.0)

<표 IV-21>은 시설에 보내고 있음에도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비록 사례 수는 22명에 불과하지만 1순위 사유 가운데 ‘돌봄시설 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가 절반으로 나타났다. 2순위 사유를 보면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7명, ‘전일제 유료가정돌봄비용이 부담돼서’가 6명이다. 이를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료가정돌봄에 비해 저렴하지만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돌봄시설 운영시간 이후에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거나 비용부담 때문에 시간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교육적 목적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과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시설돌봄의 경우 운영시간 문제,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비용과 교육적 효과 부분에 한계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Ⅳ-21〉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유

(단위: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돌봄시설 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11(50.0)	3(14.3)
전일제 유료가정돌봄비용이 부담돼서	2(9.1)	6(28.6)
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서	6(27.3)	7(33.3)
유료베이비시터에게 가사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3(13.6)	5(23.8)
전체	22(100.0)	21(100.0)

라.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친인척에게 아동을 맡기는 경우 돌봄담당자는 누구인지, 시설돌봄의 경우 시설유형은 무엇인지, 유료가정돌봄을 하는 경우는 누가 아동을 돌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⁴⁹⁾

우선 친인척돌봄을 하는 사례는 아동 1,266명 가운데 103명으로 매우 소수이다. 구체적으로 돌봄을 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본인부모가 53.4%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모로 36.9%이다. 다음 본인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그 외 배우자의 친척 등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아동을 돌봐주는 친인척은 거의 대다수가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즉 아동의 조부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인척돌봄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적다는 점, 아동의 조부모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인척돌봄이 어려울 경우 아동을 직접돌보거나 시설 또는 유료가정돌봄 등 시장에서 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의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경우 시설이나 유료가정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부모 중 1인이 경제활동을 그만두어야 하게 되며 대부분 어머니인 여

49) 하루시간대별 돌봄담당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15>, <부표 16>, <부표 17>, <부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연령과 취업여부별로 돌봄담당자를 보면 1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취업자의 경우 베이비시터가 보육담당자인 경우가 많으며 2세 아동이며 취업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세이며 취업자인 경우 낮 시간대 시설이용률이 높는데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집-놀이방-유치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4-5세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순서이다.

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친인척돌봄이 실제로 이용비용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 공적 영역 또는 민간영역에서 선택가능한 시설 또는 유료가정돌봄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친인척돌봄을 하는 경우 돌봄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이 거주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61.2%이고 친인척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38.8%로 대략 2:1정도로 나누어진다. 즉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기 하지만 친인척이 집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돌보는 경우도 1/3이 넘는다. 서문희 외(2004)의 전국 보육실태 조사⁵⁰⁾에 의하면 보육장소에 있어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의 경우 비동거시 보육장소는 보육제공자의 집이 68.8%, 아동의 집이 31.2%이며, 비혈연관계에 의한 보육의 경우 보육제공자의 집이 55.2%, 아동의 집이 44.8%로 보육제공자의 집이 더 많았다.

시설돌봄의 경우 보내는 시설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설돌봄 이용자는 전체 727명이며 이중 57.9%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유치원으로 30.0%이며 놀이방이 8.8%, 학원유치부가 가장 소수로 3.3%였다.

유료가정돌봄은 이웃을 통해, 주변의 소개를 통해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190명의 아동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자가 30사례 있었으며 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소개받아 이용하는 경우는 가장 비율이 적어 27건이었다. 이를 보면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를 제외하면 유료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업체를 통하기보다는 개인적 경로를 통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이 드러났다.

50) 서문희 외, 2005, 「전국보육·교육이용 및 욕구실태조사 보고」.

〈표 Ⅳ-22〉 돌봄형태별 돌봄담당자 및 시설유형

구분			사례수	%
친인척돌봄	본인과의 관계	본인부모	55	53.4
		배우자의 부모	38	36.9
		본인의 형제자매나 그배우자	7	6.8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그배우자	2	1.9
		그외 배우자의 친척	1	1.0
		전체	103	100.0
	돌봄장소	아동이 거주하는 집	63	61.2
		친인척의 집	40	38.8
		전체	103	100.0
시설돌봄	시설유형	어린이집	421	57.9
		놀이방	64	8.8
		유치원	218	30.0
		학원 유치부	24	3.3
		전체	727	100.0
유료가정 돌봄	돌봄담당자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30	15.8
		사설 업체의 베이비 시터	27	14.2
		이웃 등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	133	70.0
		전체	190	100.0

마. 돌봄형태별 이용 비용

〈표 Ⅳ-23〉은 돌봄형태별 비용을 살펴본 것이다. 친인척돌봄비용은 월평균 비용이 23만8천원이며 30만원-50만원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다. 그러나 20만원-30만원도 21.4%, 22건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20만원 미만을 드린다고 한 경우도 19.5%이고 대가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17.5%로 나타났다. 시설돌봄은 월평균이용비용은 26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으며 30만원-50만원 미만이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으로 36.7%를 차지하였다. 2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17.7%이

며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우 소수로 2.2%에 불과하다. 유료가정돌봄은 아이돌보미와 유료베이비시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월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⁵¹⁾. 아이돌보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모두 28건이며 월평균이용비용은 16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20만원-30만원 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다. 베이비시터 이용자는 월평균 이용비용이 66만9천원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지출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가 전체의 24.8%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0만원-60만원 미만으로 23.3%이다.

월평균이용비용에서 최고액수를 살펴보면 친인척돌봄이 100만원, 시설돌봄이 88만원, 아이돌보미가 40만원, 베이비시터가 180만원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장 저렴하고 베이비시터가 가장 비싸다. 평균액수도 아이돌보미가 가장 낮으며 가장 비싼 것은 베이비시터이다. 친인척돌봄의 평균비용은 베이비시터와 시설돌봄 다음 순위이지만 실제 가장 고액이 100만원으로 나타나 이용비용에 편차가 심하여 각 개인에 따라 시설이나 아이돌보미에 비해 더 비쌀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51) 설문조사에서는 비정기이용자의 경우도 비용을 조사하였으나 친인척돌봄과 시설돌봄의 경우 월평균이용비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월정기이용자의 이용비용만을 제시하였다.

〈표 Ⅳ-23〉 돌봄형태별 이용비용

구분			사례수	%
친인척돌봄	월평균이용비용 (Mean= 23.8만원 SD= 18.85)	대가 드리지 않음	18	17.5
		20만원 미만	20	19.4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22	21.4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26	25.2
		50만원 이상	17	16.5
		전체	103	100.0
시설돌봄	월평균이용비용 (Mean= 26.9만원, SD=9.91)	무비용	1	0.1
		20만원 미만	129	17.7
		20만원 이상-30만 미만	267	36.7
		30만원 이상-50만 미만	314	43.2
		50만원 이상	16	2.2
		전체	727	100.0
유료가정돌봄 -아이돌보미	월정기이용자 이용비용 (Mean=16.7만원, SD=9.43)	10만원 미만	7	25.0
		10만원-20만원 미만	9	32.1
		20만원-30만원 미만	10	35.7
		30만원 이상	2	7.1
		전체	28	100.0
유료가정돌봄 -베이비시터	월정기이용자 이용비용 (Mean=66.9만원, SD=33.78)	20만원 미만	9	6.8
		20만원-40만원 미만	16	12.0
		40만원-60만원 미만	31	23.3
		60만원-80만원 미만	25	18.8
		80만원-100만원 미만	19	14.3
		100만원 이상	33	24.8
		전체	133	100.0

다음 유료가정돌봄 비용에 대해서 따로 가구소득별로 평균비용을 살펴보았다(〈표 Ⅳ-24〉 참조). 그 결과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평균이용비용이 낮아서 180만원 이하 가구소득인 경우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용은 대략 27만원으

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용비용이 높아져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9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그만큼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유료가정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음을 확인해준다고 하겠다.

〈표 IV-24〉 월평균가구소득별 유료가정돌봄 이용비용 평균

(단위: 만원, 명)

가구월평균소득	평균	사례수	S.D.
180만원 미만	27.60	5	26.53
180-350만원 미만	52.67	12	27.18
350-500만원 미만	61.79	66	32.85
500-700만원 미만	78.90	41	31.51
700만원 미만	90.00	9	30.00
전체	66.86	133	33.78

4. 유료가정돌봄(베이비시터) 이용실태

가. 베이비시터 관련 특성

1)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여부

유료가정돌봄에서 아이돌보미가 아닌 유료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 및 업무 내용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IV-25>는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여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베이비시터의 평균연령은 47.3세이며 40대가 50.0%로 가장 많다. 다음이 50대로 26.1%이며 세 번째는 30대로 17.6%이다. 학력은 고졸이 6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대졸(15.9%)이며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의 학력을 모른다고 한 응답도 12.5%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가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격증이 없다고 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으며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한 응답도 39.2%나 되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 176사례 가운데 단 5사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자격증 여부에 관계없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있는 경우 자격증 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베이비시터 무료교육수료증이 3사례, 민간베이비시터 자격증이 1사례, 유아교육관련 전공자격증이 1사례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자격증은 단 1사례에 불과하다.

〈표 Ⅳ-25〉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의 연령, 학력, 자격증여부

구분		사례수	%
연령 (Mean=47.3세, SD=8.11)	29세 이하	5	2.8
	30-39세	22	17.6
	40-49세	74	50.0
	50-59세	61	26.1
	60세 이상	14	3.4
	전체	176	100.0
학력	고졸미만	15	8.5
	고졸	111	63.1
	대졸	28	15.9
	모름	22	12.5
	전체	176	100.0
자격증소지여부	있다	5	2.8
	없다	102	58.0
	모름	69	39.2
	전체	176	100.0

2) 베이비시터의 업무내용

현재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가 해주는 일에 대해 항목별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아이와 놀아주기’가 96.0%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아이 먹이기’로 90.9%이다. ‘아이 데리고 집근처 놀이터 가기’는 83.5%이며 ‘동화책 읽어주기’, ‘아이 씻기기’는 각각 79.5%, 76.7%로 역시 많은 수가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아이 식사준비’, ‘아이방·아이물건 정리정돈’, ‘아이 병원 데려가기’ 등이 60% 이상이 하고 있는 일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가 8.0%만이 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가족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일 전반’(13.1%), ‘기저귀 빨아 삶기’(18.8%), ‘아이를 돌봄시설에서 데려오고 데려다주기’(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이비시터가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것이 ‘가족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일 전반’으로 34.1%가 희망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로 전체의 19.9%가 해주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베이비시터의 업무가 아동을 돌보는 일이 주요 업무임에도 가사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베이비시터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와 베이비시터의 업무 영역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향후 베이비시터 인력관리 등에 있어서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경우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이용자의 희망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가사일은 주요 업무로 규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표 Ⅳ-26〉 베이비시터의 현재 업무내용 및 희망업무

(단위: 사례수(%))

구분	현재업무	희망업무
아이 먹이기	320(90.9)	2(0.6)
아이 씻기기	270(76.7)	14(4.0)
아이 식사준비(이유식 만들기 포함)	232(65.9)	12(3.4)
아이 젖병 소독 및 그릇 소독	150(42.6)	4(1.1)
기저귀 빨아 삶기	66(18.8)	6(1.7)
아이 옷 세탁	134(38.1)	10(2.8)
아이방·아이물건 정리 정돈	240(68.2)	10(2.8)
아이 학습관련 도움	188(53.4)	34(9.7)
아이와 놀아주기	338(96.0)	2(0.6)
동화책 읽어주기	280(79.5)	18(5.1)
아이 데리고 집근처 놀이터 가기	294(83.5)	2(0.6)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	28(8.0)	70(19.9)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	78(22.2)	12(3.4)
아이 병원 데려 가기	218(61.9)	20(5.7)
가족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 일 전반	46(13.1)	120(34.1)
없다	-	16(4.5)
전체	352(100.0)	352(100.0)

나. 베이비시터와 업체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기준

현재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해 이용시간, 비용, 양육방식, 성격, 전문성, 성실성, 지속성, 아이에 대한 애정 등의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우선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대체로 만족한다’가 48.9%, ‘보통이다’가 33.0%로 나타나 비용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낮아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방식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성격 또한 마찬가지다. 그 외 성실성, 지속성, 아이에 대한 애정

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측면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IV-27〉 고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

구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계
이용시간	28(15.9)	130(73.9)	14(8.0)	2(1.1)	2(1.1)	176(100.0)
비용	8(4.5)	86(48.9)	58(33.0)	22(12.5)	2(1.1)	176(100.0)
양육방식	19(10.8)	99(56.3)	53(30.1)	5(2.8)	-	176(100.0)
성격	32(18.2)	118(67.0)	26(14.8)	-	-	176(100.0)
전문성	8(4.5)	73(41.5)	89(50.6)	4(2.3)	2(1.1)	176(100.0)
성실성	43(24.4)	118(67.0)	15(8.5)	-	-	176(100.0)
지속성	34(19.3)	124(70.5)	18(10.2)	-	-	176(100.0)
아이에 대한 애정	31(17.6)	130(73.9)	13(7.4)	2(1.1)	-	176(100.0)

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22사례로 매우 소수이긴 하나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항목은 입회비용, 이용비용, 베이비시터관리감독,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내용,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 베이비시터관련 불만접수처리, 베이비시터 면접, 예약 등 이용규정, 안전사고시 보상책임 등이다. 전반적으로 응답이 ‘대체로 만족한다’와 ‘보통이다’가 많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은 낮은 편이다. 입회비용,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내용,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라고 하겠다. 이용비용, 베이비시터관련 불만접수처리, 안전사고시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28〉 이용하는 베이비시터업체에 대한 만족도

(단위: 사례수(%))

구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계
입회비용	-	5(22.7)	14(63.6)	3(13.6)	-	22(100.0)
이용비용	1(4.5)	10(45.5)	9(40.9)	2(9.1)	-	22(100.0)
베이비시터 관리감독	1(4.5)	9(40.9)	12(54.5)	-	-	22(100.0)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 내용	1(4.5)	8(36.4)	13(59.1)	-	-	22(100.0)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	2(9.1)	7(31.8)	13(59.1)	-	-	22(100.0)
베이비시터관련 불만접수처리	1(4.5)	12(54.5)	8(36.4)	1(4.5)	-	22(100.0)
베이비시터 면접, 예약 등 이용규정	1(4.5)	11(50.0)	9(40.9)	1(4.5)	-	22(100.0)
안전사고시 보상책임	1(4.5)	11(50.0)	9(40.9)	1(4.5)	-	22(100.0)

조사대상자 전체에 대해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결과 1순위로는 인성(37.1%), 베이비시터 경력(15.6%), 육아 경험(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는 인성(19.9%), 육아경험(19.2%), 전문성(14.3%)의 순이며, 3순위는 육아경험(17.1%), 전문성(16.8%), 인성(12.4%)의 순이었다.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장 고려하는 기준은 인성, 육아경험이며 전문성과 베이비시터 경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인성과 함께 아동을 돌보는데 필요한 전문성이나 시터로서의 경력은 베이비시터의 교육이나 자격관리 등에 참고하여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베이비시터 고용 시 사전면접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표 Ⅳ-30>) 매우 필요하다는 44.0%가 찬성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편이다에 54.7%가 찬성하고 있어 대다수가 사전에 면접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베이비시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

(단위: 사례수(%))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학력	66(6.6)	36(3.6)	31(3.1)
베이비시터 경력	156(15.6)	140(14.0)	88(8.8)
인성	371(37.1)	199(19.9)	123(12.4)
육아관련 자격증 소지	40(4.0)	56(5.6)	111(11.2)
가정 환경	28(2.8)	77(7.7)	57(5.7)
연령	33(3.3)	49(4.9)	42(4.2)
육아경험	119(11.9)	192(19.2)	170(17.1)
비용	64(6.4)	60(6.0)	121(12.2)
전문성	94(9.4)	143(14.3)	167(16.8)
활동가능시간	28(2.8)	42(4.2)	80(8.0)
종교	-	2(0.2)	-
아이에 대한 애정	1(0.1)	2(0.2)	1(0.1)
외모인상	-	1(0.1)	1(0.1)
전체	1,000(100.00)	999(100.0)	995(100.0)

〈표 IV-30〉 베이비시터 고용 시 사전면접필요정도

구분	사례수	%
매우 필요하다	440	44.0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547	54.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업체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학력, 연령, 자격증, 교육관련내용, 건강진단서, 정신병력여부, 신원보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정신병력여부

(71.6%), 신원보증(69.3%), 건강진단서(62.1%)의 순이다.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에 대해 믿을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교육관련내용, 자격증 등이 학력이나 연령보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역시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해 학력보다는 교육과 자격증으로 판단하고자 함을 잘 보여준다(<표 IV-31> 참조).

〈표 IV-31〉 베이비시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정도

(단위: 사례수(%))

구분	매우 필요하다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학력	237(23.7)	612(61.2)	150(15.0)	1(0.1)	1,000(100.0)
연령	339(33.9)	562(56.2)	95(9.5)	4(0.4)	1,000(100.0)
자격증	454(45.4)	464(46.4)	81(8.1)	1(0.1)	1,000(100.0)
교육관련내용	543(54.3)	400(40.0)	57(5.7)	-	1,000(100.0)
건강진단서	621(62.1)	357(35.7)	22(2.2)	-	1,000(100.0)
정신병력여부	716(71.6)	276(27.6)	8(0.8)	-	1,000(100.0)
신원보증	693(69.3)	296(29.6)	11(1.1)	-	1,000(100.0)

<표 IV-32>는 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학력, 자격증, 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정신병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등 관련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베이비시터관련 정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관련 증명서를 받는데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증명서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순서를 보면 정신병력증명서(69.2%), 신원보증서(68.2%), 건강진단서(62.1%)의 순이다. 이를 보면 정보제공과 더불어 동일한 항목에 대해 베이비시터에 대한 근거자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관련 증명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27.5%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시터의 최종학력보다는 자격증이나 교육이수증명서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을 돌보는데 학력보다는 자격증이나 교육이 더 신뢰할만하며 정신병력, 건강, 신원보증 등을 더 중시하고 있어 향후 베이비시터인력관

리에 참고할 사항이라 하겠다.

〈표 IV-32〉 베이비시터 지원자 증명서 필요 정도

(단위: 사례수(%))

구분	매우 필요한다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학력	275(27.5)	550(55.0)	172(17.2)	3(0.3)	1,000(100.0)
자격증	431(43.1)	476(47.6)	92(9.2)	1(0.1)	1,000(100.0)
교육수료증	514(51.4)	417(41.7)	68(6.8)	1(0.1)	1,000(100.0)
건강진단서	621(62.1)	341(34.1)	38(3.8)	-	1,000(100.0)
정신병력진단서	692(69.2)	284(28.4)	24(2.4)	-	1,000(100.0)
신원보증서	682(68.2)	289(28.9)	29(2.9)	-	1,000(100.0)

5. 요약 및 소결

이상에서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형태 유
요가정보육관련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995
명, 아동의 아버지가 5명이며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는 한부모가족이었다. 응
답자의 연령은 평균 33.9세이며 30대가 대부분이며 학력은 대졸이 55.9%, 고
졸이 42.7%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취업자는 40.4%, 비취업자는 59.6%
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 아동의 아버지가 응답한 경우는 모두 취업
자였다. 고용형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72.4%, 자영업이 26.5%
이며 남성은 5명 중 3명이 임금근로자이며 2명이 자영업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6.17시간이며 40시간-50시간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8.4%
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시간-60시간으로 20.9%이다. 출퇴근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출근시간은 9시 45분, 퇴근시간은 18시 41분으로 대체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7시 사이에 일하는 근로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는 평
균 자녀수가 1.66명이며 자녀가 2명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녀의 연령별 분
포는 6세 이상이 23.2%로 가장 많고 다음이 4세(17.3%), 5세(16.4%)의 순이

다. 응답자의 배우자는 평균 연령이 36.4세이며 30-39세가 50.4%로 가장 많아 30대 연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은 대졸이 68.9%로 가장 많으며 경제활동은 98.9%가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가 77.5%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분포는 180만원-350만원 미만인 경우 45.9%, 350만원-500만원 미만이 41.0%로 나타났다.

아동돌봄형태를 분석한 결과 직접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가 98.4%, 시설돌봄 57.4%, 유료가정돌봄 15.0%, 친인척돌봄은 8.1%로 나타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설돌봄은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으며 유료가정돌봄 이용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2세 아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접돌봄과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시설돌봄은 100만원-150만원 미만소득자의 경우가 가장 이용률이 높았으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다가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다시 이용률이 올라간다. 유료가정돌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친인척돌봄은 소득이 중간인 경우에 이용률이 높았다. 월평균가구소득과 돌봄형태의 관계를 보면 직접돌봄은 가구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가정돌봄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설돌봄은 가구소득이 350만원-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장 해당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이 180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였다.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살펴보면 오전시간대에 직접돌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낮시간대에 시설돌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근시간대를 기점으로 직접돌봄이 줄어들고 있어 취업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오후 2-3시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 직접돌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에 보내는 비중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료가정돌봄의 경우 10시에서 6시 사이에 10%대의 이용비율을 보이고 있어 낮시간대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연령별로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를 보면 1세 이하의 경우 직접돌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돌봄을 제외하고 다른 돌봄형태를 비교하면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친인척돌봄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낮시간대 시설돌봄과 유료가정돌봄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시설돌봄보다 유료가정돌봄형태가 약간 더 높았다. 2세 아동은 1세 이하 아동과 마찬가지로 시설돌봄은 대략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오후 5시 사이에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대는 직접돌봄을 하거나 직접돌봄이 어려운 경우 유료가정돌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세와 4-5세 아동은 2세 이하 아동과 비교하여 낮시간대 시설돌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차이점이다. 친인척돌봄은 다른 연령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적으며 특히 4-5세 아동은 매우 적었다.

취업상태와 아동 연령별 돌봄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높고 비취업자는 직접돌봄비율이 높다는 점이 명백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로 일하는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취업자의 경우 시설돌봄이용비율이 50% 이상이며 유료가정돌봄의 비율도 약 25%정도로 1/4수준이다. 반면 비취업자는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취업자에 비해 직접돌봄 이용비율이 대체로 더 높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비취업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시설돌봄 이용비율이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직접돌봄의 비율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것은 교육이 주요 목적이며 돌봄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친인척돌봄은 비취업자는 이용비율이 매우 낮으며 취업자는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비취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자의 경우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돌봄형태 가운데 가용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친인척돌봄의 경우 오후 5시 이후 시간에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무시간이 돌봄시설 이용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유료가정돌봄의 경우도 오후 7시 이후에는 시설돌봄보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시설돌봄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형태별 선택사유로는 우선 직접돌봄의 경우 1순위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가 높았으며 2순위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시설에 보내는 이유는 1순위로는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

유는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가 가장 높았다. 시설에 보내고 있음에도 유료가정돌봄을 이용하는 이유는 “돌봄시설이용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돌봄형태 선택 사유를 종합하면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유료가정돌봄 등 개별 보육을 선호하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과 교육적 효과 등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시설을 보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담당자는 친인척의 경우 아동의 조부모가 가장 많으며 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유치부의 순이었다. 유료가정돌봄은 이웃 등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가장 많아 업체보다는 주로 믿을만한 주변의 소개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형태별 이용비용에서 친인척돌봄비용은 월평균 비용이 23만 8천원이며 30만원-50만원 사이인 경우가 전체의 25.2%로 가장 많다. 시설돌봄의 월평균이용비용은 26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30만원-50만원 미만이 43.2%로 가장 많았다. 유료가정돌봄은 아이돌보미와 유료베이비시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아이돌보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모두 28건이고, 월평균이용비용은 16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 이용자는 월평균 이용비용이 66만 9천원으로 다른 돌봄형태에 비해 가장 지출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이용비용에서 최고액수를 살펴보면 친인척돌봄이 100만원, 시설돌봄이 88만원, 아이돌보미가 40만원, 베이비시터가 180만원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장 저렴하고 베이비시터가 가장 비싸다. 평균액수도 아이돌보미가 가장 낮으며 가장 비싼 것은 베이비시터이다. 즉 친인척돌봄의 평균비용은 베이비시터와 시설돌봄 다음 순위이지만 실제 가장 고액이 100만원으로 나타나 이용비용에 편차가 심하여 각 개인에 따라 시설이나 아이돌보미에 비해 더 비쌀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현재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베이비시터의 평균 연령은 47.3세이며 학력은 고졸이 대부분이었다. 자격증은 없는 경우가 58.0%로 나타나 대다수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내용을 보면 “아이와 놀아주기”(96.0%)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아이 먹이기”로 90.9%였다.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가사일 전반”이 가장 많고 다음이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를 꼽았다. 이를 보면 아동돌봄이 주요 업무인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사일도 해주기

를 원하고 있어 베이비시터와 이용자 간에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시터에 대해 가장 고려하는 기준은 인성, 육아경험이며 전문성과 베이비시터 경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었다. 또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업체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정보와 관련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력, 연령, 자격증, 교육관련내용, 건강진단서, 정신병력여부, 신원보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관련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을 보면 정신병력여부, 신원보증, 건강진단서 등으로 이를 보면 베이비시터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관련내용, 자격증 등이 학력이나 연령보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역시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해 학력보다는 교육과 자격증으로 판단하고자 함을 잘 보여준다.

돌봄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을 고려한 가정내 돌봄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의 취업여부와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따라 아동돌봄 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 친인척돌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 오전 이른 시간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가정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와 아동의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민간 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이용의 경우 돌봄과 교육적 효과 두 가지 모두 충족되기를 희망한다는 점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유료베이비시터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가족내 아동 돌봄 지원 방안

- | | |
|------------------|-----|
| 1. 기본 방향 | 133 |
| 2.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방안 | 136 |

이상에서 한국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에서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이슈가 제기되는 배경 및 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해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가정 보육제도와 가정 보육 인력으로서 베이시시터 관련 제도에 대해 개괄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가족내 아동돌봄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국 및 외국의 정책현황과 이슈, 가족내 아동돌봄형태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돌봄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기본 방향

우선 가정내 아동돌봄지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지원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임을 밝히면서 가정내 아동돌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V-1>은 한국의 아동돌봄 형태에 대하여 시설 대 가정내 보육, 공공영역 대 민간영역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시설과 가정내 보육은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공공영역 대 민간영역은 시설 설립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재원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을 나누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가정내 보육은 공적 영역에서는 최근에 시작된 돌봄 형태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2006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8년 전국 65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 민간비영리단체가 공공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단위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을 뿐 공적 영역에서 가정내 보육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민간영역의 가정내 보육은 역시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알선에 그치고 있는 베이비시터 업체 문제,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영역이다. 특히 민간영역의 가정내 보육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아동돌봄 지원방안에서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그러나 시설보육과 더불어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시설보육에 대한 수요와 가정내 보육은 상호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수요로, 보육정책의 틀 안에서 대체관계로 설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시설에 보내지 않고 있는 가구의 경우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 보육 수요자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현재 영아보육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서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정내 보육에 대해 시설보육의 대체라기보다 보완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 V-1>에서 보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보육 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수요대비 공급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및 인력관리 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표 V-1〉 아동돌봄형태별 제도화 방향

구분		공적 영역(Public)	민간 영역(private)
시설 (Institution-Based Child Care)	현재	- 시설평가인증 - 보육교사 자격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 시설평가인증 - 보육교사 자격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
	향후	- 접근성 강화 - 서비스질의 향상	- 접근성 강화 - 서비스 질의 향상
가정내 보육 (Home-Based Child Care)	현재	없음	없음
	향후	- 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인력관리 - 공적 공급체계	- 규제 및 감독 - 서비스 인력관리

첫째, 아동돌봄서비스의 위상이 시설돌봄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모들의 아동돌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즉, 국가 보육정책에서 보육시설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그 이외 서비스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한 선택권 보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다. 그러므로 인력의 양성, 자격 부여,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돌봄인력에 대해 공식적인 자격부여 기관도 없으며, 사후관리도 개별 사업 주체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장기적으로 아동돌봄이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개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현재 공공 영역과 민간비영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YMCA아가야 등은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또 정규적인 아동돌봄서비스가 아닌 시간제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충족되지 못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해 민간영리업체가 들어와 있으며, 업체를 통한 아동돌봄도우미가 아닌 주변이나 이웃의 소개로 아동돌봄도우미를 구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공적영역이나 민간비영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뢰할만하나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적으며 민간영리업체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등의 이유로 이용하기를 꺼리고 있어 대부분 주변에서 믿을만한 도우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에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아동돌봄도우미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민간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질 관리를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을 때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개별적인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가구이다. 부모의 선택권과 형평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보육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모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공보육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소득에 기준한 지원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정내 아동돌봄 지원방안

가. 아동돌봄서비스 다양화

가족내 아동 돌봄 이용실태 조사에서 하루시간대별 아동 돌봄 형태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을 고려한 돌봄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근무시간에 따라 아동돌봄 형태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오전 이른 시간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 시설돌봄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보다는 재가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이외의 돌봄형태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유료베이비시터에 대해 전문성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점, 채용시 선정기준으로 학력보다는 경력과 교육이수경험을 꼽고 있다는 점은 아동 돌봄지원에 대해 단순한 돌봄 이외에 교육적 효과를 함께 기대하는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시설돌봄의 보완재로서 재가돌봄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서비스 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24시간 보육, 주야간 보육 등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시간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낮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돌봄 이외에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공적영역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종일제 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정책에서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상시적으로 유료가정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 보다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에 대한 가정내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아동돌봄으로 인해 취업에 제약이 될 경우 가구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장시간 근로나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정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더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의 가정내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비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유료가정보육은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은 비용부담 때문에 유료가정보육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측면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비용이 가장 저렴하였고 친인척돌봄, 시설돌봄의 순이었다. 친인척돌봄은 개인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형태로서 향후 가족내 아동돌봄지원의 대안으로 제안할 수 없는 돌봄형태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시설이용시간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득수준에 맞는 가정내 돌봄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유료가정돌봄 서비스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 다양화되어야 하며 이용료 또한 소득수준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유료베이비시터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주말, 공휴일 등에서 서비스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시간대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유료가정돌봄시장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규제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등록가정보육사제도는 등록한 가정보육사를 이용할 경우에만 아동의 부모에게 소득공제 및 보육료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가정보육사에 대해 일정 정도 관리감독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5인 이하의 아동을 본인의 집에서 돌보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게 하고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지역사회 아동돌봄도우미를 관리 감독하는 동시에 수요와 공급을 중개해 준다면 민간 영역의 아동돌봄도우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경우 월단위로 가정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다. 수혜자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돌봄시설 이용시간의 돌봄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싼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해당 아동당 총 지원액수를 정한 뒤에 시설과 유료가정보육서비스를 총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아동돌봄 인력 관리 및 비용지원 방안⁵²⁾

먼저, 돌봄도우미 인력 관리 차원이다. 아동돌봄인력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에게 개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자로 규정한다. 인증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사업 주체나 이들 단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면 좋겠으나 이를 필수 자격 조건으로 하지는 않고, 단기교육을 통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준고령 여성도 심신이 건강하면 일정 교육과정 이수 후에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아동돌봄인력의 근로와 처우에 대해 단기적 방안으로는 급여는 정해진 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액으로 정하는 일시 고용의 형태로 하며 시간제, 종일제 등 여러 유형별로 처우 수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그러나 돌봄인력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의 범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정도이다. 장기적으로는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해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⁵³⁾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한다. 종일제는 입주도 기능하도록 한다. 아이를 돌보는 장소는 아이의 집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돌봄인력은 자신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수를 최소 2인으로 제한한다. 이들은 가정 이외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고, 기타 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별도 장소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는 특정집단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보육시설 이용과 같이 저소득 취업모에 우선순위를 둔다.

돌봄인력 파견 후 부모와 이들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52) 돌봄 인력 제도화 방안은 서문희 외(2007)의 「한국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53) 아동돌봄도우미에 대해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장혜경 외, 근간, 돌봄노동종사자의 근로실태와 선진사례 연구, 노동부 용역사업),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근로자로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방법, 우선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다양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록 한다. 매일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기보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돌봄도우미 이용비용 지원이다. 돌봄 비용은 시간제, 종일제, 월 단위 등 다양하게 설정되는데, 비영리 부분은 이를 적용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경우 기준액이 된다. 영리 업체 비용의 경우 상한선을 두거나 제한하지 않고 자율 상태에 맡긴다. 정부가 보육도우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소득수준을 세 단계로 구별하여 차등하여 적용하고, 이러한 비용 차등 지원은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이원화하여 지원하는 최대 시간에 차이를 둔다.

참고문헌

- 곽인숙·홍성희. 2000. “기혼취업남녀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71-183.
- 권경옥. 2005. “3교대근무 병원 간호사의 자녀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혜. 1998.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자녀보육 실태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경. 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김지경. 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김현숙. 2007.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 김혜란. 2005. 여성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 및 효과성 평가: 경기지역 여성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43, 179-199.
- 노동부. 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08. 「2008년 업무계획」.
- 민혜운. 2003. “기혼 취업여성의 보육실태와 직장보육시설 요구도 조사: 수도권내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2003.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취업모의 보육현황과 보육 욕구도 조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장하. 2007. “맞벌이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어린이집 접근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백혜리. 2004. “부천시 공장지역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논집*」. 16, 283-309.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6. 7. 8.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9. 4.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통계」.
- 보건복지가족부. 2007. 「2007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서문희. 2008. “가정내 보육사업을 통해 본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활성화 방안”.
경기 북부 보육발전심포지엄. 경기도 · 경기도북부보육정보센터.

서문희 외. 2007. 「한국의 베이비시터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서문희·이상현 2002. 「영리보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외. 2005. 「보육·교육이용 및 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승민. 2006. “프랑스와 한국의 보육 체계 비교: 보육 정책과 보육료 지원을 기준
으로”. EU학 연구. 11(1): 73-97.

여성가족부. 2007. 「아이돌보미 사업 지침」.

여성가족부. 2008. 「2008년 보육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8. 2. 14.

유길상. 2006.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추세와 시사점: 호주 · 미국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4): 1-25.

육아정책개발센터. 2008.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2008」.

이옥. 2000.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23: 1-24.

이옥 · 노성향 · 유정희. 2004.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부.

임운옥. 2007. 「효과적인 보육지원서비스를 위한 제안」. 한국여성노동사회.

장혜경 · 홍승아 · 김영란 · 이상원 · 강은화 · 김고은. 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 김혜영 · 홍승아 외.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영국 · 프랑스 · 호주 · 핀란드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장혜경 · 김영란 · 조현각 · 김고은 · 박경희. 2007.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형준 · 이만우. 2006.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의 타당성: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21(1): 207-234.

조성은. 2007.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성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조운영 · 김정호. 2008.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KDI정책포럼. 제195호

(2008-7).

조정신·황성원. 2004.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제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 36: 45-72.

정민자 외. 2006.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부.

지성애·백선희·채영란. 2007. “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제도”. 『유아교육 연구』. 27(5): 135-155.

최재성·장신재. 2001.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서 조명한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제도의 성격에 관한 소고”. 『한국아동복지학』. 11(1): 125-150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연보』.

한지혜(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교육이론과 실천』. 제 12권. 제1호.

日本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の あゆみ.

日本 社団法人 全國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7). 2006년 베ビーシッター實態調査 報告書.

日本 社団法人 全國 베ビー시ッター協會(2007). 베ビー시ッター利用 가이드.

日本 財団法人 こども未來財團(2007). 베ビー시ッター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ILO. 2004. Government Programmes in France: National Family Allowance Office. www.ilo.org

Fagnani. 2004. France. in M. Fine-Davis etc. (ed.). *Fathers and Mothers: Dilemmas of the Work-life Balan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6. “Characteristics of Infant Child Care: Factors Contributing to Positive Caregiv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269-306.

Martin, C. A. Math, & E. Renaudat. 1998. Caring for very Young Children and Dependent Edlderly People in France: Towards a Commodification of Social Care? in J. Lewis (ed). *Gender, Social Care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Europe*. Aldershot. Ashgate. pp.139-174.

Morgan, G. et a.l. 2001. Non-Licensed Forms of Child Care in Homes: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State Support.

Shriner, M., Schlee, B. M., Mullis, R. L., Cornille, T. A., & Mullis, A. K. 2008. "Family Home Childcare Providers: A Comparison of Subsidized and Non-subsidized Working Environments and Employee Issue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8(2): 165-176.

U.S. Census Bureau,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Winter 2002.

Wilson, V., Hall, S. & Davidson, J. 2007. "Do the Benefits Justify the Costs?: An Evaluation of the 'Sitter Service' in Scotland". *Children & Society*. 21: 214-227.

http://a257.g.akamaitech.net/7/257/2422/12feb20041500/edocket.access.gpo.gov/cfr_2004/julqtr/pdf/29cfr552.1.pdf

<http://www.americannannantjobsrarch.com>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3.html

<http://www.dhs.ri.gov/dhs/famchild/dcspgm.htm>

http://www.michigan.gov/dhs/0,1607,7-124-5453_5529---,00.html

<http://www.nannytax.co.uk/nannies/advice/payevenefits.html>

<http://www.nanny.org>

<http://www.ofsted.gov.uk/portal/site/internet/menuitem.f08cb1ee8076>

<http://www.suffolk.gov.uk>



부 록

1. 설문지	147
2. 조사결과표	157

<부록 1> 설문지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3-17 동양빌딩 TEL: 02-2188-9500 FAX: 02-6289-3702 dsr@dsrgroup.co.kr, http://www.dsrgroup.co.kr

ID

2008 가정보육실태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내의 가족정책센터의 의뢰로 **돌봄노동 전달체계 및 노동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돌봄(care)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케어워커의 노동 실태를 알아보기** 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돌봄노동 전달체계 및 케어워커의 노동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 기관의 응답은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만 사용되며, 그 외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도움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년 6월 (주) 동서리서치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KIPF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원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동서리서치

담당연구원 문병훈 (02) 2188-9653

설문조사에 앞서 표본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 | | | |
|-------|---------|---|
| SQ 0) | 자녀의 나이 | 1. 만 5세 이하 ☐ 조사 진행
2. 만 6세 이상 ☐ 조사 종료 |
| SQ 1) | 자녀와의 관계 | 1. 어머니 2. 아버지(어머니가 없는 경우만 해당) |
| SQ 2) | 소재지 | 1. 서울 () 구
2. 인천 () 시/군
3. 경기 () 시/군 |
| SQ 3) | 보육형태 | 1.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2. 기타 유료가정보육
3. 시설보육 4. 친인척보육
5. 직접보육 |

면 접 후 기 록 (면접원이 기입)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유선)	
응답자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면접일시	2008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면접원성명	(ID :)	슈퍼바이저	
에디터		검증원	

가족환경 일반

문6-1)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문1) ○○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명)

문2) ○○님 자녀들의 성별과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연령 관계없이 모든 자녀)

	성별	연령	장애여부
2-1) 첫째 자녀	① 남 ② 여	만 세	① 있다 ② 없다
2-2) 둘째 자녀	① 남 ② 여	만 세	① 있다 ② 없다
2-3) 셋째 자녀	① 남 ② 여	만 세	① 있다 ② 없다
2-4) 넷째 자녀	① 남 ② 여	만 세	① 있다 ② 없다

문3) ○○님께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동거
2. 비동거
3. 배우자 없음

문4) ○○님이 현재 같이 살고 계신 가족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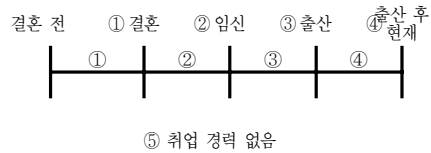
1. 배우자
2. 자녀
3. 본인의 아버지
4. 본인의 어머니
5. 배우자의 어머니
6. 배우자의 아버지
7. 배우자의 어머니
8. 기타

문5) ○○님께서는 지난 1주간 경제활동과 양육 중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1. 경제활동(→문5-1로 이동)
2. 가사 또는 양육(→문6으로 이동)
3. 기타(→문6으로 이동)

질문	보기
5-1) ○○님의 고용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 ② 내 사업 ③ 가족의 사업을 보수 없이 도움
5-2) 지난 3개월 간 ○○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간/1주)
5-3) ○○님이 근로하시는 시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 ~ (시) (오후 9시면 21시로 기재)

문6) **〈어머니의 경우만 응답〉** 결혼, 임신, 출산 전후의 직장 생활 경력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전후 시기에 각각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에 표시해주세요.)



문6-2) **〈취업 경력 있는 경우〉** ○○님의 현재까지 총 직장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 문7)부터 문7-3)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문3의 1, 2 응답자)만 응답

문7) ○○님의 배우자는 지난 1주간 경제활동과 양육 중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1. 경제활동 (→문7-1로 이동)
2. 가사 또는 양육 (→문7으로 이동)
3. 기타 (→문7으로 이동)

질문	보기
7-1) ○○님의 고용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회사나 타인의 사업에 고용 ② 내 사업 ③ 가족의 사업을 보수 없이 도움
7-2) 지난 3개월 간 ○○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간/1주)
7-3) ○○님이 근로하시는 시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 ~ (시) (오후 9시면 21시로 기재)

보육 실태 관련1- 5세 이하 첫번째 자녀

※ 다음부터는 5세 이하 첫번째 자녀의 보육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자녀 1인에게 해당되는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SQ4) 5세 이하 첫번째 자녀의 나이 (세)

문8) ○○님께서 자녀를 보육하는 형태는 무엇인지 다음 중 모두 선택해주세요.

보육형태	① 해당	② 비해당
8-1) 본인 또는 배우자 보육	①	②
8-2) 친인척 보육(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등 친척)	①	②
8-3) 시설 위탁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과외교습학원 제외)	①	②
8-4) 유료 가정보육 (유급으로 베이비시터나 주부인, 돌보미 등)	①	②

문9) ○○님 자녀의 일과시간에 따라 보기에 제시된 보육형태를 적어주십시오.

하루 일과 시간	보육형태	보육 세부 담당자
오전 8~9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전 9~10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전 10~11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전 11~12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12~1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1~2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2~3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3~4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4~5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5~6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6~7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7~8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8~9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오후 9~10시	① 직접보육 ② 친인척 보육 ③ 시설보육 ④ 유료 가정보육	

※ 문10)부터 문10-1-1)까지는 직접 보육하는 경우(문8-1의 1번 해당지)만 응답

문10) ○○님께서 자녀를 직접 돌보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2.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3. 시설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4.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5.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6.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7. 보육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어서
8. 비용이 부담해서
9.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문10-1로 이동)
10. 기타()

문10-1) (문10이 9인 경우) ○○님이나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유상보육을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1. 예(→문10-1-1로 이동)
2. 아니오

문10-1-1) (문10-1이 1인 경우) ○○님께서 유료 보육을 이용하실 때 원하시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시설보육
2. 유료가정보육
3. 기타()

※ 문11)부터 문13)까지는 친인척 보육(문8-2의 1번 해당지)에 체크한 모두 응답

문11) ○○님의 자녀를 양육해주시는 친인척은 누구입니까?

1. 본인부모
2. 배우자의 부모
3. 본인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4.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5. 그 외 본인의 친척
6. 그 외 배우자의 친척
7. 기타()

문12) 친인척이 ○○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자녀가 거주하는 집
2. 친인척의 집
3. 기타()

문13) ○○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가로 드리는 용돈이나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첫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월)

※ 문14)부터 문16)까지는 시설 보육(문8-3의 1번 해당지)에 체크한 모두 응답

문14) ○○님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어린이집
2. 놀이방
3. 유치원
4. 학원 유치부
5. 기타()

문15) ○○님께서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2. 비용이 저렴하므로
3. 근무시간과 시설보육시간이 맞아서
4.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6.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재교구들이 다양하고 많아서
7. 자질있고 신뢰할 만한 베이비시터를 못찾아서
8. 베이비시터는 시설에 비해 지속적이지 못해서
9. 기타()

문16) ○○님께서 아이 한 명을 시설에 맡기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첫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월)

※ 문17)부터 문26-1)까지는 유료 가정보육(문8-4의 1번 해당지)에 체크한 모두 응답

150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문17) **(이 문항은 시설해당자 제외)** ○○님께서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유료가정보육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시설을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2.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3. 시설에서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4.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어서
5.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6.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7. 시설 보육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어서
8. 무료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9.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10. 기타()

문18) ○○님의 자녀를 돌보는 유료 가정보육 담당자는 다음 중 누구입니까?

1.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문19로 이동)
2. 사설업체의 베이비시터(→문23으로 이동)
3. 이웃 등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문23으로 이동)
4. 기타() (→문23으로 이동)

※ 문19)부터 문22-1)까지는 유료 가정보육 중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이용자(문18의 1번 해당자)에 체크한 모두 응답

문19) ○○님께서는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십니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십니까?

1.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문20-1로 이동)
2.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한다(→문21-1로 이동)

문20-1) **(정기이용자)** ○○님께서는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전일제를 이용하십니까? 시간제를 이용하십니까?

1. 전일제(8시간)
2. 시간제(평균 이용 시간 : 시간/1회)

문20-2) **(정기이용자)** ○○님께서는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를 주당 몇 회 이용하십니까?

1. 주 2회 이하
2. 주 3회
3. 주 4회
4. 주 5회
5. 주 6회 이상

문20-3) **(정기이용자)** ○○님께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에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첫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월) (→문22로 이동)

문21-1) **(비정기이용자)** ○○님께서는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를 월평균 몇 회 정도 이용하십니까?

1. 월 2회 이하
2. 월 3~5회
3. 월 6~8회
4. 월 9~10회
5. 월 11회 이상

문21-2) **(비정기이용자)** ○○님께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시간은 1회 평균 몇 시간입니까?
(시간/회)

문21-3) **(비정기이용자)** ○○님께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에 지불하는 비용은 1회 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첫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회)

문22) ○○님께서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 2.
3. 보통이다
4. 불만족하는 편이다(→문22-1로 이동)
5. 매우 불만족한다(→문22-1로 이동)

문22-1) ○○님께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이용요금이 비싸서
2. 돌보미의 자질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3. 돌보미의 서비스 수준이 문제가 있어서
4. 이용 및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서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돌보미 관리 및 감독을 신뢰하기 어려워서
6. 기타()

※ 문23)부터 문26-1)까지는 유료 가정보육 중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비이용자(문18의 2, 3, 4번 해당자) 응답

문23) ○○님께서는 유료베이비시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십니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십니까?

1. 기적으로 이용한다(→문24-1로 이동)
2.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한다(→문25-1로 이동)

문24-1) **(정기이용자)** ○○님께서는 유료베이비시터 전일제를 이용하십니까? 시간제를 이용하십니까?

1. 전일제(24시간)
2. 시간제(평균 이용 시간 : 시간/1회)

문24-2) **(정기이용자)** ○○님께서는 유료베이비시터를 주당 몇 회 이용하십니까?

1. 주 2회 이하
2. 주 3회
3. 주 4회
4. 주 5회
5. 주 6회 이상

문24-3) **(정기이용자)** ○○님께서 유료베이비시터에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첫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월) (→문26으로 이동)

문25-1) **(비정기이용자)** ○○님께서는 유료베이비시터를 월평균 몇 회 정도 이용하십니까?

1. 월 2회 이하
2. 월 3~5회
3. 월 6~8회
4. 월 9~10회
5. 월 11회 이상

152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1. 시설에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2.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3. 시설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4.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없어서
5.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6.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7. 보육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어서
8. 비용이 부담돼서
9. 부모 중 1인이 비취업자여서(→문30-1로 이동)
10. 기타()

문30-1) (문30의 9인 경우) ○○님이나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유상보육을 이용하실 의사에 있으십니까?

1. 예(→문30-1-1로 이동)
2. 아니오

문30-1-1) (문30-1의 1인 경우) ○○님께서 유료 보육을 이용하실 때 원하시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시설보육
2. 유료가정보육
3. 기타()

※ 문31부터 문33까지는 친인척 보육(문28-2의 1번 해당자)에 체크한 모두 응답

문31) ○○님의 자녀를 양육해주시는 친인척은 누구입니까?

1. 본인부모
2. 배우자의 부모
3. 본인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4.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5. 그 외 본인의 친척
6. 그 외 배우자의 친척
7. 기타()

문32) 친인척이 ○○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1. 자녀의 집
2. 친인척의 집
3. 기타()

문33) ○○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가로 드리는 용돈이나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두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월)

※ 문34부터 문36까지는 시설 보육(문28-3의 1번 해당자)에 체크한 모두 응답

문34) ○○님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어린이집
2. 놀이방
3. 유치원
4. 학원 유치부
5. 기타()

문35) ○○님께서 자녀를 시설에 보내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집근처에 시설이 있어서
2. 비용이 저렴하므로
3. 근무시간과 시설보육시간이 맞아서
4.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5. 또래들과 활동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6.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재교구들이 다양하고 많아서
7. 자질있고 신뢰할 만한 베이비시터를 못찾아서
8. 베이비시터는 시설에 비해 지속적이지 못해서
9. 기타()

문36) ○○님께서 아이 한 명을 시설에 맡기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두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월)

※ 문37부터 문46-1까지는 유료 가정보육(문28-4의 1번 해당자)에 체크한 모두 응답

문37) (이 문항은 시설해당자 제외) ○○님께서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유료가정보육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1. 시설을 보내기에 나이가 어려서
2. 집근처에 적당한 시설이 없어서
3. 시설에서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보기 때문에
4.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어서
5. 아이가 시설에 적응을 못해서
6.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7. 시설 보육교사의 자질을 믿을 수 없어서
8. 무료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9.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10. 기타()

문38) ○○님의 자녀를 돌보는 유료 가정보육 담당자는 다음 중 누구입니까?

1.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문39로 이동)
2. 사설업체의 베이비시터(→문43으로 이동)
3. 이웃 등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문43으로 이동)
4. 기타(→문43으로 이동)

※ 문39부터 문42-1까지는 유료 가정보육 중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이용(문38의 1번 해당자)에 체크한 모두 응답

문39) ○○님께서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실습니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실습니까?

1.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문40-1로 이동)
2.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한다(→문41-1로 이동)

문40-1) (정기이용자) ○○님께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전일제를 이용하실습니까? 시간제를 이용하실습니까?

1. 전일제(8시간)
2. 시간제(평균 이용 시간 : 시간/1회)

문40-2) (정기이용자) ○○님께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를 주당 몇 회 이용하실습니까?

1. 주 2회 이하
2. 주 3회
3. 주 4회
4. 주 5회
5. 주 6회 이상

문40-3) (정기이용자) ○○님께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에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5세 이하 두번째 자녀 1인 기준 (만원/월)(→문42로 이동)

154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문48)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가 하는 일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항목	① 한다	② 안한다
48-1) 아이 먹이기	①	②
48-2) 아이 씻기기	①	②
48-3) 아이 식사준비(이유식 만들기 포함)	①	②
48-4) 아기 젖병 소독 및 그릇 소독	①	②
48-5) 기저귀 빨아 삶기	①	②
48-6) 아이 옷 세탁	①	②
48-7) 아이방·아이물건 정리 정돈	①	②
48-8) 아이 학습관련 도움	①	②
48-9) 아이와 놀아주기	①	②
48-10) 동화책 읽어주기	①	②
48-11) 아이 데리고 집 근처 놀이터 가기	①	②
48-12)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	①	②
48-13)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기	①	②
48-14) 아이 병원 데려가기	①	②
48-15) 가족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 일 전반	①	②

문48-1-1)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가 하지 않는 일 중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위의 항목 중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1. 아이 먹이기
2. 아이 씻기기
3. 아이 식사 준비(이유식 포함)
4. 아기 젖병 소독 및 그릇 소독
5. 기저귀 빨아 삶기
6. 아이 옷 세탁
7. 아이방·아이물건 정리 정돈
8. 아이 학습 관련 도움
9. 아이와 놀아주기
10. 동화책 읽어주기
11. 아이 데리고 집 근처 놀이터 가기
12. 박물관, 문화센터 등 체험활동 함께 하기
13.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데려오고 데려다주기
14. 아이 병원 데려가기
15. 가족 빨래,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 일반
16. 기타()

문49)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최근 이용하신) 베이비시터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 세)

문50)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최근 이용하신) 베이비시터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고졸 미만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5. 모름

문51)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최근 이용하신) 베이비시터는 결혼을 했습니까?

1. 기혼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모름

문52)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최근 이용하신) 베이비시터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름

문53)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최근 이용하신) 베이비시터의 경력은 얼마나 됐습니까?

(년 개월)

문54)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최근 이용하신) 베이비시터는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있다(→문54-1로 이동)
2. 없다
3. 모름

문54-1)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가 가지고 계신 관련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

문55)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와 관련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55-1) 이용 시간	①	②	③	④	⑤
55-2) 비용	①	②	③	④	⑤
55-3) 양육방식	①	②	③	④	⑤
55-4) 성격	①	②	③	④	⑤
55-5)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55-6) 성실성	①	②	③	④	⑤
55-7) 지속성	①	②	③	④	⑤
55-8) 아이에 대한 애정	①	②	③	④	⑤

문56)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제외)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1. 주변의 소개
2. 평소 알던 지인
3. 베이비시터 사설 파견업체를 통해(→문56-1로 이동)
4.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중앙건강가정센터제외)
5. 기타()

- 문56-1) ○○님께서 이용하고 계신 베이비시터 사설 파견업체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1. 인터넷 정보 검색
 - 2. 지인, 친척 등 주변의 소개
 - 3. 육아정보사이트를 통해
 - 4.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정보망을 통해
 - 5. 종교기관의 소개로
 - 6. 기타()

문56-2) ○○님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시터 사설 파견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56-2-1) 입회 비용	①	②	③	④	⑤
56-2-2) 이용 비용	①	②	③	④	⑤
56-2-3) 베이비시터 관리 감독	①	②	③	④	⑤
56-2-4) 베이비시터 교육과 훈련내용	①	②	③	④	⑤
56-2-5)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원보증	①	②	③	④	⑤
56-2-6) 베이비시터 관련 불만 접수 및 처리	①	②	③	④	⑤
56-2-7) 베이비시터 면접, 예약 등 이용규정	①	②	③	④	⑤
56-2-8) 안전사고 시 보상 관련 책임	①	②	③	④	⑤

유료베이비시터 및 업체 관련(모두 응답)

※ 다음부터는 보육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주세요.

문57) ○○님께서 베이비시터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기준 요금이 다음과 같다면, 매주 평균 몇 회 몇 시간의 이용의사가 있으십니까?

요금 2시간 미만 기본 요금 적용)	주 평균 이용 횟수	1회 평균 이용 시간
57-1) 기본요금 2,000원, 추가 시간당 500원	회/1주	시간/1회
57-2) 기본요금 8,000원, 추가 시간당 3,000원	회/1주	시간/1회
57-3) 기본요금 10,000원, 추가 시간당 5,000원	회/1주	시간/1회
57-4) 기본요금 12,000원, 추가 시간당 6,000원	회/1주	시간/1회

- 문58) ○○님께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세요.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학력
 - 2. 베이비시터 경력
 - 3. 인성
 - 4. 육아 관련 자격증 소지
 - 5. 가정 환경

- 6. 연령
- 7. 육아 경험
- 8. 비용
- 9. 전문성
- 10. 활동가능 시간
- 11. 기타()

문59) ○○님께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사전 면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 2.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60) ○○님께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업체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60-1) 학력	①	②	③	④
60-2) 연령	①	②	③	④
60-3) 자격증	①	②	③	④
60-4) 교육 관련 내용	①	②	③	④
60-5) 건강진단서	①	②	③	④
60-6) 정신병력 여부	①	②	③	④
60-7) 신원 보증	①	②	③	④

문61) ○○님께서 베이비시터나 아이돌보미를 고용할 때 업체로부터 지원자에 대한 다음 정보의 증명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정도 필요한 편이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60-1) 학력	①	②	③	④
60-2) 연령	①	②	③	④
60-3) 자격증	①	②	③	④
60-4) 교육 관련 내용	①	②	③	④
60-5) 건강진단서	①	②	③	④
60-6) 정신병력 여부	①	②	③	④
60-7) 신원 보증	①	②	③	④

통계 처리 질문

DQ1) ○○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2)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대졸
- 4. 대학원졸 이상

DQ3) (배우자 있는 경우) ○○님 배우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156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DQ4) (배우자 있는 경우) ○○님 배우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 이상

DQ5) ○○님은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 전업주부(→DQ7로 이동)
2. 취업주부(→문DQ6으로 이동)
3. 파트타이머 주부(→DQ6으로 이동)

DQ6) ○○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00만원 미만
2. 100~150만원 미만
3. 150~200만원 미만
4. 00~300만원 미만
5. 300~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DQ7) 그렇다면 ○○님 닥의 월평균 총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80만원 미만
2. 180~350만원 미만
3. 350~500만원 미만
4. 500~700만원 미만
5. 7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조사결과표

1. 아동연령과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1〉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1세 이하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87.2	3.8	3.0	6.0
9~10시	77.8	4.3	9.0	9.0
10~11시	70.9	5.1	12.8	11.1
11~12시	70.1	5.6	12.8	11.5
12~1시	69.7	6.0	12.8	11.5
1~2시	70.5	6.0	12.4	11.1
2~3시	71.4	6.0	11.1	11.5
3~4시	71.4	6.4	10.7	11.5
4~5시	72.6	6.0	10.3	11.1
5~6시	76.5	6.0	7.3	10.3
6~7시	82.1	5.6	3.4	9.0
7~8시	88.9	3.8	2.1	5.1
8~9시	96.6	0.9	0.9	1.7
9~10시	97.0	0.9	0.4	1.7

〈부표 2〉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2세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80.6	4.8	5.7	8.8
9~10시	56.4	6.6	20.7	16.3
10~11시	44.1	7.0	30.4	18.5
11~12시	42.3	7.0	30.4	20.3
12~1시	41.4	7.5	30.4	20.7
1~2시	44.1	7.5	29.5	18.9
2~3시	45.8	7.5	28.2	18.5
3~4시	51.1	7.9	23.3	17.6
4~5시	57.7	8.4	16.3	17.6
5~6시	64.3	9.3	10.6	15.9
6~7시	76.2	7.9	3.5	12.3
7~8시	84.6	7.0	1.8	6.6
8~9시	90.7	5.3	0.4	3.5
9~10시	93.8	4.4	0.0	1.8

〈부표 3〉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3세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81.1	2.9	10.2	5.7
9~10시	38.9	2.9	47.5	10.7
10~11시	26.6	2.5	56.6	14.3
11~12시	25.8	2.5	57	14.8
12~1시	26.2	2.5	56.6	14.8
1~2시	27.5	2.5	54.9	15.2
2~3시	31.1	2.9	51.2	14.8
3~4시	44.7	3.7	38.1	13.5
4~5시	52.5	4.9	28.7	13.9
5~6시	59.8	5.7	21.7	12.7
6~7시	74.2	5.7	11.1	9
7~8시	88.9	3.3	3.3	4.5
8~9시	95.1	2	0.4	2.5
9~10시	96.3	1.6	0.0	2

〈부표 4〉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4~5세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78.1	1.6	17.5	2.9
9~10시	17.3	1.2	75.8	5.7
10~11시	6.1	0.7	86.6	6.6
11~12시	5.9	0.7	86.8	6.6
12~1시	6.1	0.5	86.5	7
1~2시	7.5	0.4	84.8	7.3
2~3시	15.7	1.1	75.6	7.7
3~4시	38.1	1.6	51.9	8.4
4~5시	53.5	2.3	36.0	8.2
5~6시	63.5	3.4	25.8	7.3
6~7시	78.6	4.8	11.1	5.5
7~8시	88.4	5.3	3.9	2.3
8~9시	93.2	4.6	0.9	1.2
9~10시	96.1	2.5	0.4	1.1

2. 취업여부와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5〉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취업자 자녀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59.4	6.7	21.1	12.9
9~10시	13.8	8.2	57	21.1
10~11시	3.2	7.5	64.7	24.5
11~12시	2.4	8	64.9	24.7
12~1시	1.7	8	64.9	25.4
1~2시	1.9	7.7	64.7	25.6
2~3시	2.8	8.6	63	25.6
3~4시	5.2	10.1	58.7	26.0
4~5시	8.8	11.6	53.1	26.5
5~6시	16.3	12.9	46.2	24.5
6~7시	43.7	14.4	21.9	20.0
7~8시	69.2	12.3	8.2	10.3
8~9시	84.3	8.6	1.9	5.2
9~10시	89.9	5.6	0.6	3.9

〈부표 6〉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비취업자 자녀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93.3	0.6	5.6	0.5
9~10시	54.7	0.1	42.9	2.2
10~11시	43.7	0.4	52.7	3.2
11~12시	43.1	0.2	52.8	3.9
12~1시	43.3	0.4	52.4	3.9
1~2시	45.6	0.4	50.6	3.5
2~3시	52.7	0.5	43.2	3.6
3~4시	72.7	0.5	23.6	3.2
4~5시	85.9	0.5	10.7	2.9
5~6시	93.8	1.0	3.0	2.2
6~7시	97.9	0.6	0.4	1.1
7~8시	98.8	0.7	0.1	0.4
8~9시	99.3	0.6	0.0	0.1
9~10시	99.4	0.5	0.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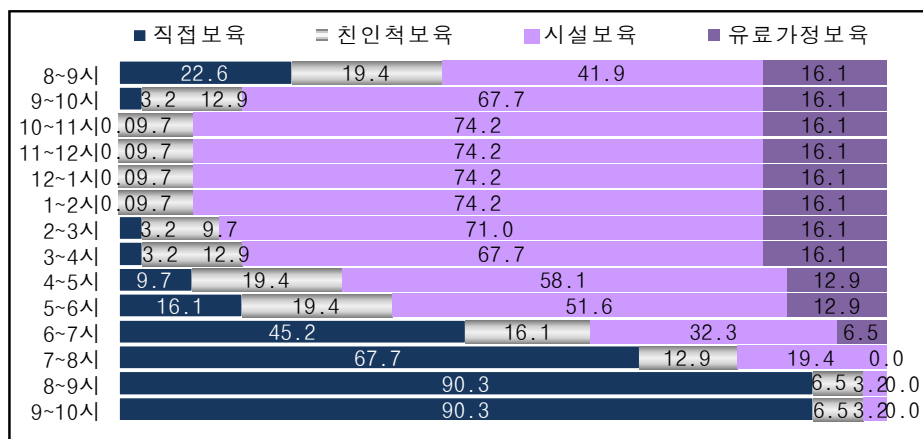
3. 취업자의 하루시간대별 아동돌봄형태

가. 출근시간과 돌봄형태

1) 출근시간과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7〉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출근시간-6시-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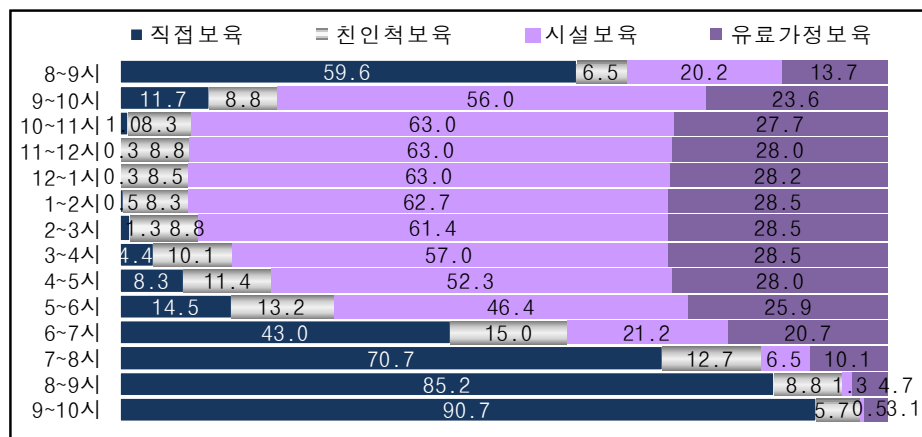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22.6	19.4	41.9	16.1
9~10시	3.2	12.9	67.7	16.1
10~11시	0.0	9.7	74.2	16.1
11~12시	0.0	9.7	74.2	16.1
12~1시	0.0	9.7	74.2	16.1
1~2시	0.0	9.7	74.2	16.1
2~3시	3.2	9.7	71.0	16.1
3~4시	3.2	12.9	67.7	16.1
4~5시	9.7	19.4	58.1	12.9
5~6시	16.1	19.4	51.6	12.9
6~7시	45.2	16.1	32.3	6.5
7~8시	67.7	12.9	19.4	0.0
8~9시	90.3	6.5	3.2	0.0
9~10시	90.3	6.5	3.2	0.0



〈부록 그림 1〉 6시- 8시 출근자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8〉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8시30분 - 10시 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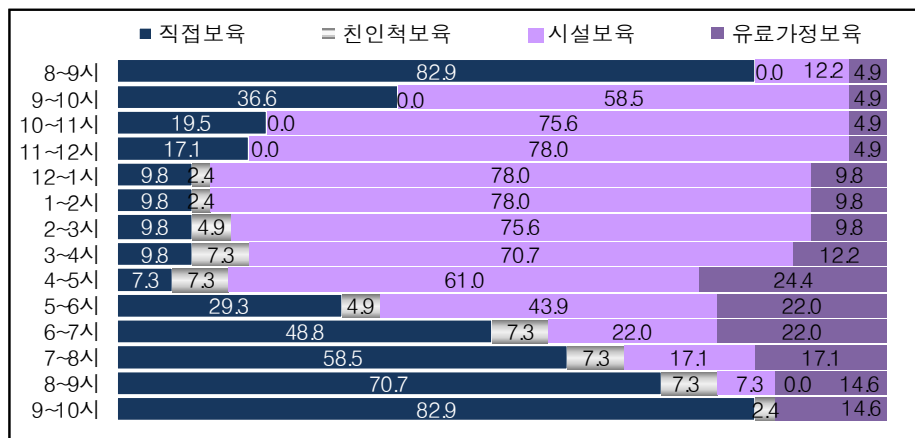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59.6	6.5	20.2	13.7
9~10시	11.7	8.8	56.0	23.6
10~11시	1.0	8.3	63.0	27.7
11~12시	0.3	8.8	63.0	28.0
12~1시	0.3	8.5	63.0	28.2
1~2시	0.5	8.3	62.7	28.5
2~3시	1.3	8.8	61.4	28.5
3~4시	4.4	10.1	57.0	28.5
4~5시	8.3	11.4	52.3	28.0
5~6시	14.5	13.2	46.4	25.9
6~7시	43.0	15.0	21.2	20.7
7~8시	70.7	12.7	6.5	10.1
8~9시	85.2	8.8	1.3	4.7
9~10시	90.7	5.7	0.5	3.1



〈부록 그림 2〉 8시30분-10시 출근자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9〉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11시~5시 출근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82.9	0.0	12.2	4.9
9~10시	36.6	0.0	58.5	4.9
10~11시	19.5	0.0	75.6	4.9
11~12시	17.1	0.0	78.0	4.9
12~1시	9.8	2.4	78.0	9.8
1~2시	9.8	2.4	78.0	9.8
2~3시	9.8	4.9	75.6	9.8
3~4시	9.8	7.3	70.7	12.2
4~5시	7.3	7.3	61.0	24.4
5~6시	29.3	4.9	43.9	22.0
6~7시	48.8	7.3	22.0	22.0
7~8시	58.5	7.3	17.1	17.1
8~9시	70.7	7.3	7.3	14.6
9~10시	82.9	2.4	0.0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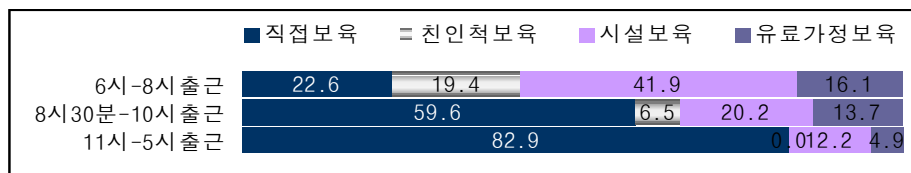


〈부록 그림 3〉 11시 이후 출근자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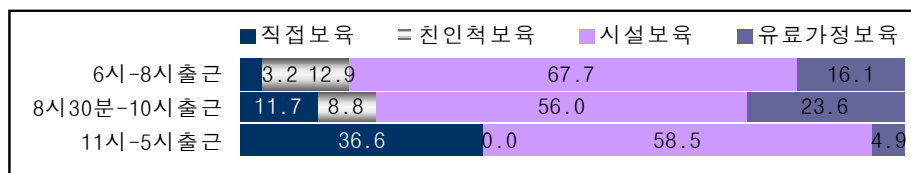
2) 출근시간대별 오전시간 돌봄형태

〈부표 10〉 출근시간대별 오전시간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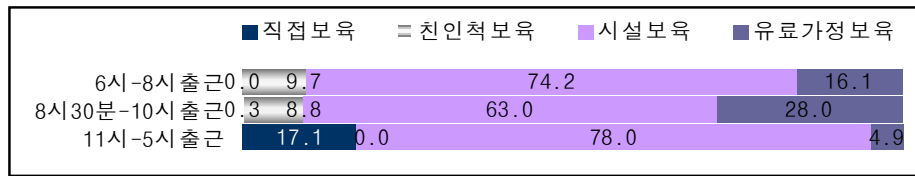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오전 8시-9시	6시-8시 출근	22.6	19.4	41.9	16.1
	8시 30분-10시 출근	59.6	6.5	20.2	13.7
	11시-5시 출근	82.9	0.0	12.2	4.9
오전 9시-10시	6시-8시 출근	3.2	12.9	67.7	16.1
	8시 30분-10시 출근	11.7	8.8	56.0	23.6
	11시-5시 출근	36.6	0.0	58.5	4.9
오전 10시-11시	6시-8시 출근	0.0	9.7	74.2	16.1
	8시 30분-10시 출근	1.0	8.3	63.0	27.7
	11시-5시 출근	19.5	0.0	75.6	4.9
오전 11시-12시	6시-8시 출근	0.0	9.7	74.2	16.1
	8시 30분-10시 출근	0.3	8.8	63.0	28.0
	11시-5시 출근	17.1	0.0	78.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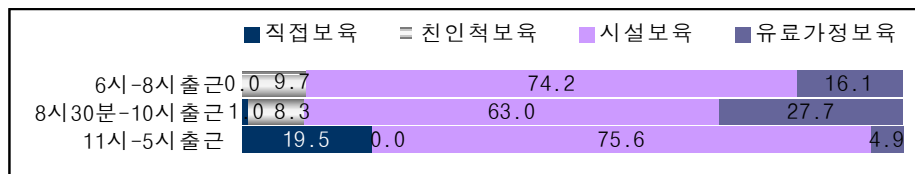
〈부록 그림 4〉 출근시간대별 오전 8시-9시 돌봄형태



〈부록 그림 5〉 출근시간대별 오전 9시-10시 돌봄형태



〈부록 그림 6〉 출근시간대별 오전 10시~11시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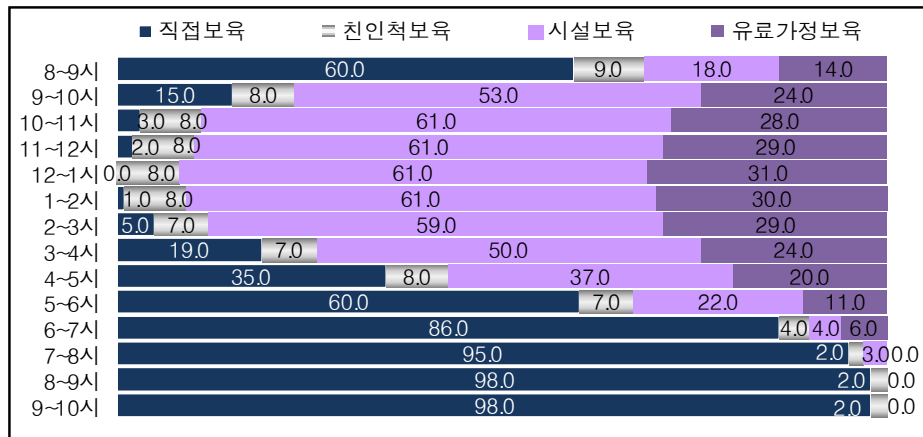
〈부록 그림 7〉 출근시간대별 오전 11시~12시 돌봄형태

나. 퇴근시간과 돌봄형태

1) 퇴근시간과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11〉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12시~5시 30분 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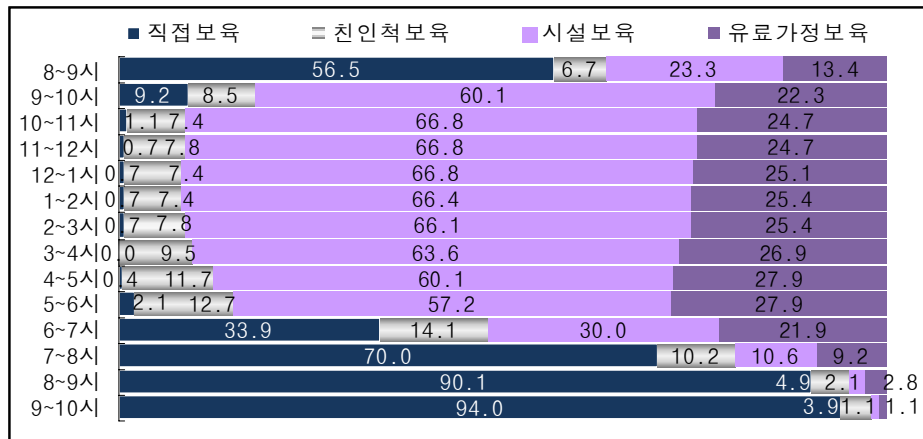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돌봄
8~9시	60.0	9.0	18.0	14.0
9~10시	15.0	8.0	53.0	24.0
10~11시	3.0	8.0	61.0	28.0
11~12시	2.0	8.0	61.0	29.0
12~1시	0.0	8.0	61.0	31.0
1~2시	1.0	8.0	61.0	30.0
2~3시	5.0	7.0	59.0	29.0
3~4시	19.0	7.0	50.0	24.0
4~5시	35.0	8.0	37.0	20.0
5~6시	60.0	7.0	22.0	11.0
6~7시	86.0	4.0	4.0	6.0
7~8시	95.0	2.0	3.0	0.0
8~9시	98.0	2.0	0.0	0.0
9~10시	98.0	2.0	0.0	0.0



〈부록 그림 8〉 12시~5시 30분 퇴근자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12〉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 6시~8시 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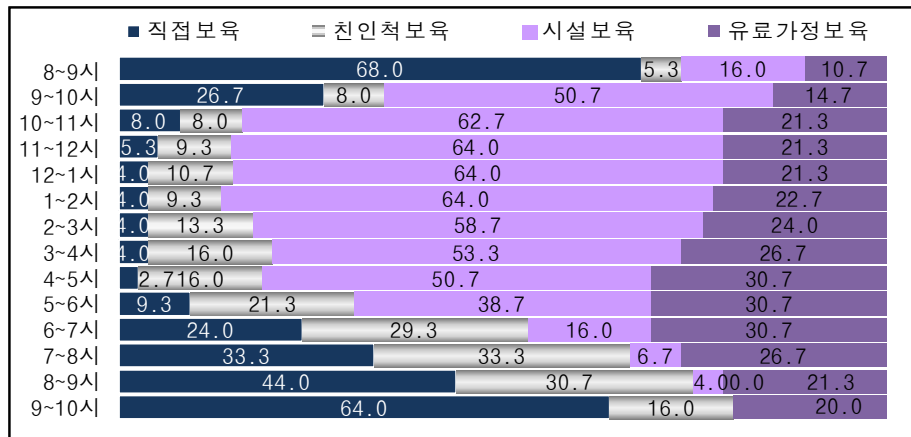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보육
8~9시	56.5	6.7	23.3	13.4
9~10시	9.2	8.5	60.1	22.3
10~11시	1.1	7.4	66.8	24.7
11~12시	0.7	7.8	66.8	24.7
12~1시	0.7	7.4	66.8	25.1
1~2시	0.7	7.4	66.4	25.4
2~3시	0.7	7.8	66.1	25.4
3~4시	0.0	9.5	63.6	26.9
4~5시	0.4	11.7	60.1	27.9
5~6시	2.1	12.7	57.2	27.9
6~7시	33.9	14.1	30.0	21.9
7~8시	70.0	10.2	10.6	9.2
8~9시	90.1	4.9	2.1	2.8
9~10시	94.0	3.9	1.1	1.1



〈부록 그림 9〉 6시~8시 퇴근자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부표 13〉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8시 이후 퇴근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보육
8~9시	68.0	5.3	16.0	10.7
9~10시	26.7	8.0	50.7	14.7
10~11시	8.0	8.0	62.7	21.3
11~12시	5.3	9.3	64.0	21.3
12~1시	4.0	10.7	64.0	21.3
1~2시	4.0	9.3	64.0	22.7
2~3시	4.0	13.3	58.7	24.0
3~4시	4.0	16.0	53.3	26.7
4~5시	2.7	16.0	50.7	30.7
5~6시	9.3	21.3	38.7	30.7
6~7시	24.0	29.3	16.0	30.7
7~8시	33.3	33.3	6.7	26.7
8~9시	44.0	30.7	4.0	21.3
9~10시	64.0	16.0	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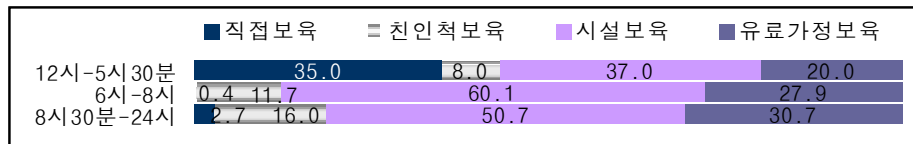


〈부록 그림 10〉 8시 이후 퇴근자의 하루시간대별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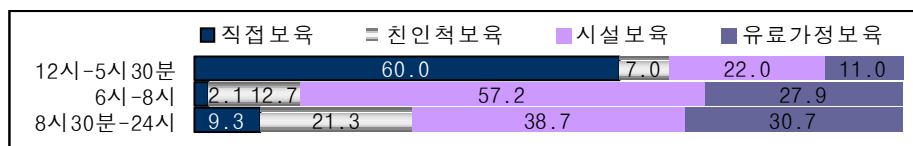
2) 퇴근시간대별 오후 시간 돌봄형태

〈부표 14〉 퇴근시간대별 오후시간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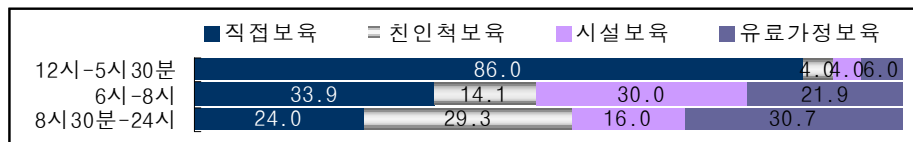
구분		직접돌봄	친인척돌봄	시설돌봄	유료가정보육
오후 4시~5시	12시~5시 30분	35.0	8.0	37.0	20.0
	6시~8시	0.4	11.7	60.1	27.9
	8시 30분~24시	2.7	16.0	50.7	30.7
오후 5시~6시	12시~5시 30분	60.0	7.0	22.0	11.0
	6시~8시	2.1	12.7	57.2	27.9
	8시 30분~24시	9.3	21.3	38.7	30.7
오후 6시~7시	12시~5시 30분	86.0	4.0	4.0	6.0
	6시~8시	33.9	14.1	30.0	21.9
	8시 30분~24시	24.0	29.3	16.0	30.7
오후 7시~8시	12시~5시 30분	95.0	2.0	3.0	0.0
	6시~8시	70.0	10.2	10.6	9.2
	8시 30분~24시	33.3	33.3	6.7	26.7
오후 8시~9시	12시~5시 30분	98.0	2.0	0.0	0.0
	6시~8시	90.1	4.9	2.1	2.8
	8시 30분~24시	44.0	30.7	4.0	21.3
오후 9시~10시	12시~5시 30분	98.0	2.0	0.0	0.0
	6시~8시	94.0	3.9	1.1	1.1
	8시 30분~24시	64.0	16.0	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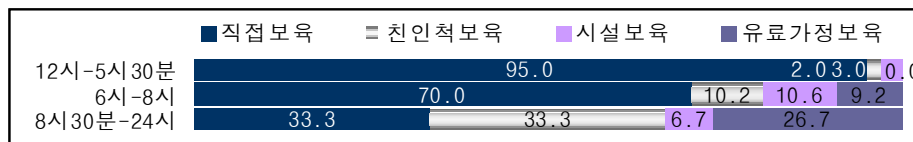
〈부록 그림 11〉 퇴근시간대별 오후 4시-5시 돌봄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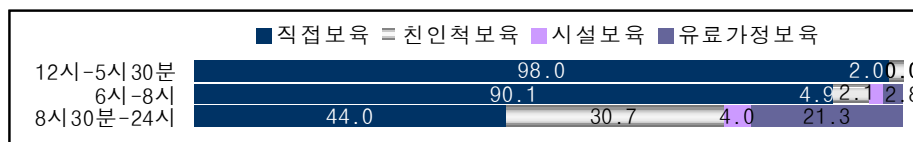
〈부록 그림 12〉 퇴근시간대별 오후 5시-6시 돌봄형태



〈부록 그림 13〉 퇴근시간대별 오후 6시-7시 돌봄형태



〈부록 그림 14〉 퇴근시간대별 오후 7시-8시 돌봄형태



〈부록 그림 15〉 퇴근시간대별 오후 8시-9시 돌봄형태

〈부표 17〉 3세 아동의 시간대별 보육담당자

구분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등 친척	어린이집 선생님	놀이방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베이비 시터	아이 돌보미	전체
오전 8시-9시	취업	65(62.5)	6(5.8)	-	16(15.4)	3(2.9)	2(1.9)	-	12(11.5)	-	104(100.0)
	비취업	133(65.0)	-	1(0.7)	3(2.1)	-	1(0.7)	-	2(1.4)	-	140(100.0)
오전 9시-10시	취업	14(13.5)	7(6.7)	-	43(41.3)	9(8.7)	7(6.7)	1(1.0)	22(21.2)	1(1.0)	104(100.0)
	비취업	81(57.9)	-	-	40(28.6)	4(2.9)	8(5.7)	4(2.9)	3(2.1)	-	140(100.0)
오전 10시-11시	취업	3(2.9)	6(5.8)	-	48(46.2)	9(8.7)	7(6.7)	1(1.0)	29(27.9)	1(1.0)	140(100.0)
	비취업	62(44.3)	-	-	51(36.4)	6(4.3)	9(6.4)	7(5.0)	4(2.9)	1(0.7)	140(100.0)
오전 11시-12시	취업	1(1.0)	6(5.8)	-	48(46.2)	10(9.6)	7(6.7)	1(1.0)	30(28.8)	1(1.0)	140(100.0)
	비취업	62(44.3)	-	-	51(36.4)	6(4.3)	9(6.4)	7(5.0)	4(2.9)	1(0.7)	140(100.0)
오전 12시-1시	취업	-	6(5.8)	-	48(46.2)	10(9.6)	7(6.7)	1(1.0)	31(29.8)	1(1.0)	140(100.0)
	비취업	64(45.7)	-	-	51(36.4)	6(4.3)	9(6.4)	6(4.3)	3(2.1)	1(0.7)	140(100.0)
오후 1시-2시	취업	-	6(5.8)	-	48(46.2)	10(9.6)	7(6.7)	1(1.0)	31(29.8)	1(1.0)	140(100.0)
	비취업	67(47.9)	-	-	50(35.7)	5(3.6)	8(5.7)	5(3.6)	3(2.1)	2(1.4)	140(100.0)
오후 2시-3시	취업	-	7(6.7)	-	47(45.2)	10(9.6)	7(6.7)	1(1.0)	31(29.8)	1(1.0)	140(100.0)
	비취업	76(54.3)	-	-	44(31.4)	4(2.9)	8(5.7)	4(2.9)	3(2.1)	1(0.7)	140(100.0)
오후 3시-4시	취업	3(2.9)	9(8.7)	-	46(44.2)	10(9.6)	6(5.8)	-	29(27.9)	1(1.0)	140(100.0)
	비취업	106(75.7)	-	-	23(16.4)	2(1.4)	4(2.9)	2(1.4)	3(2.1)	-	140(100.0)
오후 4시-5시	취업	7(6.7)	12(11.5)	-	42(40.4)	8(7.7)	5(4.8)	-	29(27.9)	1(1.0)	140(100.0)
	비취업	121(86.4)	-	-	10(7.1)	2(1.4)	2(1.4)	1(0.7)	3(2.1)	1(0.7)	140(100.0)
오후 5시-6시	취업	14(13.5)	13(12.5)	-	40(38.5)	7(6.7)	5(4.8)	-	24(23.1)	1(1.0)	140(100.0)
	비취업	132(94.3)	-	1(0.7)	-	-	-	1(0.7)	3(2.1)	3(2.1)	140(100.0)
오후 6시-7시	취업	45(43.3)	14(13.5)	-	21(20.2)	3(2.9)	3(2.9)	-	17(16.3)	1(1.0)	140(100.0)
	비취업	136(97.1)	-	-	-	-	-	-	2(1.4)	2(1.4)	140(100.0)
오후 7시-8시	취업	79(76.0)	8(7.7)	-	7(6.7)	1(1.0)	-	-	8(7.7)	1(1.0)	140(100.0)
	비취업	138(98.6)	-	-	-	-	-	-	1(0.7)	1(0.7)	140(100.0)
오후 8시-9시	취업	93(89.4)	5(4.8)	-	1(1.0)	-	-	-	4(3.8)	1(1.0)	140(100.0)
	비취업	139(99.3)	-	-	-	-	-	-	-	1(0.7)	140(100.0)
오후 9시-10시	취업	96(92.3)	4(3.8)	-	-	-	-	-	4(3.8)	-	140(100.0)
	비취업	139(99.3)	-	-	-	-	-	-	-	1(0.7)	140(100.0)

[illegible][illegible]

〈부표 19〉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이용 사례수

구분	사례수	%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28	93.3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한다	2	6.7
전체	30	100.0

〈부표 20〉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정기이용 전일제 vs 시간제

구분	사례수	%
전일제	9	32.1
시간제	19	67.9
전체	28	100.0

〈부표 21〉 아이돌보미 정기이용 시간제 평균 이용 시간

구분	사례수	%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8	42.1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9	47.4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	5.3
8시간 이상	1	5.3
평균 시간	3.84시간	
전체	19	100.0

〈부표 22〉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정기이용 주당 이용 횟수

구분	사례수	%
주 2회 이하	5	17.9
주 3회	3	10.7
주 4회	2	7.1
주 5회	14	50.0
주 6회 이상	4	14.3
평균 횟수	3.23회	
전체	28	100.0

〈부표 23〉 정부지원 아이 돌보미 비정기이용 월 평균 이용 횟수

구분	사례수	%
월 3~5회	1	50.0
월 6~8회	1	50.0
전체	2	100.0

〈부표 24〉 아이돌보미 비정기이용자 1회 평균 이용 시간

구분	사례수	%
2시간	1	50.0
4시간	1	50.0
전체	2	100.0

〈부표 25〉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만족도

구분	사례수	%
매우 만족한다	6	20.0
만족하는 편이다	18	60.0
보통이다	6	20.0
전체	30	100.0

〈부표 26〉 유료 베이비시터 이용 사례수

구분	사례수	%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133	83.1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한다	27	16.9
전체	160	100.0

〈부표 27〉 유료베이시터 정기이용 전일제 vs 시간제

구분	사례수	%
전일제	16	12.0
시간제	117	88.0
전체	121	100.0

〈부표 28〉 유료베이시터 정기이용 시간제 평균 이용 시간

구분	사례수	%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5	4.3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4	12.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9	7.7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42	35.9
10시간 이상	47	40.1
전체	117	

〈부표 29〉 유료베이시터 정기이용 주당 이용 회수

구분	사례수	%
주 3회	2	1.5
주 4회	3	2.3
주 5회	88	66.2
주 6회 이상	40	30.1
전체	133	100.0

〈부표 30〉 유료베이시터 비정기이용 월 평균 이용 횟수

구분	사례수	%
월 2회 이하	8	29.6
월 3~5회	11	40.7
월 9~10회	4	14.8
월 11회 이상	4	14.8
전체	27	100.0

〈부표 31〉 유료베이비시터 비정기이용자 1회 평균 이용 시간

구분	사례수	%
2시간 미만	1	3.7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11	40.7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0	37.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2	7.4
8시간 이상	3	11.1
전체	27	100.0

〈부표 32〉 유료베이비시터 비정기이용자 보육 1회 평균 비용

구분	사례수	%
2만원 미만	3	11.1
2만원 이상~4만원 미만	17	62.9
4만원 이상~6만원 미만	5	18.5
6만원 이상	2	7.4
전체	22	100.0

Abstract

Actual Conditions and Supporting Schemes for Home Based Child Carers

Hye-Kyung Chang
Young-Ran Kim
Moon-Hee Suh
Yong-Hee Kim

In Korea, the institutional-based child care service has been promoted positively after the Infant Care Act(1991) enacted. However, the demands for child care have become more individualized. 'Home-Based Child Care'(classified as 'Family Child Care' and 'In Home Care') may cover those diverse demands for child care. With this background information, this research aims at exploring the plans to support Home-Based Child Care as a complement for institutional based child care by surveying on the actual condition of households' using Home-Based Child Care services.

1,000 households who have a child(children) age under 5 were survey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of child care

arrangements according to time zone, the age of children and the parents' work status etc. In the child care arrangements classified as 'care by parent(s)', 'care by relative(s)', 'care in facility' and 'fee charging in-home care', the olde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be cared for in facilities in comparison with the children age under 2. In considering the care arrangements by parents' work status, 'care in facility' and 'fee charging in home care' are more common for the children of the parents employed. The difference of care arrangements classified by time zone shows the diverse demands for child care more clearly. For instance, 'fee charging in home care' are increased in evening(after 7PM) and it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parents choose 'In Home Care' complementarily because most child care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in the evening.

As the results show, there are individualized demands for child care. Therefore, child care services in public and private need to be developed to meet the diverse demands from households. And Home-Based Child Care also complementarily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for covering the individualized demands for child car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8-02
2008 연구보고서-13-1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2008년 12월 29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278-6 94330 <정가 13,000 원>
978-89-8491-276-2 94330 (세트)